금주의 법구–〈법구경〉
욕망의 숲을 자르고
욕망서 벗어난 자가 돼라.
그리고 영원한 자유를 찾아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42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3년 음력 3월 20일) 2019년 4월 24일 수요일

“백만 명 원력이 한국불교 바꾼다”

조계종, 17일 백만원력 결집운동 선포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종이 한국불교 주요 현안들을 사부대중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개하는 ‘백만원력 결집운동’을 공식 선포했다. 사부대중의 매일 100원 기부를 바탕으로 승려복지, 전법포교, 자비나눔 등의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계종 백년대계본부(본부장 정념)는 4월 17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산하위원회인 백만원력결집위원회 ‘백만원력결집 선포식’을 봉행했다. 백만원력결집운동은 지난 2년간 종단 안팎의 갈등 상황으로 인해 흩어진 불심을 다시 한 곳으로 모아 한국불교 중흥의 기틀을 마련하자는 취지의 모연캠페인이다. 사부대중 개개인이 매일 대승원력보살 발원문을 독송하고, 100원씩 모아 한 달에 3000원을 기부하는 형식이다.

백만원력 결집운동은 각각 불 · 법 · 승 삼보의 주제에 맞춘 대형 불사가 중심이다. 불(佛)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룬 성지 인도 부다가야에 한국 사찰을 건립하는 것으로 순례자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게 된다. 법(法)은 육 · 해 · 공 3군본부 계룡대에 영외법당을 지어 젊은 군불자들이 언제나 마음 편히 법문을 듣고 예불을 올릴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다. 승(僧)은 불교요양병원을 세워 스님과 불자들이 수행생활을 영위하며 치료와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복지불사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한국불교 사부대중이 대승원력 보살로 거듭나 한국불교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마중물이 될 것을 당부했다. 원행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한국불교는 근래 들어 고령화와 탈종교화, 세속화라는 간단치 않은 시대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그런데 환경의 변화에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할 역량이 부족한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원력 보살 한 사람 한 사람은 종단을 비추는 햇살이다. 백만 명의 원력 보살이 힘을 모으면 우리는 찬란한 불교 부흥의 시대를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행 스님은 불 · 법 · 승 각각의 불사 외에 460년 전 지진에 쓰러진 것으로 알려진 무게 70톤 규모의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을 세우는 데도 사부대중이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원행 스님은 이어 “중생은 업력으로 고해를 살아가고, 불보살은 원력으로 지금 여기에 불국토를 건립한다. 물러나지 않는 서원과 실천으로 불보살은 자신과 타인, 개인과 사회를 함께 성장시키고 완성한다”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한국불교가 세상에 의미 있게 존재하고, 부처님 가르침이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대승보살의 원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선포식에서는 어린이불자부터 학생, 성인, 전국 사찰 주지스님과 신도들까지 사부대중이 백만원력 결집운동 약정에 대거 동참했다. 조계사 어린이와 의정부 광동고교, 중앙승가대학, 학교법인 동국학원을 비롯해 군종특별교구, 생명나눔실천본부, 중앙신도회, 포교사단 등이 순서대로 약정서를 원행 스님에게 전달했다. 특히 조계사와 봉은사는 각각 10만 명분을 약정해 눈길을 끌었다. 약정서 전달 이후에는 선포식에 동참한 사부대중이 함께 ARS로 기부에 동참하는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한국불교 중흥 기틀 마련코자
佛 · 法 · 僧 주제 원력불사 추진
매월 3000원으로 결집 동참
부담 없는 보시바라밀 실천

원로의장 세민 스님은 “백만원력결집 모연 불사는 종단의 희망찬 앞날을 기약하는 매우 뜻깊은 선연이라서 불보살님의 가피공덕 또한 한량이 없을 것”이라며 “우리불자 모두 희망찬 앞날을 위해 흔쾌히 마음을 내 발심하고, 원력을 발하여 하루하루 기쁘고 편안하며 행복한 마음 가득하길 발원한다”고 격려했다.

백만원력 동참대중은 이날 삼보전에 8가지의 원력 실천을 다짐했다. 이들은 백만원력결집선언문을 통해 △대승 원력 보살로 거듭나기 △보시 바라밀 실천 △부처님 가르침 따라 살기 △건강한 화합 공동체 만들기 △부처님 도량 꾸미기 △세상 속에서 불교 실천 △생명 평화 실천 △부처님 가르침 전법 교화 등을 서원했다.

한편 선포식에는 원로의장 세민 스님을 비롯해 중앙종무기관장과 교역직 스님, 교구본사주지, 중앙종회의원, 종정기관장, 주요사찰 주지, 각급 신도 · 포교단체장 등 사부대중 2000여 명이 참석했다.



마음愛 자비를 세상愛 평화를… 불기 2563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탑 점등식이 4월 17일 서울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열렸다. 올해 봉축장엄등은 국보 제11호인 ‘미륵사지탑등’이다. 올해 봉축 표어인 ‘마음愛 자비를 세상愛 평화를’ 새기며 각 종단 총무원장 등 불교계 내빈들이 미륵사지탑등을 점등하고 있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어린이 눈높이’ 동화 같은 연등회

5월 3~5일 종로 일대서, 어린이 프로그램 다수 기획

‘작은 팔모등’ 직접 만들어
연등행렬 현장 참가 가능
전통문화마당 체험 부스엔
어린이 명상 등 눈길 끌어

국내 최대 전통문화축제이자 전 세계인들이 5월 중 한국에서 꼭 경험해야 할 축제로 손꼽는 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가 올해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열린다. 행사현장에서 직접 팔모등을 만들어 연등행렬에 참가할 수 있고, 어린이들을 위한 각종 체험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와 연등회 보존위원회는 5월 3일부터 5일까지 서울 종로 일대에서 2019 연등회 본행사를 개최한다. 매년 전통문화와 평화, 화합 등의 가치를 중심으로 열리는 연등회지만 올해는 어린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가족단위의 프로그램이 다수 기획돼 눈길을 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작은 팔모등 만들기’다. 이 행사는 연등회의 백미인 연등행렬에 앞서 4일 오후 2시부터 탑골공원에서 진행된다.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를 중심으로 어린이와 가족들은 각자 팔모등을 만들고, 오후 7시부터 진행되는 연등행렬에 동참할 수 있다. 기존에는 사찰과 단체 위주로 연등행렬을 실시했으나 올해는 가족들이 직접 소형 장엄등을 들고 행렬에 참여해 특별한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뿐만 아니라 조계종 종립학교 은석초등학교에서도 처음으로 120여 명의 학생들이 연등행렬에 동참하며,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한 행렬단들은 선두에 서서 태극초롱등 · 동자동녀등 · 별등 · 팔모등을 대중에 선보인다. 또한 어린이와 가족의 이미지를 담은 ‘뚜루루 상어가족등’과 ‘라이언등’의 친근한 캐릭터 등도 종로의 밤을 밝힐 예정이다.

5일 조계사 앞길에서 펼쳐지는 전통문화마당에도 어린이 프로그램 부스가 대거 설치된다. △어린이 다도체험 △어린이 불교예절 △어린이 마음보기 명상 등 어린이날에 맞춰 즐기는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안국동 특설무대서는 어린이 · 청소년 · 외국인들의 다양한 공연도 만날 수 있다.

2019 연등회는 4월 17일 서울 광화문 점등식을 시작으로 축제 대단원의 막이 올랐다. 이후 조계사와 봉은사, 청계천 일대에 전통등전시회가 부처님오신날까지 진행된다. 연등행렬에 앞서 봉축분위기를 한껏 띄우는 어울림마당은 5월 4일 오후 4시 30분, 동국대 대운동장서 펼쳐진다. 여기에는 40여 단체의 어린이 · 청소년 · 청년율동단과 등단별 연희단 1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연등행렬 이후 참가자와 관객들이 남녀노소 구분 없이 함께 춤과 음악을 즐기는 회향한마당은 오후 9시 30분 종각 사거리에서 진행된다. 올해에는 젊은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음악장르인 EDM 등을 활용한 연등회 노래가 울려 퍼진다.

한편 연등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부 행사구간은 교통이 통제된다. 연등행렬이 이어지는 종로1가 사거리~흥인지문 구간은 4일 오후 1시부터 이튿날 새벽 3시까지, 세종대로 사거리와 안국사거리~종로1가 사거리 구간은 4일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새벽 1시까지, 동국대~흥인지문 구간은 4일 오후 6시부터 8시 30분까지 전면 통제된다.

윤호섭 기자


시방세계 A5
전국 봉축일정

강의실중계 A7
천태종 삼광사 특강 – 장상목 동아대 교수




조계종 불교성전 편찬 '첫발' 떼다

'불교성전 편찬 추진위' 현판식 18일 개최

1차 회의서 편찬 방향 논의
시대 · 주제별 구성안 제출돼
2020년 6월 최종원고 완성



새 시대에 맞는 조계종 최초의 불교성전 편찬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조계종은 4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에서 불교성전 편찬추진위원회 현판식을 개최했다.〈사진〉

이날 추진위원장 원행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사상 최초의 성전 편찬은 종단 안팎의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만큼 책무가 크다"며 "잘 살펴 어디 하나 빠지지 않는 훌륭한 성전이 편찬되기를 기원한다. 종단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상임위원장 지홍 스님(조계종 포교원장)은 "불교 교리는 부처님 말씀을 담은 심오한 가르침이고 방대한 분량이기에 일반 재가불자들이 다가가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부처님 말씀을 선별하고 새롭게 엮어 내는 불교성전 편찬 작업은 불교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현판식에 이어 추진위원회는 상임위원인 고시위원장 지안 스님과 서울 금강선원장 혜거 스님, 중앙승가대 명예교수 본각 스님, 해주 스님 등에게 상임위원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어 제1차 상임위원회와 기획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불교성전 편찬 방향과 구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서는 개괄적인 불교성전 편찬 계획이 논의됐다. 역경원 본 불교성전, 만해 스님 편찬 불교대전, 대한불교청년회 편찬 우리말팔만대장경의 3가지 불교성전을 바탕으로 각 불교성전의 문제점 및 수정 필요사항을 공유했다. 이를 통해 사무국은 불법승 체제에 따라 시대별과 주제별로 장과 절을 나누고 시대별 주요 키워드를 선정해 반영하는 안을 제시했다.

한편, 불교성전 편찬추진위원회는 먼저 올해 상반기 목차를 확정하고 7월 번역 원칙을 논의한다. 12월 원고 초안을 점검한 후 2020년 2월 불교성전 초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원고 감수 및 윤문을 거쳐 6월 불교성전 최종원고가 완성된다. 이후 10월 불교성전 일반용이 발간되며 봉정식이 열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법진 스님 가처분 기각에 '항고'

선학원 분원장 · 창건주들… "본안 소송도 검토"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징역 6월 확정판결을 받은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의 직무정지가처분 기각결정에 선학원 창건주 · 분원장들이 항고했다. 본안소송도 병행될 예정이어서 재판 결과에 다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을 상대로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한 40여 창건주 · 분원장들은 4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기각을 결정하자 16일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

이와 관련해 법진 스님의 퇴진을 촉구해온 선학원미래포럼 회장 자민 스님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기각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자민 스님은 "선학원은 재단 형성과정에서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 500여 사찰의 창건주와 분원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사단법인 성격이 엄연히 존재한다"며 "특수한 종교단체 성격은 무시한 채 형식적인 면에서 내려진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자민 스님은 이어 "대법원에서 징역형 확정 선고를 받은 성범죄 전과자가 청정승풍을 창립이념으로 하는 선학원의 최고 수장인 이사장직을 내놓지 않겠다는 것은 승려의 탈을 쓰고 불법(佛法)을 망치려는 마구니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선학원 이사회는 법진 개인의 호위무사나 사조직이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민 스님은 "창건주와 분원장은 무지몽매한 우민이 아니다. 성추행 전과자는 덕망 높은 승려가 아니라는 것을 판단할 정도의 능력은 있다"며 "법진 이사장과 이사진이 총사퇴하고 선학원이 개혁될 때까지 모든 사법적 · 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학원미래포럼 측은 가처분 항고뿐만 아니라 본안소송을 검토해 병행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윤호섭 기자**

불신임 정국에 갈라지는 태고종

편백운 총무원장 검찰조사 '혐의 없음' 결과
중앙종회 "종법상 불신임은 별개 사안" 주장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올해 초 태고종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의 연두백서 기자회견 도중 총무원 측과 중앙종회 측 스님들이 청사 입구에서 대치하며 갈등을 빚은 모습. **현대불교 자료사진**

태고종 행정부 수장 불신임 사태가 장기화면서 종단이 둘로 갈라지고 있다. 불신임된 편백운 스님은 자신의 비위관련 검찰조사 '혐의 없음' 통보에 총무원장서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불신임을 결의한 중앙종회는 종헌종법과 별개 사안이라고 맞서고 있다. 양측 모두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종단 분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도광 · 시광 · 지담 · 도성 스님 등 일부 중앙종회의원들이 업무상 배임, 사문저 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배임수죄 등의 혐의로 총무원장 편백운 스님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4월 4일자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을 통지했다.

이에 편백운 스님 측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자신에 대한 종헌종법상 불신임이 무효임을 주장했다. 태고종 총무원은 "이번 사건은 도광 종회의장 등 8명의 오판과 무리한 집행부 견제, 종회의 월권, 법담 스님의 궤변에서 비롯된 태고종 사상 초유의 우치한 사건"이라고 중앙종회를 비판한 뒤 "종도들을 분열시키고 원로회의까지 부화뇌동케 했다. 지난 7개월 동안 종단을 혼란과 파국에 이르게 하고 길거리 종회를 열어가면서 총

행정부 불신임 사태 장기화
총무원 · 종회 입장 차 여전
최근 임시회 결과로도 갈등
각자 매체 통해 정당성 강조

무원장을 불신임한 것은 원천 무효화됐다"고 주장했다.

총무원은 이어 사건의 주동자로 법담 · 도광 · 지담 · 시각 스님을 지목했으며, 동조자로 상명 · 법신 · 도성 · 탄허 · 남법진 · 방진화 스님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해당 스님들에 대한 중징계를 예고했다.

이 같은 총무원 주장에 중앙종회는 "고등검찰청에 항고하기 위해 이번 혐의 없음 처분 결과를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면서 "종헌종법으로 인한 불신임은 형사고소, 처벌과는 관계가 없다. 태고종도 총무원장의 여러 문제와 종무수행이 종단에 피해를 주고, 종도들을 불안하게 하기 때문에 종법에 의해 불신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중앙종회는 17일 순천 선암사에서 임시회를 소집하고 총무원장선거법, 선거인단선거법, 선거관리위원회법, 종무원법 개정안 등을 가결했다.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안은 보궐선거를 통해 60일 이내에 새 총무원장을 선출토록 한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편백운 스님은 "이미 3.14 종회 불신임과 원로회의 인준이 무효이므로, 이번 임시회 또한 인정할 수 없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처럼 양측 대립이 길어지면서 편백운 스님을 중심으로 한 총무원과 이를 반대하는 중앙종회는 현재 각자의 매체를 통한 장외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편백운 스님은 자신이 발행인인 태고종 기관지 〈한국불교신문〉을 통해 중앙종회의 부당성을, 중앙종회는 〈중앙종회보〉 인터넷판에 총무원장 불신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학교 비판' 고소로 대응한 금강대 내홍

금강대 학생비상대책위
천태종 말사 서신 배포



천태종립 금강대학교 본관건물에 걸린 현수막. 직원노조와 총학생회 등이 고소 취하와 관련자 사퇴 등을 촉구하고 있다.

천태종립 금강대학교(총장 송희연)가 학교 운영행태를 비판한 익명의 학생들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익명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교수협의회와 직원노조, 총학생회가 우려의 뜻을 표하면서 학교당국 비판에 나섰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0월 초 천태종 산하사찰 약 160곳에 발송된 '승복으로 사리사욕을 감출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서신이다. '금강대학교 학생비상대책위원회' 명의로 발송된 서신에는 △부도덕한 직원채용 의혹 △빈번한 학제개편 △이사회의 비전문성 등 학교 운영과 관련된 문제제기와 이로 인해 학생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호소가 담겼다.

이 서신이 배포된 사실을 인지한 대학본부는 총학생회에 비상대책위원회 존재 여부를 물었으나 확인되지 않으면서 논산경찰서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우편물 발송자를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학교 측이 문제 서신의 주체를 교내 직원으로 규정해 논란의 불씨가 커졌다. 학교 측은 우편물 발송지인 상월

학교 측 '실체 불분명' 해명
"학생대책위 존재 확인 안 돼"
교수협 · 직원노조 대학 비판
"고소취하 · 관련자 사퇴 촉구"

우체국 CCTV 확인결과 입학관리팀 직원이 우편물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했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해당 직원은 "학생의 부탁으로 우편물을 대신 발송했다"고 해명했지만 학교 측은 진상규명을 위해 경찰수사를 요청했다.

송희연 금강대 총장은 3월 7일 공고문을 통해 "정체불명의 벽보 및 우편물 사건이 대학과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교육기관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학생의 이름을 빌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대학의 개혁을 방해하려는 일부 세력의 명백한 해교행위임을 규정하고, 관련자를 법과 학칙이 정한 바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논산경찰서는 입학관리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학교 측도 학생비상대책위원회의 실체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4월 10일 학생비상대책위원회 소속 학생 2명이 경찰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서신 논란은 새 국면을 맞았다. 결과적으로 학교가 학생을 고소한 모양새가 되자 교수협의회와 직원노조 등은 대자보를 게시하며 주요 보직자들의 책임을 물었다. 금강대 제16대 총학생회 또한 고소 취하와 관계자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 관계자는 "학생들의 사실확인서 제출 이전부터 대책위가 존재한다면 대학본부에 직접 연락을 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그럼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 실체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며 "경찰 측에서도 사실확인서만으로 사건의 주체를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만약 학생들의 행위로 확인된다면 학교는 다른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윤호섭 기자**



불교 실천의제, 知性 간 토론으로 이끌다

100회 맞은 불교평론 '열린논단' 의미는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2009년 2월 27일 논단 시작
4월 18일 100회 맞이 토론회
매회 30~40명 불교 지성모여
교리 · 포교 · 사회 등 의제 논의
불교계 토론문화 성숙에 기여

전문성과 대중성 모두 고민 중
지속 운영 목표… "변화 계속"



불교계 유일 지성 간 토론모임인 불교평론의 '열린논단' 이 100회를 맞았다.

불교평론과 경희대 비폭력연구소는 4월 18일 열린논단 100회를 맞아 '한국불교,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모든 참가자들에게 5분의 발언 기회를 주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특정 의제를 놓고 전문가 발제와 토론을 통해 담론을 형성해나갔던 '열린논단' 은 시작부터 토론의 불모지였던 불교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시작은 2009년 2월 27일 김성철 동국대 교수(당시 편집위원장)의 '한국 종교의 정치종속성과 불교의 미래' 주제 발제였다. 그 후 지난 10년간 서울 강남 신사동 불교평론 세미나실서 매년 10회씩 세미나 형식의 논단이 진행돼 왔다. 정확하게 10년 1개월 22일, 3703일의 대장정이었다.

100회에 이르는 동안 연인원 3500여 명이 참여하며 우리시대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불교적 해법을 논의 · 토론해왔다. 참여군도 다양했다. 불교학자들과 언론인, NGO 대표 등 불교 오피니언 리더를 비롯해 이웃종교 학자 · 성직자, 학생, 일반인들이 참석했다.

열린논단이 불교계 안팎으로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폭 넓은 의제 선정에 있었다. 교리, 수행과 같은 불교의 기본에 관한 주제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대사회, 윤리학, 예술, 이웃종교 등 융복합적 주제들도 상당 수 다뤄졌다.

실제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인공지능에 대한 논의들도 다수 이뤄졌다. 지승도 한국항공대 교수는 '인공지능의 불교적 이해' 를, 이도흠 한양대 교수는 '인공지능에 대한 쟁점- 융합적 분석과 불교' 를 각각 발표한 바 있다.

열린논단 60회를 맞아 이뤄진 연속 기획도 눈길을 끌었다. 2015년 2, 3, 4월 세 차례에 걸쳐 '한국불교, 정말 괜찮은가' 를 주제로 논단이 진행됐다. 당시 조성택 고려대 교수는 '사회적 역할, 정말 잘하고 있는가' 를,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포교, 정말 잘하고 있는가' 를, 조명제 신라대 교수는 '수행, 정말 잘하고 있는가' 를 각각 발제했다.

올해로 5주기를 맞은 세월호 참사에서 종교가 나아갈 길을 모색한 오강남 캐나다 리자이나대 종교학 명예교수의 논단(2014년 10월 23일)도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홍사성 〈불교평론〉 주간은 "故설악 무산 대종사께서 〈불교평론〉 사옥을 마련하며 세미나실이 생겼고, 이를 활용한 프로그램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기획된 것이 열린논단"이라며 "〈불교평론〉이 계간이어서 시기에 맞춰 다뤄야 하는 의제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긴밀히 대응하기 위한 토론 모임도 필요했다"고 논단 기획 취지를 밝혔다.

'열린논단' 의 의미에 대해서 홍사성 주간은 " '열린논단' 의 주제들은 불교의 시대적 실천의제들이 많다"며 "발제와 토론을 통해 한국불교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했던 점이 '열린논단' 의 가장 중요한 의의"라고 평가했다.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현 편집위원장)도 "불교가 시대적으로 필요한 의제들을 사회와 연결해 논의의 장을 펼친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밝혔다.

〈불교평론〉은 '열린논단' 의 지속 운영을 1차 목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전문성과 대중성을 아우를 수 있는 의제 선정 등 변화를 고민 중이다. 99회 논단을 앞두고는 "대사회적 자비실천과 같은 주제에도 관심을 갖겠다"는 계획도 내보인 바 있다.

홍사성 주간은 "전문가 그룹의 이야기만 하다보면 대중성을 놓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전문성과 대중성을 어떻게 결합시킬지를 고민하고 있다"며 "정착 · 안주하기보다는 계속 변화하며 논단의 지속성을 만들어가려 한다"고 강조했다.



"Wonderful, Temple food!" 전 세계 주한 외교대사 부인들이 사찰음식의 매력에 빠져 들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4월 18일 서울 안국동 사찰음식체험관에서 마련한 초청행사에서다. 유럽연합을 비롯해 벨기에, 브라질, 이집트 등 18개국 주한 외교대사 부인들과 강난희 서울시장 부인 등은 이날 동원스님의 지도 아래 쑥 인절미와 더덕찹쌀구이, 봄동 겉절이 만들기를 체험했다. 행사에서 각국 대사 부인들은 스님의 사찰음식 조리과정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담고, 서로 기념촬영을 하며 한국불교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보냈다. **윤호섭 기자**

2019행복바라미, 대장정 막 올리다

4월 14일 서울 청계광장서
행복바라미 캠페인 선포식 개최



2019행복바라미 캠페인 선포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사진 왼쪽 첫번째)과 이기흥 날마다좋은날 이사장(사진 오른쪽 첫번째)을 비롯한 내빈들이 꽃나무에 물을 주는 선포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불교계 대표 공익 캠페인 행복바라미가 4월 14일 서울 청계광장에서의 캠페인 선포식을 시작으로 2019년 대장정의 막을 올렸다. 지역사찰과 도심지를 중심으로 진행될 올해 행복바라미 캠페인은 500여 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되며 부처님오신날 주간을 기해 다양한 문화축제가 펼쳐진다.

4월 14일 진행된 캠페인 선포식은 고금 스님의 법고 축원을 시작으로 이기흥 날마다좋은날 이사장(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의 환영사,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치사, 각계 축사와 행복바라미 선언문 낭독, 선포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다.

선포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해 포교원장 지홍 스님과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 화계사 주지 수암 스님, 연화사 주지 장명 스님, 수국사 주지 호산 스님 등 불교계 스님들이 대거 찾아 불자들의 자비보시행을 격려했다. 이와 함께 방창덕 포교사단장, 박원순 서울시장, 이우성 문체부 종무실장, 유민봉 정각회 국회의원 등 불자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기흥 날마다좋은날 이사장은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는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 개막행사가 광화문 광장에서 청계광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캠페인 확산을 위한 방안"이라며 "이곳 청계광장에서 시작된 물줄기가 한강을 지나 서해바다를 건너 제주까지 가듯, 원주, 공주, 대구, 부산 등 전국 20여개 지역에서 펼쳐지는 행복바라미의 바람을 모두 함께 일으키자"고 당부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치사에서 "우리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불자들의 노력인 행복바라미가 7년간의 정진 결과로 많은 이웃들에게 온정을 나누고 있다"며 "자타불이의 정신을 실천하는 불제자의 정진으로 우리 사회가 한층 더 밝아지길 기원한다. 특히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을 계기로 나눔과 행복의 마음이 확산돼 한반도 평화까지 앞당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어 특설무대에서 꽃나무가 피어나는 축하행사와 방창덕 포교사단장의 선언문 대표낭독이 진행돼 참석한 불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 **노덕현 기자**

'세월호 5주기' 사고해역 추모재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찬)는 4월 13일 전남 진도 팽목항과 세월호 사고해역에서 '세월호 5주기 추모재' 를 봉행했다. 추모재서는 사노위 부위원장 지몽 스님을 비롯해 시경 · 법상 · 한수 스님 등 위원 스님들이 사고 해역까지 배를 타고 이동, 참사로 희생된 304명의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이 자리에는 세월호 미수습자였다가 지난해 5월 수습된 단원고 조은화 · 허다윤 학생의 가족들도 함께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차명진 前국회의원이 자신의 SNS에 "세월호 유가족, 징하게 해 처먹는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자 사노위는 차 前의원을 강력 비판했다.

사노위는 16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세월호 참사는 청와대, 정부, 해경, 해수부, 회사, 선원 등의 총체적 잘못으로 억울한 죽음을 당한 것이 명백함에도 이를 폄훼하고 농락했다. 세월호 가족과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면서 "차 前의원의 정신 상태가 정상적인지 의심까지 든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이라면 더욱 용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호섭 기자**

충효 정신 고취 및 한국전쟁 중 희생된 미군을 위한
수륙영산대재 및 생전예수재 봉행

▮입재 2019년 6월 12일(음력 5월 10일) ▮회향 2019년 6월 16일(음력 5월 14일)

귀의삼보 하옵고, 기해년 새해를 맞이해서 부처님의 가피 원력이 불자님 가정에 두루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일찍이 상월원각대조사님께서는 미래세상에 지구촌 동서양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여 일체 고통을 해탈하고 무진 복락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소백산 구봉팔문 아래임을 증명하여 구인사를 창건하시고 천태종을 중창조하셨습니다. 본 송덕사에서는 한국전쟁 당시 참전 희생자 중 미군 전사자 33인등 1등씩 달아서 그 자손부터 부처님과의 인연을 맺어주려 합니다. 특히, 33인등을 만드신 것도 상월원각대조사님이시기에 이 선근공덕으로 구인사에 서양 사람도 끝없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불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수희동참바랍니다.

● 장소 : 천태종 송탄 송덕사
● 계좌 : 기업은행 031-666-3180(송덕사)
● 문의 : 031)666-3180
● 동참비 : 미군 전사자(35,686 영가) 33인등 1등,
봉헌금 1만원, 영가당 10만원,
생전예수재 5만원, 조상 10영가 이상 1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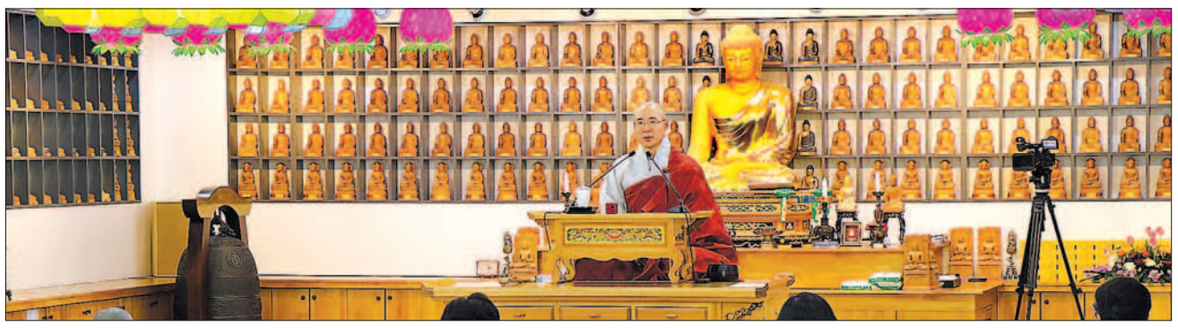
33인 등이란 천태종 중창조 상월원각대조사님께서 증명하신 등입니다. 33인이 모여서 하나의 원력을 만들어 부처님께 기원드리면 그만큼 속득 소원성취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대한불교천태종 송탄 송 덕 사

“도심서 느끼는 화두의 묘미”

한국참선지도자협회, 제2기 참선아카데미 개강

7월 20일까지 매주 교육
초기불교부터 간화선까지
한국불교 대표 고승 강의
“禪수행의 요체를 만난다”


백담사 유나 영진 스님이 4월 12일 개강한 제2기 참선아카데미 강좌에서 강의하고 있다.

참선아카데미 대강좌 커리큘럼

4월	26일	초기불교와 간화선 통합수행	각산스님	6월	15일	석종사 혜국 스님 특별법문	
	17일	왜 한국불교는 간화선인가	서광스님		21일	간화선 세상을 꿰뚫다	의정스님
5월	24일	영화로 만나는 선수행	대해스님		5일	정신건강전문의가 바라본 초기불교수행	전현수 박사
	31일	세계명상 수행승 각산스님과 질의응답		7월	12일	일상에서 깨달음 실천하기	백성호 기자
6월	7일	참사람수행법	금강스님		19일	참선의 이론과 실제	각산 스님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지난해 서울 강남 도심 속 참선으로 각광을 받은 한국참선지도자협회(회장 각산) 제2기 참선아카데미가 4월 12일 참불선원에서 개강했다. 약 200명의 일반인들이 참가한 제2기 참선아카데미는 7월 20일까지 이어진다.

올해에는 한국 선승과 심리의학 전문가, 명상 고수들이 강의에 나선다. △초기불교와 간화선 통합수행 △안반선(호흡명상) △선과 융합한 심리치료 △선문화를 통한 불교전법 △젊은 세대와 공감하는 불교수행 등 다양한 강의가 마련됐다.

제2기 참선아카데미는 1기와 마찬가지로 한국불교에서 내로라하는 고승과 참선 전문가들이 교수사로 참여한다. 제2기에는 백담사 유나 영진 스님의 ‘간화선이란 무엇인가’ 주제 강의를 시작으로 대종사 혜국 스님의 특별법문, 세계명상 수행승 각산 스님의 ‘참선 이론과 실제’, 내소사 고승 일오 스님의 ‘한국의 대선사 도를 말하다’, 전국선원수좌회 대표 의정 스님의 ‘간화선 세상을 꿰뚫다’, 봉암사 한주 정과 스님의 ‘너의 마지막 숨까지 수행하라’는 강의가 진행된다.

이외에도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은 ‘참사람 수행법’, 비구니 영화감독 대해 사 국제선원장 대해 스님은 ‘영화로 만나는 선수행’, 전현수 정신의학전문의는 ‘정신건강 전문의가 바라본 초기불교 수행’, 백성호 중앙일보 종교문화 기자는 ‘일상에서 깨달음 실천하기’를 각각 강의한다.

아카데미 첫날 백담사 유나 영진 스님은 선종사와 선 수행을 주제로 강의했다. 영진 스님은 단순한 참선만으로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연기 · 중도 · 공 · 무아 등 핵심 사상을 이해하지 못한 채 참선만 해서는 얻을 게 없다”고 설명했다.

영진 스님은 이어 “부처님께서는 새로운 걸 만들지 않았다. 중생들이 갖고 있지만 보지 못한 것을 제대로 볼 수 있게 가르친 것”이라며 “모든 것이 순환한다는 연기처럼 수행 역시 시작과 끝이 없다. 아카데미가 끝날 때까지 불교의 요체를 배우는 데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참불선원 신도회는 개강에 앞서 참선아카데미 공동 주최인 현대불교신문사에 발전기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기금 전달식에는 박종수 현대불교신문사장과 윤영숙 서울 참불선원 신도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참선지도자협회는 이론보다는 실참수행을 기본으로 ‘참선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봉암사, 해인사 등에서 수행한 30년 이상의 선승과 저명한 활동 이력을 갖춘 선원장, 정신의학 · 명상심리학 분야 교수 등으로 구성된 단체다. 참선을 주요 콘텐츠로 불교수행과 문화를 알리고, 참선을 통한 심리치료와 현대의학, 명상과학 등과의 융복합 프로그램을 개발 · 보급하고자 출범했다.

참선지도자협회장 각산 스님은 “체험 없는 이론은 번쇄철학이다. 참선이 불교의 수행법이라는 제한된 역할에서 벗어나 부처님 가르침으로, 정확한 안목의 지혜로 모든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보편적 생활지침으로써 자리 잡을 수 있게 한다”며 “사성제와 팔정도 실천법의 진리를 한국정신문화와 과학명상으로 보급해 기업명상과 아울러 국민 힐링, 청소년 인성교육, 게임중독치료, 비행청소년 예방, 자살예방, 심리치료, 스트레스 완화 등에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불교음악 · 문화재 전문가 되고 싶다면?

불교예술을 비롯한 예술 전반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동국대 문화예술대학원(원장 오병욱)은 오는 5월 15일까지 2019년 후기 석사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

모집학과는 △문예창작학과(시전공, 소설 · 드라마전공) △연극예술학과(연극예술전공) △불교예술문화학과(불교미술전공, 문화재전공, 한국음악전공, 민화전공) △예술경영학과(공연예술경영전공, 미술경영전공) △예술치료학과(미술치료전공) △실용예술학과(실용음악전공, 뷰티아트케어전공) 등이다.

특히 문화예술대학원의 한국음악전공에는 박범훈 조계종 불교음악원장(前 중앙대 총장 · 청와대수석비서관)이 석좌교수를 맡아 후학 양성을 위한 지도에 나선 점이 주목된다. 박범훈 교수는 우리 동양음악의 모체인 불교음악을 위해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고 훌륭한 교 · 강사를 초빙해 체계화된 전문 지식인을 배출할 예정이다.

실제 주요 과목으로 박범훈 원장의 ‘불교음악연구’, 조계종 어장 인묵스님의 ‘범패 및 작법’, 국악인 김성녀 씨의 ‘창작찬불가 연구 및 실기’ 등 불교음악 · 의례 전문가들이 강단에 선다. (02)2260-3606 **신성민 기자**

생명나눔 홍보대상 첫 수상자 모십니다

(사)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이하 생명나눔)가 ‘제1회 생명나눔 홍보대상 수상 후보자’를 모집한다.

올해 신설된 ‘생명나눔 홍보대상’은 장기기증, 조혈모세포 기증 등 생명나눔 운동 홍보에 공헌한 개인과 단체를 독려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추천 대상은 △장기 · 인체조직 · 조혈모세포 등 기증 홍보와 실천을 통해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한 자 △생명나눔에 대한 취재 보도 방송을 통해 단체 홍보에 힘쓴 자 △생명나눔의 행사, 활동,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다.

모집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다. 수상자 발표는 12월 20일에 이뤄질 예정이다. 수상자는 홍보대상 1인, 홍보우수상 1인 등 총 2명이며, 대상에게는 200만원, 우수상에게는 100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된다. 시상식은 2020년 1월 생명나눔 신년기자간담회서 열린다. **신성민 기자**

원주 공공기관 불자연합회 창립

4월 16일 원주 국형사에서…
올해 첫 직장직능단체 발돋움


창립법회에 참여한 불자대중이 밝게 웃으며 불법홍포를 서원하고 있다.

원주 공공기관 불자연합회가 4월 16일 원주 국형사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하며 공식 출범했다. 지난 해 인천공항불자회, 수협불자회 창립에 이어 올해 첫 직장직능 신도단체로 첫 발을 내딘 ‘원주 공공기관 불자연합회’는 원주혁신도시 내 13개 공공기관 불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실천하며 행복한 직장생활을 영위하고자 구성했다. 원주공공기관불자연합회는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과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흥) 후원으로 지난해 부터 출범을 준비해 왔다.

창립법회에는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을 비롯해 포교원 신도국장 혜안 스님, 구룡사 주지 적천 스님, 성불원 주지 현각 스님, 상원사 주지 고공 스님, 국형사 주지 해공 스님 등 원주지역 사찰 스님들과 조계종 4교구신도회 김봉영 회장, 공불련 김상규 회장 등 공공기관 불자연합회 회원 70여 명 등 약 130여 명이 참석했다.

심무경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훌륭한 신행단체로 발전하여 불교와 사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혁신도시 첫 번째로 창립되는 불자연합회인 만큼, 자부심과 동시에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는 부담감도 있다. 많은 격려를 부탁드린다”며 각오와 막중한 책임감을 전했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법문을 통해 “많은 혁신도시 중에 강원 원주지역의 공공기관 불자들이 어려운 마음을 내었다는 것에 격려를 보낸다. 대상에 집착하지 말고 권력, 명예, 재물 어디에도 걸리지 않고 세상에 회향했으면 한다. 공공의 마음으로 국민을 위한 일을 해야하는 분들이니 지혜와 원력과 자비를 함께 가지고 불자로서의 서원을 세운다면 더 큰 공덕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날 법회는 국형사(주지 해공)의 지원으로 국형사 신도회, 무디타 합창단과 다도회 불자들이 함께해 법회 축하의 의미를 더했다. 법회는 발원문 낭독을 끝으로 마무리 됐다.

원주 공공기관 불자연합회는 지난해 창립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공동대표로 심무경 국립공원공단 감사와 안무열 대한적십자 감사실장을 선출하고 임원을 구성한 데 이어 지난 2월 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600여 원주지역 불자들을 대상으로 혜민 스님 초청 강연을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직능단체 신도조직화를 올해 중점 사업으로 두고 주요 지역별 공공기관 불자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기존 직장직능 단체들은 지역 내 사찰을 근거지로 활동을 할 수 있게 돕고, 지역별로 새롭게 불자회를 구성하는 등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단체와 기관의 불자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자비의전화 상담원 교육과정 실시

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원장 선업)은 10월 1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서울 개운사 내 상담개발원에서 자비의전화 상담원 교육과정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불교적 소양을 갖춘 불교상담 전문인력을 양성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기본적인 상담 이론과 기법을 배우는 이론과정과 자비의전화를 통해 직접 상담을 실습하는 실습과정으로 진행된다.

불교상담개발원장 선업 스님이 불교 상담의 기초를, 서울불교대학원대 외래강사 효록 스님이 발달의 이해를, 황선정 마음여행 심리상담연구소장이 상담의 원리와 기법을, 이범수 동국대 생사문화산업학과 주임교수가 자살예방상담 등을 주제로 강의한다. 또 전화상담 이론과 실습, 성의 이해와 상담, 집단상담 등을 주제로 실습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자비의전화는 2005년 사단법인화된 불교계 최초 상담전화이다. **노덕현 기자**

“비누로 손 한번 씻었는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된다.”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약을 먹은 것도,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BLOOD MATE® 단 한번 쓰고 20분도 채 안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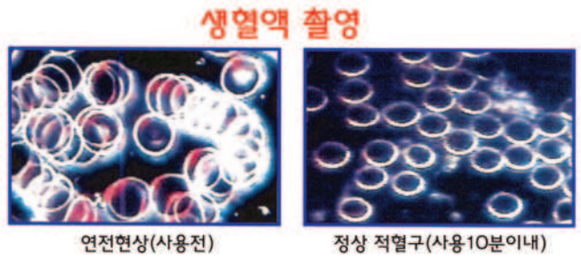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항균(대장균, 포도상구균) 99.9%가 아토피, 검버섯, 무좀, 사타구니 가려움증, 뽀루지, 비듬, 여드름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은 물론,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 노인냄새 제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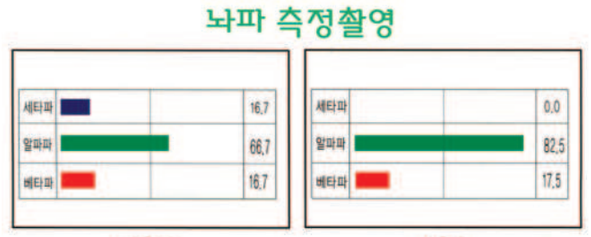
BLOOD MATE®
CS137(세슘) 방사능 제거용

효과 : 7년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피폭자(8개현 5,600만명)의 방사능 치유 목적에 의해 세계 최초로 개발된 일본 정부의 예산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제품.

생혈액 촬영


연전현상(사용전) 정상 적혈구(사용10분이내)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탈모예방 발모촉진


사용전 사용6개월 후

피가 맑아져서 혈액순환이 정상화되고 뇌파가 안정되고 정신이 맑아진다면 혈액순환 장애로 일어나는 모든 질환과 뇌파의 불안정에 의한 정신 이상을 사전에 예방할 것입니다.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계면활성제가 없는 천연원료로만 제조된 제품입니다.

BLOOD MATE®의 인체에 미치는 유익한 영향들은 어깨, 허리통증, 방사능제거(세슘) 등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 (약사법 등) 부득이 체험 (사용)에 의해 그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검버섯 제거 현상



㈜에이스 삼강 02)353-9692 010-2791-3696 |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 삼강


2018년 연등회 연희단 율동 모습

전국은 이미 봉축 장엄 1000만 연꽃 수놓는다

2019 부처님오신날 봉축일정

불기2563년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1000만 연등불이 전국을 수놓는다. 17일 열린 광화문 봉축점등식을 시작으로 연등행렬과 문화공연 등 다채로운 봉축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부처님오신날봉축위원회와 연등회보존위원회는 4월 17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올해 봉축 일정을 공개했다. '마음愛 자비를! 세상愛 평화를!' 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봉축행사는 국내외의 다양한 갈등을 자비정신으로 극복하자는 의미에서 마련됐다.

전국 각 지역에서는 이미 봉축 일정이 시작됐다. **전북부처님 오신날 봉축위원회**(공동위원장 성우)는 4월 12일 전주역 광장에서 봉축 기원탑 점등법회를 봉행했다.

마이산 탑밴드의 난타공연과 전북무형문화재 제18호 영산작법 보존회의 영산작법 시연으로 시작된 봉축기원탑 점등식에는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을 비롯한 본말사 스님들과 태고종 전북종무원 진성 스님을 비롯한 태고종 스님들, 전주지역 스님들이 참여했다. 또 송하진 전북지사, 김승수 전주시장, 김광수 국회의원, 정동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각급 기관장들과 불자 300여명이 동참했다.

고창 선운사는 4월 17일 고창 지역 봉축탑 점등법회를 고창군청 앞에서 개최했으며, **동국대**도 4월 17일 교내 팔정도 광장에서 500여 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봉축 점등식을 봉행했다. **조계종 종무원조합**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봉축등 점등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했으며 연등모연금을 자비나눔기금으로 전달했다.

이와 함께 교구본사와 주요사찰을 중심으로 지역 중심지에서 봉축행사가 펼쳐진다. 먼저 **화성 용주사**는 5월 4일 오산사암연합회와 함께 용주사에서 경기도 점등식을 연데 이어 12일 봉축법요식을 개최한다.

속초 신흥사의 경우 강원도 산불로 봉축관련 행사를 취소하고 산불사고 성금 모금 및 봉사지원에 나서 눈길을 끈다. 5월 12일 신흥사에서 열리는 봉축법요식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평창 월정사는 5월 4일 진부일원에서 진부연등법회를 열고 12일 봉축법요식을 개최한다. 월정사는

속초 지역 산불사고 모금행사

부산 지역 연등회 재현 눈길

연등행진과 월정사 탑돌이 등 불교문화체험 한마당도 개최한다.

하동 쌍계사는 5월 중으로 하동문화예술관에서 봉축법회와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부산 범어사는 5월 12일 봉축법요식과 함께 불교문화체험 부스도 함께 설치해 시민들의 발길을 이끈다.

양산 통도사는 5월 4일 제등행렬과 함께 삼성반월교 특설무대서 작은음악회를 연다. 5월 12일 봉축법요식 이후 전통낙화연회 등도 함께 개최한다.

장성 백양사는 5월 5일 장성읍사무소 광장에서 제등행진과 어울림마당을 열며 구례 화엄사는 5월 12일 봉축법요식과 함께 27일 만발공양을 개최한다.

해남 대흥사와 **고창 선운사**는 연등축제로 이번 봉축을 맞이하는게 특징이다. 5월 15일 해남군민광장에서 해남군 연등축제가 열리며 서선운사는 동백연문화예술제를 시작으로 5월 12일 경판이운식과 연등축제를 개최한다.

지역문화행사로는 5월 1일 부산 송상현광장에서 부산연등문화제와 4일 부산시민공원에서의 부산연등회가 열리며, 5월 3일부터 6일까지는 대구 상동교와 중동교 일원에서 달구벌 관등놀이가 펼쳐진다.

인천지역에서는 5월 4일 강화문예회관에서 강화연등축제와 4월 21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행복나눔인천연등제가 펼쳐진다.

울산지역에서는 태화강일대에서 장엄등 전시회 등 태화강연등축제가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다.

안양에서는 안양 평촌 중앙공원에서 5월 5일 부처님오신날 봉축점등식 및 연등축제가 진행되며, 진주에서는 5월 4일부터 6일까지 진주남강웰니스박람회와 연등축제, 가족사랑노래자랑 잔치 등이 함께 열린다.

연등회보존위원회 사무국장 선나 스님은 "지난해에는 우천 속에 연등회가 치러지는 등 각 지역에서 일기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많은 이들이 참여해 원할히 진행했다"며 "올해 보다 국민행사로 자리잡아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봉축행사, 문화축제의 장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지역 봉축행사 일정

※자세한 일정은 현불뉴스(www.hyunbulnews.com)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봉축위원회	행사명	일시	장소	연락처
부산	부산연등회 (연등회재현,봉축연합대회,연등행렬,연꽃문화제)	5월 4일	부산시민공원	051)867-0501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부산연등문화제 (개막점등식,전통등전시,전통문화공연, 무료체험,무차만발공양)	5월1일 ~5월12일	송상현광장	
대구	달구벌 점등식	4월 5일	국채보상기념공원	053)623-6388 대구불교총연합회
	연등회 및 연등행렬	4월 27일	두류야구장 및 대구일대	
	달구벌 관등놀이	5월3일~6일	상동교, 중동교, 희망교 등 신천일원	
인천 (강화)	강화연등축제 (축하공연, 부처님오신날봉축법요식, 제등행렬, 정리행사)	5월 4일	강화 문예회관	032)937-0125 강화불교사암연합회
인천	행복나눔인천연등축제 (연등행렬, 연등축제, 연등전시, 체험마당, 힐링음악회, 전통축제)	4월 21일	인천종합문화 예술회관 광장	032)888-9520 인천불교총연합회
광주 (광역시)	봉축탑 점등식	4월 24일	5.18 민주광장	062)385-1311 광주불교연합회
	어울림 한마당	5월 4일	5.18 민주광장	
	관등법회	5월 4일	아시아문화전당	
	제등행진	5월 4일	아시아문화전당-충장로-광주천-아시아문화전당	
	대동한마당(강강수월래)	5월 4일	아시아문화전당	
	전통등 전시회	4월24일-5월14일	광주공원 앞 광주천	
	전통등 전시회 작은음악회	4월 27일 5월 11일	광주공원 앞 광주천	
	전통문화 체험부스	5월 4일	아시아문화전당 앞	
대전	대전시민연등축제 (장엄등 및 제등행진)	4월 27일	서대전공원	042)285-3476 (사)대전광역시 불교총연합회
울산	2019 태화강 연등축제 봉행위원회 출범식	3월 26일	울산 남구 문화뷔페	052)266-3318~9 태화강연등축제 조직위원회
	태화강연등축제 (부처님이운행렬재연, 발우공양체험, 장엄등전시회, 이웃종교합창제, 제등행렬)	4월26일~28일	태화강일대	
고양	제17회 고양연등문화축제	5월 1일	화정중앙공원	031)969-0108 고양시 불교사암연합회
광주 (경기)	점등식(점등,정근,축원)	4월 16일	광주시청앞	031)764-0080 광주 불교사암연합회
	연등축제(부스별체험,공연,법요식,제등행렬)	4월 27일	광주시민운동장	
	경찰서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관불,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축하공연)	5월 2일	경찰서 강당	
	170연대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관불,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공양)	5월 4일	광주시 공설 운동장	
안양	부처님오신날 봉축점등식 및 연등축제 (체험행사, 식전공연, 봉축점등식, 제등행렬)	5월 5일	안양 평촌 중앙공원	031)471-5978 안양.의왕.군포 사암연합회
용인	장엄탑점등식	4월 12일	앞 음악당	031)321-6900 용인불교전통문화보존회
	봉축법요식 및 용인시민연등축제	5월 6일	용인실내체육관 및 처인구 시내	
평택	봉축법요식	4월 21일	안중 서부문예회관	031)682-3169 평택불교 사암연합회
	연등축제			
진주	진주남강연등축제	5월 4일	진주문화예술회관앞 특설무대	055)745-9944 진주불교 사암연합회
	진주남강웰니스박람회	5월4일~6일		
	2019가족사랑노래자랑	5월5일		
	웰니스 장기자랑	5월6일		
	행복염원방생법회	5월5일		
진해	진해 봉축 한마당 축제	5월 4일	진해구 중원로타리	055)551-5282 진해불교사암연합회
창원	창원시민과 함께하는 봉축음악회	5월 10일	창원광장	055)-244-6464 창원시 불교연합회
	창원시 연등회 연합 봉축법요식			
	창원시민과 함께하는 봉축음악회		창원시청광장(로터리)	
통영	봉축연합법회 (헌공의식과작법,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제등행진)	5월 7일	한산대첩광장	055)645-3060
함안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회	5월 4일	함안문화원	010-3867-8419 함안불교 사암연합회
함양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5월 2일	함양군청 인근 학사루	055)963-2471 함양불교 사암연합회
구미	봉축탑 점등식	4월 12일	원평 분수공원	054)481-9338 구미불교 사암연합회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법회, 연등행진)	4월 21일	금오천 공영주차장	
안동	봉축탑 점등식	4월 13일	웅부공원	054)853-4181 안동불교 봉축위원회
의성	봉축탑 점등식	4월 26일	의성읍 로터리	010-3811-3756 의성불교연합회
	난치병어린이 돕기	4월 26일	관음사	
	불기2563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회	5월 5일	의성문화회관	
순천	봉축탑설치	4월20일 ~5월중순	도립의료원 로타리	061)744-4902 순천불교 사암연합회
	봉축법회 (전통문화체험행사, 금강경독송회, 108배체험, 전통등전시, 제등행렬, 대동한마당, 교통안전기원염주배포)	5월 4일	조례호수공원	
영암	오층탑 점등식	4월 25일	영암읍 터미널	061)473-5122 영암군 봉축위원회
	연등문화축제	5월 10일	영암군 실내 체육관	
익산	익산시민과 함께하는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	5월5일	익산 중앙체육공원	063)857-6533 익산 불교사암연합회
전주	봉축 기원등 점등식	4월 12일	전주역 광장	063)277-3497 전북부처님오신날
	전북어린이 큰잔치	4월 21일	덕진공원	
	6탄악창 연등제	4월 26일	호국장영사 6탄악창	
	연합 합창제	4월 28일	수현사	
	미륵사지석탑 제막식	4월 30일	익산 미륵사지	
	행복바라미 문화축전	5월 3일	전북도청 야외공연장	
	연등 문화축제	5월 3일	전북도청 야외공연장	
	위문법회	4월 13일	전북지방경찰청 전의경	
정읍	봉축기원탑 점등식	4월 12일	정읍시 CGU 로타리	063-538-8741 정읍 불교사암연합회
공주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	5월 4일	금강둔치	010-8510-4564 공주시사암연합회
	제등행렬			



Korea's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No. 122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
Yeon Deung Hoe 燃燈會

연등회
YEON DEUNG HOE
燃燈會

Lotus Lantern Festival 2019 5. 3 Fri ~ 5. 5 Sun

연등행렬
5월 4일(토)
오후 7:00 ~ 9:30
종로거리(동대문→조계사)

Lantern Parade
May 4 (Sat)
7:00 ~ 9:30pm
Along Jongno Street
(from Dongdaemun gate to Jogye-sa temple)

전통문화마당
5월 5일(일)
낮 12:00 ~ 오후 7:00
조계사 앞길

Traditional Cultural Events
May 5 (Sun)
Noon ~ 7:00pm
Street in front of Jogye-sa Temple

하나 된 和音이 밝힌 봉축등

부산 영도구불교연합 부처님오신날 합창제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마음愛 자비를! 세상愛 평화를!"

무대에 오른 합창단과 청중이 함께 목소리를 높여 부처님오신날 봉축표어를 외쳤다. 세상에 평화와 자비를 밝히는 마음으로 합창단은 등을 밝혔다. 부처님의 탄생을 찬탄하는 무대가 펼쳐졌다. 부처님이 이 땅에서 전한 진리를 기쁨으로 노래하고 춤을 추며 하나 되는 잔치가 열렸다.

부산 영도구불교연합회(회장 호법)는 4월 13일 '불기2563 부처님오신날 영도구불교합창제'를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했다. 영도구불교연합회는 부산 16개 구·군 가운데 처음으로 봉축을 합창으로 축하하고 알린 곳으로, 무엇보다 수준 높은 곡과 연주 실력을 보여 이목을 끌었다.

합창제 막이 오르자 해금이 연주됐고 소년이 치는 목탁 소리에 맞춰 3명의 어린이들이 맑은 목소리로 삼귀의를 노래했다. 합창제에 어울리는 오프닝 무대로 신선함을 선물하며 시작한 합창제는 곧이어 연등을 든 미룡사 바라밀합창단이 무대에 등장해 '얼음위에 반가사유'와 '묘법연화경'을 차례로 부르며 청중을 아름다운 찬불가의 세계로 초대했다. 대원사 대원선재합창단과 대원해련합창단은 '만 생령을 위해 오심'이란 곡으로 부처님 오심을 축하했고 '지혜와 자비로 부처님 같이', '목탁새'를 불러 박수를 받았다. 특히 목탁새는 풍경과 목탁 소리를 활용해 곡을 꾸며 불교문화의 절묘한 어울림을 화음으로 보여줘 새로운 찬불가 세계를 선사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한마음선원 부산선법합창단은 '마음이 항상 봄이라야'와 '모난 것을 둥글게 쓸 줄 알아야 자유인이 된다'라는 곡을 선보였다. 한마음선원 부산선법합창단은 대행선사의 가르침을 선법가에 담아 한마음의 도리를 널리 알리고 있다.

부산 16개 구·군 중 최초
수준 높은 찬불가에 호평
특색 있는 무대 연출 이목
"진리의 노래 끊이지 않길"

이번 합창제는 자칫 딱딱할 수 있는 인사말 및 축사 순서를 축소하고 음악에 집중할 수 있는 연출로 집중도를 높였으며, 2부에서는 미룡사 바라밀합창단이 댄스와 랩을 접목해 파격적인 무대로 눈길을 끌었다. 한마음선원 부산선법합창단 소속 거사합창단은 '마징가 Z'를 웅장하면서도 재치 있게 불러 박수를 받았으며, 어머니 합창단은 '무지개 저 너머로'와 '오즈의 마법사'를 감미로운 목소리로 담아 선사했다.


영도구불교연합회는 4월 13일 '불기2563 부처님오신날 영도구불교합창제'를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했다.

게스트 보체(VOCE)의 격조 높은 남성앙상블 공연에 이어 회향의 무대에서는 출연자 모두가 나와 곡 '부처님오신날'을 부르며 마무리했다.

합창제는 한마음선원 부산선법합창단, 대원사 대원선재합창단, 미룡사 바라밀합창단 등 3팀이 참여했으나,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는 무대를 위해 영도에 있는 사찰과 불자들이 모두 함께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 뜻 깊은 무대로 장식됐다. 합창제에는 영도구불교연합회 법주인 태종사 회주 도성 스님, 미룡사 회주 정각 스님, 회장 호법 스님, 부회장 혜도 스님, 담화림 스님, 원영정사를 비롯해 부산 각 지역에서 찾아온 스님들과 대중이 객석을 가득 채웠다.

회장 호법 스님은 "오늘 이 자리에 울려 퍼지는 세 합창단의 화음을 통해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전해준 진리를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차경 영도구불교합창단장은 "부처님오신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며 "오늘 무대로 많은 불자님들에게 희망과 설렘을 안겨드리고 모두가 부처님의 제자로 다시 삶을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회향사에서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은 "합창제 막은 내리더라도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마음 안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진리의 노래가 끊이지 않고 내내 울려 퍼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영도구불교합창단은 합창제에서 영도구청에 자비나눔 기금 200만원 및 영도구불교연합회에 발전기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나라 번영과 국민 행복 위한 삼보일배

부산불교교육대 300여 명 광복로서 '경제살리기 발원'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호국불교 정신을 계승하며 '부산경제 살리기'를 위한 삼보일배가 진행됐다.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범혜)은 4월 13일 부산 중구 광복로 일대에서 '경제살리기 구국삼보일배 법회'를 봉행했다.

삼보일배는 학장 범혜 스님과 권혁란 총동창회장이 선두에서 석가모니불을 염송하며 세 걸음 나아간 후 몸을 숙여 절을 했고, 부산불교교육대학 재학생 및 시민 300여 명도 뒤를 따르며 함께 기도하고 절을 올렸다. 오직 나라의 번영과 경제 발전을 통해 시민들이 행복하길 기원하는 행사였다.


부산불교교육대학은 4월 13일 부산 중구 광복로 일대에서 '경제살리기 구국삼보일배 법회'를 봉행했다.

학장 범혜 스님은 "호국을 위한 불교의 역할은 역사 속에서 확인된다"며 "오직 중생의 행복을 생각하는 보살도가 호국의 기본정신이 되어 오늘 이 자리에 서있게 만들었다. 침체된 경제 속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없도록 모두 다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자"고 당부했다.

권혁란 총동창회장은 "호국불교 정신을 마음에 담고 침체된 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해 모인 여러분이 자랑스럽다"며 "오늘 간절히 기도하는 염원이 모두의 행복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제살리기 구국 삼보일배'는 개회법요식에 이어 삼보일배 거리행진, 예술문화행사 등으로 마무리됐다.

부산불교교육대학은 1982년 개교해 38년 동안 1만 6000여명이 졸업, 1200여명의 포교사와 100여명의 스님을 배출했다. 부산불교교육대학은 살기좋은 부산 만들기 캠페인 일환으로 경제살기기 구국 삼보일배를 개최했으며 매년 자살과 교통사고 예방거리 캠페인, 자비연탄나눔 등 도 진행하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전주불교 "전주 특례시 지정 기원"

전주불교연합회, 4월 29일 기원법회 · 사찰음식 만찬

전주불교연합회(공동대표 덕산, 금선암 주지)가 전주지역의 최대 현안인 전주특례시 지정을 위해 오는 4월 29일 전주 웨딩팰리스에서 '전주특례시 지정 기원 및 사찰음식 만찬' 법회를 개최한다.

특히 이번 법회에는 지역사회 발전 공로자들을 초청해 사찰음식 만찬을 제공하면서 사찰음식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감사의 마음도 전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주시의 대표 아동정책인 '밥 굶는 아이 없는 엄마의 밥상' 사업에 성금을 전달, 부처님오신날 표어인 '마음愛 자비를! 세상愛 평화를!'을 실천할 계획이다.

현재 전주시를 특례시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해 전주시가 지역발전을 이끌어 낙후된 전북을 발전시키고, 국가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하길 기대하고 있다.

전주불교연합회 공동대표 덕산 스님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지역사회 현안인 전주 특례시 지정을 기원한다. 지역사회에서 애쓰는 분들에게 사찰음식 만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고 준비했다"면서 "전주불교연합회는 나눔과 소통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자비를 실천해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널리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불교연합회는 종단, 계파, 승속을 초월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이라는 슬로건으로 지역불교 중흥과 사회적 역할을 위해 2017년 4월 창립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열린불교아카데미, 새 도량 문 열어

4월 14일 부산 서면에 가야법보선원 개원

불교경전 전문 강설 열린불교아카데미가 새로운 법의 도량을 열었다.

열린불교아카데미(대표 김윤희)는 4월 14일 '가야법보선원 점안 및 개원법회'를 봉행했다.〈사진〉 가야법보선원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부다가야의 '가야'와 보배인 '불법'을 상징한다. 3년 전 지도법사인 원순 스님과의 인연으로 매주 강설법회를 이어오다 부산 중심가인 서면에 새롭게 법당을 조성, 법 도량으로 새로운 도약을 맞았다.



개원법회에서 원순 스님은 "늘 정진하고 수행하는 공간으로 회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도법사 원순 스님은 해인사 백련암에서 성철 스님을 은사로 출가, 현재 송광사 인월암에 주석하고 있다. 조계종 교재편찬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조계종 기본선원 교선사(敎禪師)로서 어록을 강의하고 있다.

열린불교아카데미는 경전과 어록을 공부하는 모임으로 2015년 4월, 원순 스님의 〈원각경〉 강의를 시작으로 출발했다. 이후 〈대승기신론〉〈선요〉〈신심명〉〈증도가〉 등 강의 법석이 이어지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어르신 쾌유발원 음악회 열려

사하구불교聯, 한우리요양병원 방문해 10일 개최

사하구불교연합회(회장 법인)는 4월 10일 부산 사하구 한우리요양병원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음악회를 개최했다. 사하구불교연합회 회원 스님들은 간식 300인분을 마련해 병원 환자 및 가족들에게 선물하고 쾌유를 기원했다. 아울러 흥겨운 음악회를 선물하며 즐거운 잔치 한마당을 열었다. 음악회에는 사하구불교연합회장 법인 스님, 총무 송우 스님 등 연합회 소속 스님과 어르신 100여 명이 동참했다.

회장 법인 스님은 "오늘 어르신들이 이 자리에 많지 않다"며 "그건 많은 분들이 쾌차해 퇴원 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한편으로 정말 기쁘며 지금 계신 어르신들도 모두 쾌유하시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30분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 전수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 (비법 전수)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 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제6차크라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과학연구소(소장:처명)

한국불교사를 중심으로 한 불교의 역사

우리나라 불교는 통일신라 때에 동아시아 정상에 버금가는 수준에 도달한 이래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특히 조선시대 억불정책과 일제 강점기의 사찰령, 해방 이후의 정치적 격변 등은 한국불교의 현재를 규정짓는 중대한 계기로 작용하였다.

많은 불자들이 한국불교의 역사적 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종단이나 불교단체를 향해서 무분별하고 극단적인 비난을 서슴지 않으며, 또 한편에서는 아예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 결과 스님들 사이에서는 물론이요 신도들 간에도 불신이 확산되면서, 불자들 간의 화합은 물론, 신행의 동력조차 상실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강의에서는 인도불교사와 중국불교사를 포함해서, 삼국시대부터 근현대까지 한국불교의 역사적 배경을 개략적으로나마 이해하여 향후 불자들의 신행방향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하고자 한다.

강의소개

일시 2019년 5월 1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30 ~ 9:30 (약 120분)
기간 3개월 수강료 18만원
교재 불교사의 이해 (조계종출판사 / 9,000원)
[교재는 별도 구매입니다.]
장소 센텀 일심사
부산 해운대구 재송1로 35 창광빌딩 3층
교통 지하철 : 동해선 재송역 앞
버스 : 재송역 혹은 해운대경찰서 하차

문의전화 | 051-781-0543



혜룡스님
센텀 일심사 |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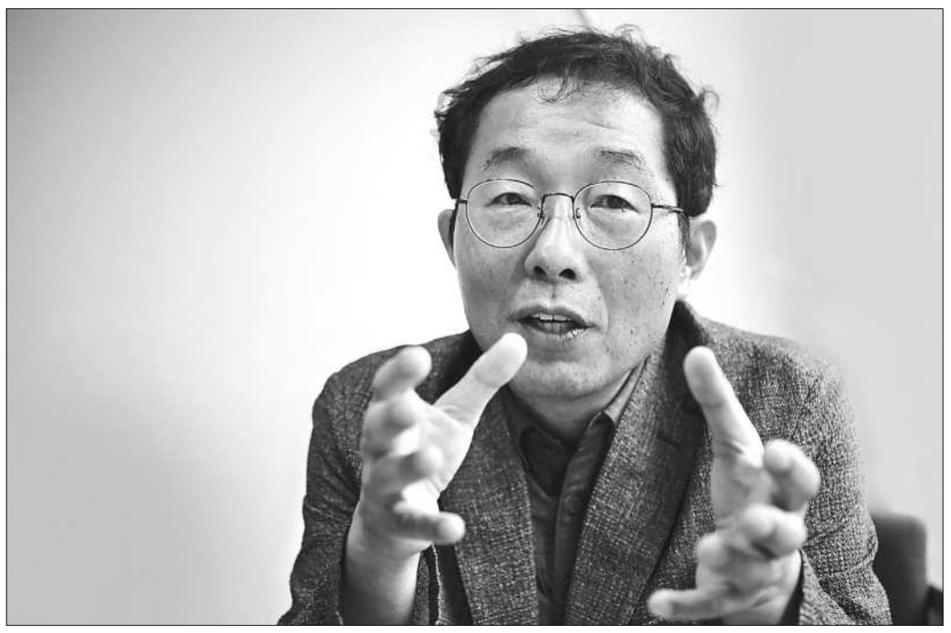
동국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석박사 과정에서 다년간 종교학과 한국근대불교를 연구한 경력으로, 수강생들에게 보다 차원 높은 한국불교사 관련 지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천태종 삼광사 특강

“21세기 이끌 시대정신 불교에 있다”

주제 :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정신, 불교

장상목 동아대 교수



장상목 교수는… 서울대 공과대학 화학공학과를 졸업했다. 한국과학기술원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도쿄공업대학 전자화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부산교수불자연합회 회장이며 동아대 공과대학 화학공학과 교수이다. 불교 관련 저서로는 〈불교보감〉, 〈성불의 길잡이〉, 〈금강경 강론〉, 〈불도도감〉, 〈21세기 시대정신 불교〉, 〈한국지성과 불교-4차 산업혁명과 시대정신, 불교〉와 논문 〈동산대종사 정화사상의 현대적 재조명, 불교관점에서 정보 사회 바로 보기, 한국불교문화의 세계화 -한계와 대응〉을 발표했다.

천태종 삼광사(주지 세운)는 3월 17일 장상목 교수를 초청, 특강을 진행했다. 장 교수는 “4차 산업시대를 이끌 사상이 부재한 가운데 불교의 역할은 중요하다”며 “사유의 회복을 위해 주체적으로 고민하고 정보를 사용하며 21세기에 어울리는 시대정신을 갖춘 주인공으로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리=하성미 기자

부산교수불자연합회 회장직을 역임하며 대학생 불자들을 자주 만납니다. 학생들을 만날 때마다 21세기에 맞는 불교 정신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고 또한 제시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 사상과 종교는 도태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학생들에게 시대정신에 뒤떨어진 종교를 강요하는 것은 교육적 측면에서도 온당하지 못합니다.

21세기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정신적 측면을 책임질 사상이 부재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21세기 4차 산업혁명과 시대정신을 고찰하는 것은 현실적인 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불교는 21세기 4차 산업시대에 어떤 길잡이가 되어줄까요? 4차 산업시대에 불교의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윈도우(window)와 법문(法門)의 문(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빌 게이츠가 컴퓨터 운영체계를 개발해 ‘윈도우(window)’라고 명명한 것에 있습니다. ‘윈도우’로 상징되는 네트워크 중심의 사회란, 울타리가 제거된 문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글로벌적 상호소통이 가능하고 생명력을 발휘하는 사회입니다. ‘윈도우’에서 스마트폰으로 발전하면서 시공간을 초월한 글로벌적 상호소통이 더욱 발달되고 신속하게 되었습니다. “윈도우”를 열고 세상에 나가면 교류를 하게 되고 세상을 소유하게도 됩니다. 이젠 문을 얼마나 자주 여느냐가 생존의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 21세기에는 신속하게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 도구들이 생겨났고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인터넷과 SNS를 통해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능동적으로 혹은 수동적으로 정보가 확산되는 것은 정보의 다양성, 편리성, 선택성, 전문성, 그리고 확실성에 기인한 효율적 측면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와는 전혀 다른 바이러스나 악성루머, 잘못된 정보나 소문이 매우 빠르게 확산돼 경제, 정치, 안보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위기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의 확산으로 빚어지는 각종 부작용을 정보전염병(infodemics)이라고 합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들의 삶은 자기 상실과 주체성 상실, 자의식 상실이란 역설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정보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기성세대보다 심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이러한 측면에서 불교의 가능성과 역할이 중차대합니다. 법인 스님은 “검색의 시대, 사유의 회복”을 불교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불교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정신으로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불교에서 산문(山門), 일주문(一柱門), 불이문(不二門), 해탈문(解脫門)이라하고 법문(法門)이라 합니다. 죽은 글의 법문(法文)이 아니라 살아 있는 법문(法門)의 세계로 들어가서 세상을 느끼고 깨달아가라는 의미입니다. 문(門)을 열고 열린 문의 세상에 들어가 그 세상의 주체적인 주인공이 되라는 의미입니다.

정신적 측면 책임질 사상 부재
불교 평등 · 개방 · 자비 · 하심
4차 산업혁명 시대정신 부합
‘주체적 삶’ 21세기 시대정신 핵심

주체적인 주인공이 되려면 정보가 있는 가상의 세계로 들어가야 하며 어떤 자세로 다루고 공략해야 하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울타리가 제거된 문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시공간을 초월한 글로벌적 상호소통입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정신을 장유무서(長幼無序)라고 정의했습니다.

장유무서(長幼無序)의 시대에서, 도브티니 교수가 주장한 이스라엘 창조경제의 원동력이라는 ‘후츠파 정신’이 연상되었습니다. 모든 의견을 반대해보는 ‘NO 교육’인 후츠파 정신은 모든 권위를 부정하고, 진리를 밝히기 위해 절대 권위를 부정하고, 현실에 바탕을 두고 철저히 의심하고, 연관관계를 찾고 실천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후츠파 정신의 핵심을 숙고해보면 자연스럽게 불교가 떠오릅니다.

석가세존께서 사람의 수보다 신의 수가 많은 신의 나라, 인도에서 “일체중생 개유불성(一切衆生 悉有佛性),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 자타일시 성불도(自他一時 成佛道), 개공중생 성불도(皆共衆生 成佛道)”를 외치며 신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를 가르치셨고, 공고하였던 신분제도를 타파해 모든 생명이 동체 평등함을 역설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재가거사를 중심으로 한 〈유마경〉과 승만부인을 중심으로 한 〈승만경〉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부처님께서는 유마거사가 부처님 제자에게 병문안 갔을 때 청법하게 하시며 진리에 승속의 구분이 없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관중생품에 사리불과 천녀의 대화에서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어 남녀의 구분이 없음도 여실히 나타내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이조 혜가는 팔이 없는 불구의 몸으로 법통을 이어받고, 삼조 승찬은 천형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로서 법통을 이어받고, 육조 혜능은 일자무식꾼으로 정식 승려가 아니면서 법통을 이어받습니다. 일자무식의 육조 혜능대사가 정식으로 출가하지도 않고 여덟 달 동안 떡 방앗간에서 방아만 찧다가 무수히 많은 선배들을 제치고 5조 홍인대사의 인가를 받아 법통을 이어받습니다.

이와 같이, 진리를 논하는 장소에서는 순서가 있는 것도 아니며 승속의 구분이 있는 것도 아니라 모든 사부대중에게 열려있는 개방성이 있습니다. 지구상에 이런 가르침과 종교가 있었던가요? 4차 산업혁명 시대정신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석가세존은 절대권위인 신의 울타리, 신분의 울타리, 남녀의 울타리, 배움의 울타리, 질병의 울타리, 심지어 서열의 울타리마저 무너트리고 절대적 동체 평등을 주창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현실세계에서 완벽한 장유무서의 실현을 보게 됐습니다.

세계의 문(門)을 열고 들어가는 자세

석가세존은 서로를 포용하고 이해하면서 상생의 길로 나아가는 길을 몸소 가르치고 열반하셨습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옛적 가리왕에게 몸을 갈기갈기 찢길 때도 아상이 없었고, 인상도 없었으며, 중생상도, 수자상도 없었다. 왜냐하면 내가 옛적 팔다리를 마디마디 잘리는 형벌을 당할 때 만약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였다면 성을 내고 원한을 품었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세존께서 자신을 가리켜 “사생자부, 인천의 스승, 삼계 대도사”라고 하였을 때, 이러한 상생의 세계인 불국토를 구현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파리, 모기를 포함한 모든 중생과 풀 한 포기에서도 우주적 생명력을 찾으려는 불교적 자비정신만이 이 세계의 갈등과 투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강경〉에서 상호 문을 열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상대를 인정하고 나를 낮추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금강경〉 첫 부분에 세존께서는 공양하실 때가 되자 가사를 입고, 발우를 손에 들고 사위국의 큰 성에 들어가 공양을 구걸했습니다. 차별 없이 한 집씩 차례로 걸식을 하고 다시 본처로 돌아왔습니다.

이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신 걸까요?

견성성불하기 위해 ‘육바라밀을 닦고, 팔정도를 행해야한다’ 합니다. 사상을 여의어야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수행의 근간이 되는 것은 바로 자기를 버리는 하심(下心)에 있습니다. 하심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나(我)’라는 자만심과 아상을 여읠 수 없으며 육바라밀과 팔정도를 닦을 수도 없습니다. 걸식을 하는 행위가 자기를 낮추는 하심수행입니다. 불교의 하심수행은 4차 산업시대 정보를 마주하고 소통하는 기본 정신과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문이 열린 세상, 어떻게 주인공이 될 것인가?

정보가 독점되고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비밀스럽게 전수됐던 시대에는 뛰어난 정보들이 사장되었습니다. 21세기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시공간을 초월해 모든 정보가 개방되고 지식독점체제의 해체로 평등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문이 열리면서 상호소통이 가능해야 발전이 가능한 시대가 온 것입니다.

21세기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정보로 이루어진 사이버 영토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입니다. 사이버영토를 확보한 기업과 개인이 21세기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세계 최고 기업들이 모두 IT 관련 기업입니다.

대표적인 네이버, 다음, 야후, 그리고 구글을 살펴봅시다.

이들 사이트의 바탕 화면을 비교하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야후의 바탕 화면은 주어진 정보로 가득 차 있지만 구글에는 정보 제시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입력하면 비로소 적절한 정보들을 제시해 줍니다.

네이버, 다음, 야후는 그들이 제시한 정보를 수동적으로 독자들이 받는다면, 구글은 스스로 찾는 정보를 제공받는 서비스입니다. 수동적인 정보보다 스스로 찾은 정보에 충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IT 최고 강자로 군림하게 된 것입니다.

주체적으로 고민하고 사유하는 힘에 따라 정보를 사용하고 21세기 바른 시대정신을 갖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65세이상 승려 연금 지급 종단

불교조계종 2019년 종단 200억 시주 마감



현)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혜인
현)남경중의약대학총장
현)대통령 국민 통합위원회 상임고문

불교조계종 사부대중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 불교조계종 시주금 예산의 200억이 마감되었습니다. 이에 2019년도 올해 불교조계종은 기업에서는 더 이상 시주를 받지 않습니다. 종단을 애종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2020년도에도 아낌없는 시주를 부탁드립니다.

불교조계종총무원 총무원장 혜인 · 전국 주지 스님 삼배 합장

총무원 :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 (돈암동 83-2)
총무국 : 02)511-5056~7 / 팩스 : 02) 511-2028
종단사업부 : 02)549-1918
총무원장실 : 02) 511- 1080
불교조계종신문 : 02) 511-2026~7
일간동국신문사 : 02) 511-1080
홈페이지 : 불교조계종 .kr(www.jogyebuddhism.or.kr)
불교조계종신문 : www.buddhijogyesm.co.kr
불교조계종학림 : www.njutcm.co.kr
남경중의약대학 : www.njutcm.co.kr
이메일주소 : samhwade@naver.com
samhwade@hanmail.net

왕실과 산성 인연 담은 비찰



김경집의
사찰 속 숨은 이야기

⑧ 도선사(道詵寺)



북한산 도선사의 전경. 정의공주 원찰에서 시작해 현대의 기도 · 포교사찰로 거듭났다.

세종딸 정의공주 원찰 도성암

우이동에서 북한산 백운대로 오르다보면 도선사가 나온다. 신라 말 고승 도선국사가 개산조이다. 처음부터 도선사였는지 모르겠지만 조선조 기록에 의하면 도선사의 명칭은 도성암(道成庵)이었다.

도선사 아래 동네 지명은 우이동(牛耳洞)이다. 북한산과 도봉산이 이어지면서 고개를 이루는 곳이 우이령(牛耳嶺)이다. 이름에 걸맞게 그곳엔 소귀를 닮은 우이암(牛耳岩)이 있다. 조선조에서도 그렇게 불렀으니 동네 이름의 연원이 오래된 편이다.

우이동에서 동쪽으로 방학동으로 가다보면 연산군 묘를 지나 세종의 둘째 딸 정의공주(貞懿公主)와 남편 죽산 안씨 양효공 안맹담(安孟聃)의 묘가 나온다.

세종은 어릴 때부터 영민했던 공주를 아꼈다. 정의공주는 세종 10년(1428) 2월 안맹담과 결혼하였다. 그런데 그가 너무나 술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자 세종은 꾀를 내었다. 그와 술 마시는 지인들이 누구인지 물었다. 이 일로 지인들의 출입이 적어지면서 자연히 술자리도 줄었다.

이 무렵 세종은 훈민정음 창제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런데 변음과 토를 붙이는 문제가 난제였다. 세종은 여러 자식들에게 그것을 해결하도록 하였다. 모두 어려워서 힘들어 할 때 총명했던 공주가 그 문제를 해결하였다. 세종은 마침내 15년(1433) 한글 창제를 완성할 수 있었다.

세종은 한글 창제에 공헌한 공주에게 많은 토지와 노비 수백 명을 상으로 하사하였다. 왕실과 혼인하여 가문의 명예가 높아졌는데 아내의 지혜로 큰 재물을 얻은 안맹담은 죽산 안씨 대동보에 이를 기록하여 후손에 남겼다. 성종 8년(1477) 2월 정의공주가 죽자 도성암을 원찰로 삼았다.

북한산성과 도성암

정의공주의 원찰이었던 도성암도 배불의 어려움을 피해갈 수 없었다. 역사 속에 도성암이 등장하는 것은 선조 29년(15%) 3월이다. 임진왜란이 잠시 소강상태에 빠지면서 병조판서 이덕형이 중흥동 북한산성을 둘러보고 주위의 형세를 그려 올렸다.

산성을 묘사하는 글에 도성암이 등장한다. 동문으로 통하여 왕래하는 길로 성 밖에 수도암, 도성암 등의 암자가 있고 그 밑은 곧 우이동이라 하였다. 이어 도성암 위는 사면의 산세가 높고 험절하다. 10여 인이 지켜도 적 수 만 명을 물리칠 수 있다. 중첩된 산봉우리가 원근을 가리고 있어 적이 성을 에워싸고자 함락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만약 산허리 요해처에 돈대(墩臺)를 설치하여 망보게 하고 그 속에 곡식을 비축하여 굳건히 지키면 천험(天險) 만전의 형세가 될 것으로 묘사하였다.

선조를 이어 왕위에 오른 광해군 때에도 도성암은 존재하였다. 광해군 7년(1615) 2월 유생들이 무계서원을 건립하고자 할 때 도성 근처에 서원 건립이 전례가 없음을 들어 반대하였다. 그러자 지성균관사 이이첨이 정토사(淨土寺), 향림사(香林寺), 승가사(僧伽寺), 도성암(道成菴) 등의 사찰은 도성 밖 10리 이내에 연접하였으나 이에 항거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유현(儒賢)의 향화를 받드는 곳에 대해 그 거리의 원근을 따져 저지한다면 이는 매우 불가한 일이라 하였다.

이 무렵까지 유지되었던 도성암이 숙종 6년(1680) 7월에는 폐사된 상황으로 나타난다. 한성부에서 도성암 옛터를 한성부에 예속시켜 벌목을 금지하도록 건의하자 이를 허락하고 있는 것이다. 앞뒤의 내용을 유추할 때 임진왜란 이후 사세가 어려워지면서 폐사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도성암은 정의공주의 원찰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산 험준한 곳에 있었던 탓에 폐사되었지만 산성 덕분에 중흥되었다. 임진왜란과 두 번의 호란을 겪은 조선은 북한산성을 정비하였다.

숙종 37년(1711) 서울 백성들과 삼군문(三軍門)의 군사를 동원하여 산성을 축성하였다. 공사기간이 6개월이었다 하니 인부들의 노고를 짐작할 수 있다. 축성이 끝나자 숙종 41년(1715) 산성 내 중흥사가 136칸의 큰 절로 중수되면서 팔도도총섭 겸 승대장 휘하의 승영이 설치되었다. 그리고 이 무렵 인근 사찰들이 산성관리를 위해 중흥되었다. 도성암 역시 숙종 39년(1713) 7월 중창되면서 다시 세상에 나왔다. 이때 중창되면서 사명을 도선사라 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세종 둘째딸 정의공주 원찰
육영수 여사와도 인연깊어
청담 스님 수행 · 전법 원력
도선사의 새로운 불사 성취

현대 육영수와 청담 스님

도선사와 인연이 깊은 사람은 이야기 할 때 육영수를 빼놓을 수 없다. 법명이 대덕화(大德華)였다. 그녀가 도선사와 인연이 맺은 것은 5.16이후 박정희가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으로 있을 때였다. 청담의 호국참회불교에 감화를 받은 것이다.

호국참회불교는 신라불교의 통일염원, 고려불교의 호국염원, 조선불교의 구국염원, 그리고 현대불교의 평화염원에 입각하여 미신불교가 아닌 수행불교 이론불교가 아닌 실천불교 관념불교가 아닌 생활불교로 불교재흥을 도모한 사상이다.

당시 남북의 팽팽한 대치 속에 내적으로 부패한 정부, 혼란한 사회질서, 극심한 가난에 직면한 지도자로서 새로운 시대적 비전을 제시한 청담의 사상은 좋은 가르침이 될 수 있었다.

육영수는 국가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도선사를 찾아 3.7기도를 하였다. 이런 신심은 1974년 8.15기념식장에서 유명을 달리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불심으로 국가의 안녕을 기원한 불자였다. 우이동에서 도선사 입구까지 험준한 산비탈임에도 불구하고 말끔하게 닦여져 있는 것도 불심 깊은 그녀의 배려였다.

도선사의 사세는 현대에 와서 크게 번창하였다. 한국 현대불교에 큰 족적을 남긴 청담이 이곳에 머물면서 조계종 설립에 크게 기여하였기 때문이다.

청담의 생애(1902-1971)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삶은 일제강점기와 격변의 현대사회를 살았다. 그 생애를 크게 나누어보면 일제강점기에서 보낸 생애 전반부와 광복 이후 현대사회를 보낸 후반부로 구분할 수 있다.

일제하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청담은 그 현실 속에서 출가하여 수행자의 길을 걸었다. 일제의 지배로 한국불교의 전통이 상실되는 것을 온 몸으로 체험하면서 그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여러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렇지만 일제의 방해와 기득권을 장악한 집단의 방해로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없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항시 한국불교의 중흥을 위한 염원이 담고 있었다.

1945년 광복 이후 청담은 한국불교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고심하였다. 그는 일제의 강점에 의해 변질된 한국불교의 전통을 회복하려 하였다. 그리고 종단의 지도자로 새로운 산업사회 속으로 진입한 한국불교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야 하고, 어떤 역할을 하여야 하는지 고민하였다.

그 가운데 승가교육은 종단의 장래를 위해 심혈을 기울인 불사였다. 불교계 인재 육성을 위해 불교전문학교를 세우는 일을 서원으로 세울 정도로 열성적이었다. 도제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승가대학의 설치였다. 그것은 현행 강원과 선원의 제도와 동떨어진 제도가 아니라 현재의 교육체제를 개조하여 성불할 수 있는 수행자와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스승을 배출할 수 있는 승가학원으로의 개조였다. 그가 도제교육을 현대화하려는 것은 젊은 대학 출신의 엘리트를 승려로 만들어 그들이 종교인으로서 지도이념에 충실하고 철저한 수행관을 확립하기 위해서였다.

청담은 한국불교 발전의 초석으로 불경 번역을 꼽았다. 그런 생각은 일제하에서 불경 번역에 크게 기여한 용성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는 1962년 1월 11일 국가재건최고회의에 보내는 공개 건의문에서 세 가지를 당부하였다. 그 가운데 하나가 팔만대장경의 국역이었다. 팔만대장경을 국역하여야 하는 이유는 남녀노소가 한번 읽음으로써 불법의 교리를 신앙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한국불교의 사회적 역량을 고양시키는 일로 여겼다.

60년대 이후 70년대 초 그는 사회와 불교의 관계를 제대로 읽어내는 몇 안 되는 수행자였다. 종단의 행정수반과 종정을 지내면서 한국불교의 기본방향이 그에 의해 세워졌다. 한국불교가 우리의 사회 변화에 기여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교단체제의 변화와 신앙관 전환을 통해 한국을 넘어 세계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기를 염원하였다.

도선사의 새로운 도전

인구가 줄고 거기에 불자의 수가 감소하는 요즘 한국불교의 포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도선사가 행한 불사가 가운데 현대포교의 모델이 될 만한 것이 있다. 바로 108산사순례이다. 이 순례는 사찰참배의 새로운 시각을 부여한 불사이다.

지금까지의 산사순례 대부분이 자신의 복을 비는 참배였다면 108산사순례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순례이다. 참가하는 신도수도 많을뿐더러 이들이 그곳에서 펼치는 새로운 포교의 모습은 신선하다. 순례단은 참배를 마치면 사찰 앞에 직거래 장터를 열고 지역 특산물을 구매함으로써 농촌에 용기와 활력을 불어넣는다.

이런 의미를 본받아 인천을 비롯한 여러 곳의 사찰에서 108산사 순례단이 발족하였다. 마음 같아선 대도시 많은 사찰들이 순례단을 조직해 도시와 지방의 원활한 가교역할을 한다면 한국불교 발전에 한 축이 될 것 같다.

도선사가 추진한 또 하나의 도전은 농촌을 중심으로 형성된 다문화 가정과 인연 맺기이다. 한국사회는 많은 이주자들이 존재한다. 그 시작은 지방에 사는 한국남성과의 결혼이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이국땅에서 겪는 외국여성들의 고초는 심각한 것이었다. 가정을 지키지 못하고 방황하는 일들이 발생하였다.

이런 다문화 가정의 어려움을 불심으로 감싸주었다. 언어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기 되면서 조국을 떠나온 외국여성들에게 좋은 호감을 주었다. 앞으로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시의적절한 불사라 할 수 있다.

〈동산불교대학 사찰역사문화연구회 지도교수〉



날 아끼듯 널 사랑하니 그게 '자비'



남혜경의
Buddhist Coaching

⑧ 노년 생애설계 코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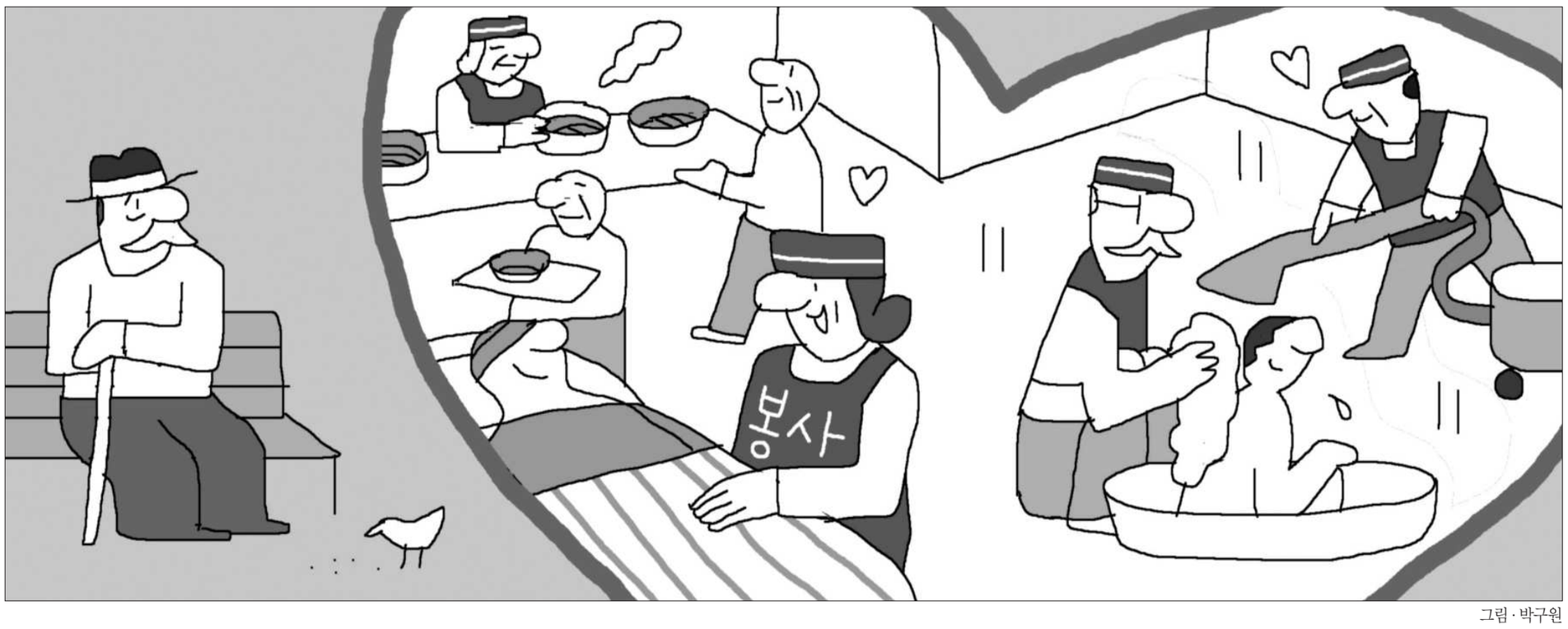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 공연히 환갑잔치를 하는 게 아니더군요. 예순이 되니 새로운 각오가 필요해요. 아이들이 제 둥지를 찾아가고 나니 홀가분하던 마음이 차차 공허해지면서 이제 뭘 하며 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62세, 1남 1녀의 어머니)

- 몸과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아요. 동작도 생각도 굼뜨게 됩니다. 그다지 기쁠 일도 슬플 일도 없어요. 그러면 편안해져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고 무감각해진다 할까요? 나이가 들수록 외기러기가 서러워요, 일일이 아이들에게 터놓을 수도 없고요. (64세, 남편과 7년 전 사별)

- 정년까지 일했습니다. 연금 나오는 저보고 친구들은 복이 많다고 하지요, 경제적으로야 그런데 바쁘게 살다가 시간이 남아도니까 하루가 너무 길어요. 여행도 한 두 번이고 친구들 만남도 하루 이틀이지 이렇게 늙어가야 하는 건가요? (61세, 전직 교사)

- 음식점을 30년 넘게 했어요. 장사를 할 때는 그저 쉬는 것이 소원이더니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좀이 쑤셔서 못살겠어요. 아침을 눈을 뜨면 오늘은 뭘 하나 그 생각부터 들어요. (65세, 자영업에서 은퇴)

살아온 내력은 다르지만 예순을 넘기고 노년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인생의 의미를 찾고 싶은 60대의 자기 고백이다.

길게 잡아도 예순 무렵이면 생업이든 부모의 자리든 졸업하게 된다. 먹고 사느라 바빴으니 이즈음이면 여유 있게 자신을 위한 날들을 보낼 거라고 기대하지만 실제 준비 없이 그 시기를 맞게 되면 순서대로 돌아가던 톱니바퀴가 멈춘 것처럼 일상이 따분하고 사회에서 소외된 느낌을 갖게 된다. 갑자기 몸이 아프다거나 우울증이 오는 것 같다며 하소연하는 경우도 많다.

자신의 역할에 큰 변화가 올 때 새로운 의미를 찾고 환경에 맞는 일상을 계획해 노년에 연착륙하는 준비가 생애설계 코칭이다.

미래 찾고 싶어 과거를 돌아보다

60대 4명의 생애설계 그룹 코칭은 꽃 피는 봄날 공원길의 카페서 시작되었다. 우선 두 사람씩 짝을 지어 생애 최고의 순간을 상호 인터뷰 하고 느낌을 나눈다. 추억의 책장을 뒤지는 일은 잦으면 감상이지만 현재 위치를 알고 싶을 때, 어떤 미래를 갖고 싶은 지 비춰보고 싶을 때는 유용하다.

지금까지 인생에서 경험했던 최고의 순간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가장 몰입하면서 살아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은 순간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1. 그때는 언제였고 어떤 상황이었나요?
2. 그 순간이 있기까지 어떤 노력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다면 어떻게 극복했나요?
3. 그 순간이 인생의 절정이었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첫 아이를 낳은 순간이었어요, 아이가 뱃속에서 쑥 빠져나오던 순간의 강렬한 신비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첫울음을 터뜨린 아기를 내 배 위에 올려놓았을 때 너무 벅차서 울기만 했어요. 결혼 후 5년이 지나도록 임신이 안 돼 온갖 노력을 다했거든요. 그때처럼 뭔가를 절실하게 원하고 기도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 남편에게 청혼을 받던 순간이 제 인생의 황금기였어요. 캠퍼스 커플이었던 우리는 내가 남편을 오래 따라다녀 사랑을 성취했거든요.

- 졸업한 제자들이 학교를 그만두던 날 찾아왔는데 눈물 날 정도로 기뻤습니다, 선생 노릇을 못하지는 않았구나 싶고, 곧 실직한다는 우울을 많이 위로해 주었지요.

- 몇 번 실패 끝에 신도시에서 토속음식점을 오픈해서 식당이 넘쳐나던 그 시절이 제일 좋았어요, 새벽마다 오늘은 어떤 재료를 사와서 새로운 메뉴를 만들어볼까 연구하고 수십 번 같은 음식을 만들어본 끝에 손님들 반응이 좋으면 정말 살맛 났지요.

인생 최고 순간을 소환해서 환희를 다시 느껴본 그들이 현재의 지루함과 허무에 빠지기 전에 코치는 각기 지닌 본인의 자산에 주목하도록 한다.

1. 그 경험은 이후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2. 자신의 어떤 점이 그런 순간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3. 지금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무엇을 바꾸고 싶은가요?

불교의 두축 '지혜' '자비'
붓다의 자비는 삶의 연민
생로병사의 고통 보듬는
노년에는 자비보살 되자

-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나도 아이가 있어야 가정이 완성된다고 믿었으니까요. 그 이후로도 굳건한 믿음이 있으면 소망을 이룬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 부부 금술이 너무 좋아도 시샘한다더니 그이가 일찍 간 것도 그래서일까요? 남편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게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입니다. 잃어봐야 그 소중함을 안다니 너무 가혹해요.

- 제자들이 찾아온 후 한달 정도는 젊은 아이들을 위해서 내 작은 재능이라도 기부해야겠다 마음먹었는데 잊어버리고 말았네요.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직업을 가졌다는 점이 새삼 뿌듯합니다. 다시 그 결심을 실행하도록 길을 찾아봐야겠어요.

- 여러 번 실패 끝에 성공을 했던 그때를 돌이켜 보니 참 용기 있게 살았구나 싶네요. 그 용기를 다시 내어서 즐거운 일에 도전해봐야겠습니다.

자비는 거듭할수록 즐거움이 커진다

불교는 지혜와 자비의 두 단어로 말할 수 있다. 붓다의 자비는 인생의 고통을 없애고 궁극의 평안으로 가는, 삶에 대한 연민이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생로병사가 고통이다. 배고프고 아프고 외로워서 힘들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지 못하면 고통스럽고 갖고 싶은 것이 많아서 고통스럽다. 하지만 막상 많이 가지면 다른 결핍이 생기고 좋은 사람과도 오래 하면 따분해진다.

왜 모두 힘든가요? 라고 물으면 불교에서는 세상에는 반고반락 (半苦半樂)이 있다고 말한다, 고통만큼 즐거움도 있다. 그 즐거움은 어디에서 올까. 모두의 아픔과 슬픔을 이해하는 연민에서 온다, 너도 아프니? 나도 아프다는 마음, 거기서 자비가 시작된다. 자비를 행하는 데서 오는 즐거움은 효용가치가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최고 진미도 먹다보면 질리고 사랑의 쾌락도 거듭되면 시들해지지만 자비에서 오는 즐거움은 행할수록 커지고 깊어진다.

자비라고 하면 어렵게 마음을 내어 베풀어야 한다고 여기기 쉽지만 결국 자신에게 기쁨이 돌아온다 생각하면 쉽게 행할 수 있다. 많이 가져야 하는 것도 아니다.

사섭법(四攝法)을 보자. 진리의 불법으로 상대를 포섭하는 네 가지 방법이다. 남에게 물질과 재능으로 베푸는 보시(布施),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는 애어(愛語), 이로움을 주는 이행(利行), 상대에 맞추어 마음을 여는 동사섭(同事攝)이다. 이렇게 보면 자비는 참으로 매 순간 마음을 낼 수 있는 길이 많이 있다.

60대 이후의 삶에 자비로운 삶처럼 풍요로운 게 있을까. 자식이 독립했으니 많이 가지려 애쓸 필요가 없다. 애욕에 집착할 만한 젊음도 지났다. 무엇보다 인생이 고해요, 찬란한 햇빛도 슬픔이라는 생의 연민을 이해하고 있다. 물질이 부족하면 사랑스러운 한마디 말로, 상대에게 맞추어 얘기를 들어주는 마음 한쪽으로도 하루 하나의 자비를 실천할 수 있다.

생애설계의 코칭 후반부는 이 자비의 의미와 실천 방법을 찾는 시간이었다,

- 이웃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기만 해도 자비로군요. 늘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털어놓고 위로를 받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먼저 귀를 열어야겠어요. 남의 마음을 알아주면 내 마음도 절로 알게 될 듯합니다.

- 아이들과 함께 있기를 좋아하는 내 재능을 묵히지 말고 더 늙기 전에 동네 아이들이라도 함께 놀아주고 독서교육을 하고 싶어요.

- 가버린 사람에게 못 한 사랑을 자신과 다른 가족, 또 친구들에게 대신 베풀어야겠어요. 사랑하는 법을 잊고 지냈는데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 우선 나에게 자비롭고 싶어요. 수 십 년 몸을 혹사했으니 몸에 좋은 것만 먹고 좋은 일만 하고 매일 즐거운 일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한 후에 그 자비를 이웃에게 돌리는 방법도 찾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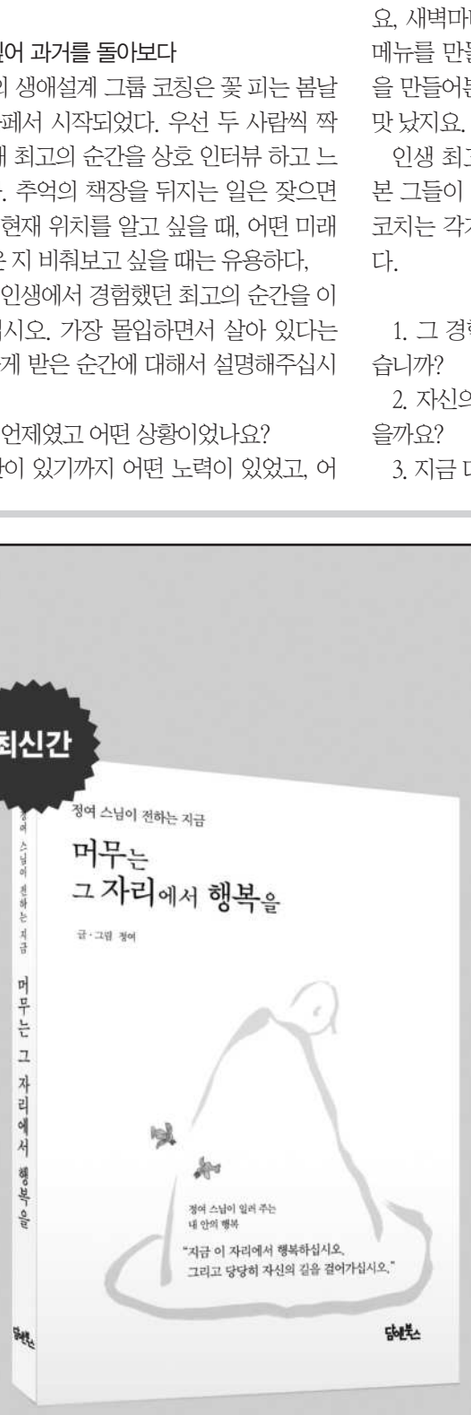
그들은 매일 한 가지 이상 자비를 실천하고 자비일기를 쓰기로 했으며, 이후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한 달 후에 다시 모여 코칭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실버 코칭 시장은 지금 활황이다. 수명은 점차 길어지고 지적 문화적 수준은 높은데 다채로운 인생설계가 부족한 환경에서 그들은 활발하게 자아 성찰을 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찾아 나선다. 다행히 서울시의 50 플러스 캠퍼스를 비롯해 지자체의 교양강좌나 문화 프로그램 등 노년의 인생설계를 위한 인프라가 점점 두터워지고 있다.

노년을 시작하는 친구들이 인생의 아름다움을 자비에서 찾을 수 있게 코치로서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다.

〈한국코치협회 전문코치〉

최신간



정여 스님이 전하는 지금

머무는
그 자리에서 행복을

"행복하다고 한다면 반드시 행복은 찾아올 것입니다."
쉽고 간결한 문장으로 일러 주는 정여 스님의 위로의 법문

『머무는 그 자리에서 행복을』은 크게 2부로 나누어진다. 전 범어사 주지를 역임한 정여 스님은 평소에 수행하면서 바라본 '마음'이라는 화두를 아름답고 간결한 문체로 풀어놓고,이어 세수 70세에 선방 정진을 마치고 다시 무문관에서 폐관 수행을 마친 이야기와 오래전 수행한 오룡골 토굴생활의 에피소드를 솔직담백하게 풀어내고 있다.

저자의 글을 읽다 보면 '지금 이 자리에서 머무는 그대로 행복을 느끼고 당당히 제 갈 길을 가는 것'이 수행에 다름 아니라는 사실을 느끼게 된다.

글 · 그림 정여 / 262쪽 / 15,000원

정여 스님이 일러 주는
내 안의 행복을 찾는 방법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당당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정여 스님의 여여한 세상 www.yeoyeo.net TEL: 051)853-5486

문의 : 02)765-1251 담앤북스

난 인식한다 고로 존재한다



김성규의
緣起 이야기

⑧ 12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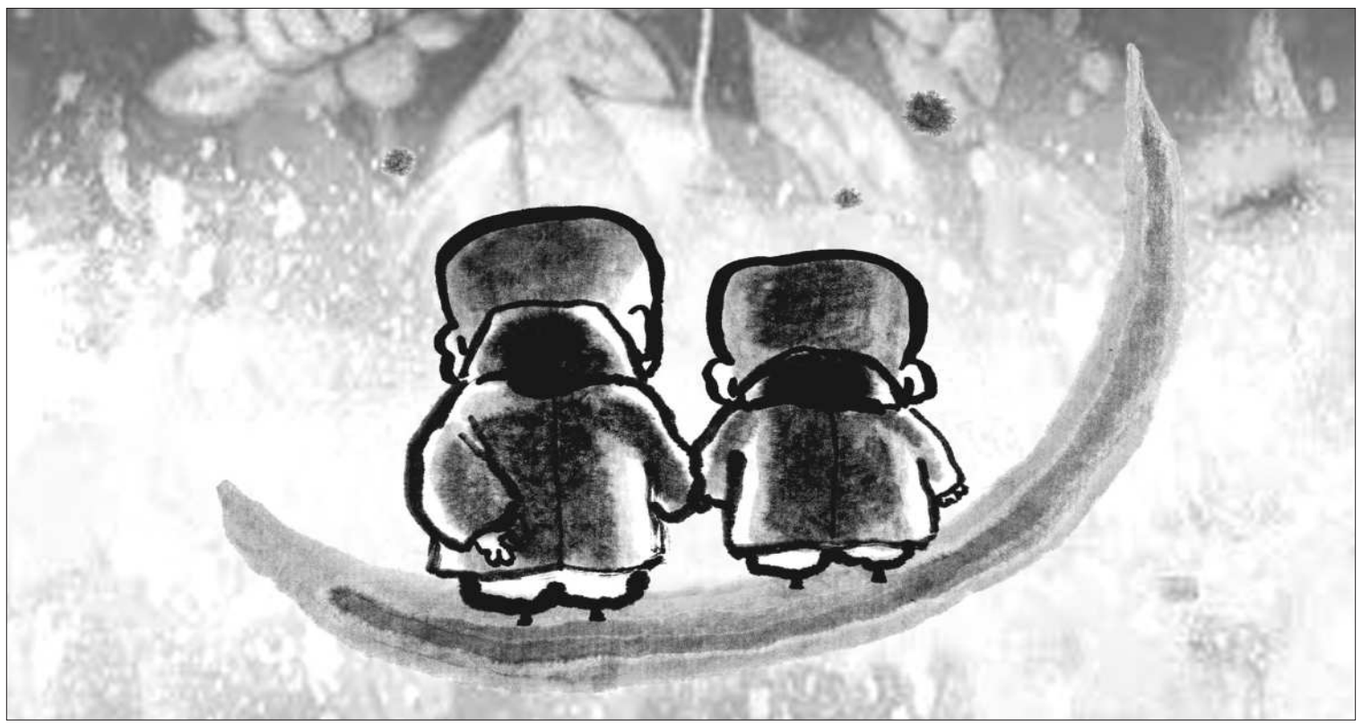


그림 · 강병호

병원 동산에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벚꽃이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다. 가까이 있는 친구들도 많이 변하고 늙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존재의 본질은 무상이고 무아이다. 무상과 무아를 모르는 상태가 무명이며 무상과 무아를 아는 상태는 명이고 명은 연기이다. 이것이 불교의 기본적인 존재에 대한 내용이다. 여기서 우리 모두는 존재인 것이다. 불교의 출발은 삼법인이다. 또한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기본적인 속성도 삼법인이다. 부처님 당시에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상상해보자.

존재는 인식이다

존재란 무엇인가? 한번 제대로 생각해보자. 이것이 모든 것들의 출발점이 된다.

나도 존재이고, 또 나를 둘러싼 주위의 모든 것도 다 존재이다. 이 우주에 존재 아닌 것이 없다. 먼지에서부터 우리 인간까지 모두 존재이며,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법을 물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한 말씀이 "너는 있느냐? 없느냐?"였다. "저는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그러면 네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보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였다.

우리들도 한 번 생각해 보자. 내가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것인가. 다음은 부처님과 문답이다.

"너는 내가 보이느냐?"

"예, 눈이 있어 부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보기 때문에 인식할 수 있으며, 인식하기 때문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존재란 인식이다.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존재는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된다.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것은 존재가 아니다.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존재의 첫 출발이 인식에서 시작된다. 내가 인식할 수 있으므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6근과 6경 그리고 12처

인식이란 어디서부터 오는가? 우리 몸에는 대상을 인식할 수 있는 인식체로서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혀가 있고, 몸이 있고, 의식이 있다. 즉 안 · 이 · 비 · 설 · 신 · 의를 갖고 있다. 초기불교에서는 안 · 이 · 비 · 설 · 신 · 의에서 '의'는 완전히 따로 전개되었다. 우리 몸에서 인식할 수 있는 인식체는 6근인 눈 · 귀 · 코 · 혀 · 몸뚱이 · 뜻이 전부이다.

먼저 눈을 생각해보자. 눈이 있기 때문에 대상을 볼 수가 있다. 예를 들어 눈을 가리면, 혹은 눈이 없다고 하면 대상을 볼 수가 없다. 눈이 있기 때문에 대상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대상은 모두 형상을 가지고 있고 형상으로 보인다. 이것을 색이라 한다. 그래서 6근의 대상이 되는 것을 육경이라 하며 색(안의 대상), 성(이의 대상), 향(비의 대상), 미(설의 대상), 촉(신의 대상), 법(의의 대상)으로 불린다. 색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대상인 것이다.

안 · 이 · 비 · 설 · 신 · 의에 대응하는 대상이 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먼저 눈에 보이는 색이 있다. 여기서 불교의 가장 근본적인 출발인 6근과 6경이 나온다. 근은 인식할 수 있는 인식체이며, 경은 인식의 대상이 되는 대상물이다. 6근과 6경 중에서 눈이 있기 때문에 형상, 모양인 색을 볼 수 있으며, 눈이 있기 때문에 대상을 볼 수 있고 내 눈을 통해서 대상을 봄으로써 보는 작용이 일어난다.

보는 작용이 일어나는데 눈으로써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일까? 아니다. 여기에는 보는 작용밖에 없다. 판단은 '의'가 한다. 그래서 눈과 색, 대상이 부딪치면 식이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것들을 총괄하는 의가 작용하여 분별하고 판단하는 능력인 의식이 생기는 것이다.

눈이 있어서 대상을 볼 수 있는 보는 작용에 의해서 안식이 생기고 눈으로 보는 작용은 안식에서 일어난다. 안식은 '의'에 의해서 의식과 결부되어 판단하고 분별하는 의식이 생긴다.

부처님의 가장 위대한 점은 '의'를 회복하고 '의'에 의해서 구체화 시키고 '의'로써 불교의 모든 것을 만들어 내게 된다. 불교는 바로 '의'의 종교인 것이다. 기독교를 하느님의 종교라 한다면 불교는 '의'의 종교인 것이다. '의'와 불교의 마음의 '심', 그리고 의식인 '식'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다면 불교의 반은 알 수 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인지 의인지 식인지, 구별하는 것이 모호하다. 혼돈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분명히 다르고 내용이 다 틀린다.

> **어떤 대상을 바라본다고 할 때**
> **판단 · 분별하는 '식'은 모두 다르다**
> **식의 속성은 다르게 인식하는 것**
> **업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이게 된다**

6근과 6경의 속성은

'안 · 이 · 비 · 설 · 신 · 의'의 6근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은 눈은 보려하고, 귀는 들으려고 하고, 코는 냄새를 맡으려고 하고, 혀는 맛을 보려고 하고, 몸은 감촉을 느끼려고 한다. 즉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의지적 작용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눈으로 대상인 색을 보면 필연적으로 보이게 된다. 눈을 통해서 보는 작용을 한다. 그러면 눈으로 대상을 보았을 때 대상은 눈에 보이는 필연적 반응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항상 눈으로 보면 그 대상은 눈에 대한 반응의 작용을 하는 것이다. 안은 보려고 하는 의지적 작용을 하고, 색은 보이려는 필연적 반응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아이에게 더하기 빼기를 가르칠 때 그 개념은 가르치지 않는다. 그저 '5+7=12' 식으로 더하고 빼고 곱하기는 다 잘한다. 그것에 대한 기본개념을 안 가르치다 보니 어릴 때는 공부를 잘하는데 고등학교 대학교에 들어가서는 미국이나 유럽의 학생들과 비교해 보면 너무 처진다. 아는 것만 알지 응용을 할줄 모르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기본개념에 대한 설명이 없다. 어떤 상황이라든지 그 문제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왜 이렇게 밖에 답이 나오지 않는지 대한 기본원리에 부딪치면 아무것도 모른다.

지금 불교가 어렵고 잘 모르는 이유도 바로 불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전혀 안 배우기 때문이다. 선불교가 어려운 것은 불교에 대한 기본개념이 없는 상황에서 보면 선불교는 말 장난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불교에 대한 기본개념을 알고 보면 그 기본개념의 흐름에 의해서 초기불교나 대승불교나 선불교나 똑같이 전개되는 것이다.

6근이 나를 이루는 주체이다. 연기의 법칙을 말할 때 6근은 인이 되는 성분이고 6경은 연이 되는 성분이다. 내가 주체가 될 때 대상은 연이 되며 또 누군가가 인이 될 때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은 연이 되는 것이다.

바로 이 인연과의 법칙의 출발점은 6근과 6경으로부터임을 알아야한다.

가장 기본적인 속성인 안과 색에서 볼 때 안은 의지적 작용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색은 필연적 반응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안과 색이 부딪치면 식이 일어나는데 식은 판단, 분별을 한다.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은 바로 6근이나 6경이나 모두 삼법인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무상이고 고이며, 무아인 것이다.

의식에 대한 이해

눈을 통해 어떤 대상을 보면 인식을 하게 된다. 인식하는 것을 식이라 한다. 이것이 합하여 불교의 가장 기본인 6근과 6경과 6식이 된다.

제자들이 부처님께 "불법(佛法)이 무엇입니까"하고 물으면 부처님께서는 "6경과 6근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존재인 12처가 불교"라고 설했다. 또 "6경과 6경, 6식의 18계가 불교"라고 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법당에 들어갔을 때 부처님을 본다고 가정하자. 우리는 눈을 갖고 있다. 부처님을 봤을 때 식이 생긴다. 우리가 눈을 가지고 부처님을 보았을 때 부처님은 색이며, 눈이 색을 봄으로써 안식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부처님을 보고 머릿속에 생기는 식은 전부 다르다.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이 어떤 대상을 바라본다고 할 때 그 대상을 보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식은 전부 다르다. 똑같이 판단하는 식은 없다. 묘한 이야기인데 사실이 그렇다. 식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은 다르게 인식하는 것이다. 자신의 업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이고 분별하는 것이다. 이것은 12연기의 중요한 속성 중의 하나인 식이 된다.

제행무상 · 제법무아 · 일체개고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 어느 종교든지 진리를 바로 본다면 인식하는 내용은 다 같을 수밖에 없다.

연기는 우주의 본질적인 법칙이다. 깨우친 눈으로 볼 때 그 사람이 어떤 종교를 믿든지 인식하는 내용은 다르지 않고 똑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주만물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은 종교나 철학이나 과학이나 어떤 것도 같다. 존재의 속성은 무상이고, 고이고, 무아이다. 이것이 불교에서 삼법인으로 불교의 기본적인 진리가 되면서 제행무상 · 일체개고 · 제법무아가 된다.

제행무상(諸行無常),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일정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무상(無常)인 것이다. 제행무상,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속성의 하나인 것이다.

부처님께서 "끊임없이 변화는 것이 '고'이겠느냐, '낙'이겠느냐"고 제자들에게 물었다. 제자들은 '고'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일정한 형태를 유지하지 않고 허물어지는 것은 '고'라고 했다. 변화의 시작은 생이고 변화의 끝은 멸이다. 무상한 모든 것은 생멸하는 것이다. 생멸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고라고 하셨다. 그래서 불교의 기본적인 속성이 제행무상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모든 것은 바로 '고'인 일체개고(一切皆苦)이다.

제법무아(諸法無我)는 나라고 내세울 독립적인 어떤 실체가 없음을 의미한다. 바른 눈으로 존재의 본질을 보니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독립적인 실체를 가지지 않으며, 나라고 주장할만한 것이 없는 것이다. 제법무아이다. 무아이기 때문에 대승불교에서는 무자성이며, 공이라 했다. 연기가 곧 공이며 무자성인 것이다. 그래서 초기불교의 교리나 대승불교의 교리는 다르지 않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불교의 진리를 말씀하실 때 삼법인을 말씀하셨고, 불교가 삼법인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이 존재의 내용은 무상이며, 고이며, 무아이다. 그리고 존재의 관계 법칙은 연기인 것이다. 연기, 무상, 무아는 초기불교부터 대승불교, 밀교, 선불교의 불교를 관통하는 진리인 것이다.

〈영남대 의대 교수〉

- 불기 2563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기념 -

전주특례시 지정 기원 법회 및 사찰음식 만찬

전주불교연합회가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지역주민의 염원인 전주특례시 지정을 함께 마음모아 기원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께
감사와 치유의 사찰음식 산사의 밥상을 준비하였습니다.



| 일시 | 2019년 4월 29일 월요일 오후 6시 30분
| 장소 | 전주 웨딩팰리스 (종합운동장 사거리 구 동백예식장)
| 내용 | 부처님오신날 기념 전주특례시 지정 기원 법회
사찰음식 만찬 (전주 산사의 밥상)
| 참석 | 전주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
전주불교연합회 사암주지 스님 및 신도대표

※식사준비로 인하여 참석하실 분들은
전주불교연합회(tel.063-719-3309)로 사전연락 바랍니다

전주불교연합회

포항 삼보사 제1기

범음대학 개강 안내

귀의 삼보 하옵니다.

소승은 범음. 범패 국가문화 50호 박송암 스님, 장백응 스님의 문화에서 수행한 납자로서, 수십 년 동안 산중에서 범음을 수행정진한 승려로서 한국불교문화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범음의 정통에 충실한 강좌를 열약한 조건에서 제1회로 개설하오니 수행의 본문에서 더욱 정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뜻있는 사부대중의 많은 동참 있으시길 바랍니다.

강좌내용	상주권공
개강일시	2019년 5월 17일 금요일 오후 3시
강좌일시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3시

오시는 길

버스 편은 포항 오천에서 30분 간격으로 800번 환승 가능하며, [하정]에서 하차하시면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삼보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죽정리 667-2번지 | Tel 054-292-3370 HP 010-9954-6196

삼보사 범음대학 강주 동곡 종산 합장

‘善·惡’은 부메랑



新 불교사자성어

⑮ 인과응보(因果應報)

인과응보(因果應報), ‘선악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받게 된다’는 뜻이다.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따르고’, 반대로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결과가 따른다’고 하는 선인선과(善因善果) 악인악과(惡因惡果)와 같은 뜻이다. 주로 선행보다는 악행을 했을 때, 죗값을 치른다는 개념으로 쓰이는 사자성어다.

인과응보, 선인선과, 악인악과는 불교 경전에 가장 많이 나오는 명구이다. 그래서 오히려 대수롭지 않게 들릴 수도 있다. 유치원, 초등학교 때부터 지겹도록 듣던 말이기도 하고 절이나 교회, 성당 등에서도 가장 많이 가르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간혹 인과응보 같은 말은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에게나 하는 말이라고 폄하하는 이도 있다.

조과선사(鳥窠禪師, 741~824)와 당나라의 유명한 시인 백낙천(白樂天, 772-846)과의 일화가 있다.

백낙천은 이백과 함께 중국을 대표하는 시인이다. 그가 항주 자사(도지사)로 부임했는데, 마침 근처에 조과선사라는 고승이 있었다. 하루는 백락천이 조과선사를 찾아가서 좌우명으로 삼을 만한 좋은 말씀을 부탁했다. 좌우명이라면 누구보다도 지식의 백과사전인 백낙천이 더 많이 알고 있을 터였다. 조과선사는 다음과 같은 한 구의 게송을 써주었다.

“악을 짓지 말고, 착한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오(諸惡莫作 衆善奉行(……) 是諸佛教)”

“기거야 세 살 먹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말이 아닙니까?”

백낙천은 실망했다. 너무나도 흔한 말이었기 때문이다.

“삼척동자도 알지만 팔십 노인도 실천하기 어려운 말이오.”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법. 백낙천은 그제야 자신이 어리석었음을 깨닫고 큰 절을 했다고 한다.

사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간다. 무엇이 바른 것이고 잘못된 것인지, 무엇이 의(義)이고 불의인지, 그리고 무엇이 공(公)이고 사(私)인지 잘 모르고 살아간다.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거의 없고 하루하루 밥이나 먹고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치열한 경쟁구조, 무한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남에게 주는 피해쯤은 생각하지 않는 편이다. 매일 같이 아우성이다.

우리는 자신이 행복해지기를 바란다. 그렇다면 남의 행복도 중요시해야 하는데, 남의 행복은 관심 밖이다. 자신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라면 가까운 친인척이나 친구 돈도 떼먹는다. 사기를 치고 공익을 도외시하고 사욕을 챙기는 등 부정한 짓을 한다. 윤리 도덕(Morality), 도덕적 해이(道德的解弛, Moral Hazard)가 제로 수준에 가깝다. 도덕성과 비도덕성에 대한 인식이나 구분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인과응보, 선악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이다.

‘부메랑(Boomerang)’이라는 말이 있다. ‘어떤 일을 했는데, 나쁜 결과가 되어 되돌아오다’ 또는 ‘어떤 정책을 폈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났다’ 등의 뜻이다.

부메랑은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이 사냥이나 전쟁을 할 때 쓰는 굽은 막대 모양의 무기라고 한다. 무기의 일종으로 힘껏 던져서 목표물에 맞으면 되돌아오지 않지만, 맞지 않을 경우에는 자기에게로 되돌아오는 특성을 갖고 있는 신기한 무기 겸 장난감이다. 던진 사람에게로 되돌아오는 관성을 지닌 부메랑의 법칙은 곧 인과응보의 이치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으면 콩이 나오고 팥 심으면 팥 나온다’는 말이 있다.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오게 되고, 악한 짓, 나쁜 일을 하면 반드시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는 말이다.

또 ‘너에게서 나온 것은 너에게로 되돌아간다(出乎爾, 反乎爾)’는 말도 있는데, 매우 좋은 말이다. 작은 악, 대수롭지 않은 악이라도 반복하다보면 큰 악을 저지르게 된다. 그리고 그 악은 부메랑이 되어 그 사람의 인생을 늪으로, 구렁팅이로 몰고 간다. 자승자박. 결국 죽어야 끝나게 된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대중 입 막아버린 숭수의 걸상



격절록 강설

⑮ 제4칙 숭수지등(崇壽指凳)

[古則과 着語]

擧, 崇壽指凳子 (只是凳子) 云 “識得凳子 周匝有餘” (十方世界外 更有世界在) 雲門云 “識得凳子 天地懸殊” (減得一半)

숭수(崇壽, 법안문익, 885~958)가 걸상을 가리키며, [단지 걸상일 뿐이다.] 말했다.

“걸상으로 알아도 사방에 남음이이 있다.” [시방세계 밖에 또 세계가 있다.]

운문(雲門, 운문문언, 864~949)이 말했다.

“걸상으로 알더라도 하늘과 땅만큼 현격하게 다르게 된다.” [한 개 반(1/2)으로 줄였다.]

[拈古와 着語]

雪竇拈云 “澤廣藏山 狸能伏豹” (任大也 須從地起 更高爭奈有天何)

설두가 염(拈)해서 말했다.

“큰 못이 산을 감추고, 살쾡이가 표범을 능히 굴복시켰다.”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모름지기 땅으로부터 일어나야 하는 것이요,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그 위에 또 하늘에 있는 것을 어찌 하겠는가!]

[評唱]

師云. 無味之談 塞斷人口. 且道 古人為甚麼至理之言却不擧 却指凳子. 諸人且道 有什麼奇特處. 雲門道 “天地懸殊”

“아무런 맛도 없는 말이 사람들의 입을 막아버렸도다!” 자, 말해보라! 고인古人이 어째서 지극한 이치의 말(至理之言)을 거론하지 않고, 도리어 걸상을 가리켰는가? 여러분은 말해보라! (여기에) 무슨 기특처(奇特處)가 있는가? 운문이 말했다.

“(걸상으로 알더라도) 하늘과 땅만큼 다르게 된다(天地懸殊).”

懷和尚却道 “楠榆木做” 秀圓通道 “四脚著地” 和崇壽一坑埋却. 山僧這裏不要凳子 只要田地上淨潔. 所以雪竇拈云 “澤廣藏山 理能伏豹” 雪竇道如此 未審是明他語 點他話. 是褒是貶. 凡是一拈一提 若是有工夫 自然蓋天蓋地.

회 화상(懷和尚, 천의의회)이 말했다.

“(걸상은) 매화나무와 느릅나무로 만든다(楠榆木做).”

수 원통(秀圓通, 법운운수)이 말했다.

“(걸상은) 네 다리가 땅에 닿는다(四脚著地).”

(이들 모두를) 숭수와 함께 한 구덩이 묻어버려야 한다. 산승의 여기에는 걸상도 필요 없다. 다만 마음(田地)의 정결(淨潔)이 필요할 뿐이다. 그래서 설두가 염하기를 “큰 못이 산을 감추고, 살쾡이가 표범을 능히 굴복시켰다”고 하였던 것이다. 설두가 이렇게 말한 것이 그 말을 밝힌 것이지, 그 말을 점검한 것인지, 칭찬한 것인지, 폄하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 무릇 (설두가) 한 번 언급해본 것이니, 만약 공부를 했다면 자연히 하늘을 덮고 땅을 덮을 것이다.

---

*무미지담 색단인구(無味之談 塞斷人口)는 설두중현이 잘 쓰는 표현이라 “ ” 표시를 하였다.

*천의의회(天衣義懷, 993~1064)는 송대宋代 운문종 스님으로 30세에 출가하여 취봉사 설두중현에게 참학한 후, 그의 법을 이었다. 법운운수(法雲法秀, 1027~1090) 역시 운문종의 스님으로 17세에 출가하여 천의의회에게 참학한 후, 그의 법을 이었다.

〈강승욱 법사〉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⑮ 믿음 편 15

솔직 당당한 지혜의 화신 문수보살

사찰에 가면 사자 등을 타고 있는 동자의 형상이나 그림을 볼 수 있는데, 바로 문수보살이다. 오래 전 문수보살을 왜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그렸으며,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 생각해본 적이 있다. 그러다 철학자 니체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서문을 읽고서 나름의 해답을 얻을 수 있었다.

니체는 인간의 정신을 낙타와 사자, 어린 아이 세 단계로 구분하였다. 먼저 낙타는 기존의 관념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수용하는 정신을 상징한다. 인간이 낙타 등에 짐을 실으면 순순히 길을 가는 상황에 빗댄 것이다. 반면 사자는 낙타처럼 ‘너는 해야 한다(You should).’는 정신이 아니라 ‘나는 하고자 한다(I will).’는 자유의지를 상징한다. 그리고 사자보다 위대한 정신은 놀랍게도 어린 아이다. 니체는 어린 아이가 약해보이지만 솔직하고 당당한 모습(I am)에서 ‘신’으로 상징되는 낡은 질서를 대체할 새로운 힘을 보았던 것 같다.

그런데 니체가 가장 높이 평가한 어린 아이가 사자 등에 타고서 해맑게 웃고 있다. 어른이라면 사자가 무서워서 도망갈 텐데, 문수동자는 그렇지 않은가 보다.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바로 솔직함과 당당함이다. 어린 아이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어른처럼 눈치를 보지 않고 솔직하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는 것이다. 문수보살을 동자로 표현한 이유와 의미를 나는 여기에서 찾고 싶다.

문수는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로서 문수사리(文殊師利) 또는 문수시리(文殊尸利)를 줄인 말이다. 범어로는 만주슈리(Manjushri)인데, 만주는 ‘달다(甘), 묘하다, 훌륭하다.’는 뜻이고 ‘슈리’는 ‘복덕(福德)이 많다, 길상(吉祥)하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문수는 지혜가 훌륭하고 복덕을 지닌 보살이라는 의미다. 사찰 대웅전에서는 석가모니불 좌측에, 대적광전에서는 비로자나불 좌측에 모셔져 있다. 문수신앙이 강한 도량에는 문수전이 따로 있기도 하다.

지혜의 상징답게 문수보살에 대한 신앙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경전은 〈화엄경〉이다. 〈화엄경〉 보살주처품(菩薩住處品)에는 문수보살이 동북방의 청량산(淸凉山)에서 1만의 권속을 거느리고 항상 설법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청량산은 문수보살이 상주하는 곳으로 알려진 중국 산시성(山西省)의 오대산(五臺山)이다. 신라 때 화엄종 승려들이 중국으로 공부하러 가면 제일 먼저 참배했던 곳이기도 하다. 오대산은 보현보살의 상주처인 아미산(峨眉山), 관음보살이 상주한다는 보타낙가산과 함께 중국의 3대 영산으로 꼽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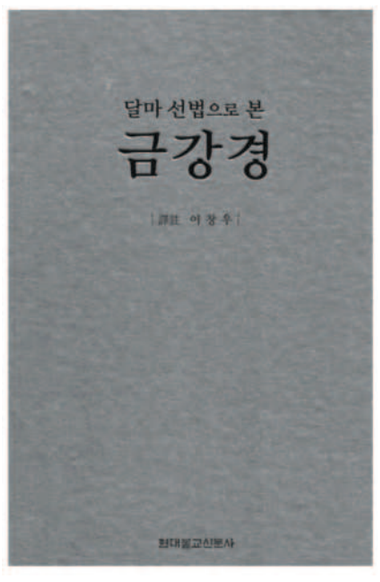
문수신앙을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한 인물은 신라의 자장율사(慈藏律師)다. 그는 중국 오대산에서 기도를 하고 문수보살을 친견했다고 한다. 그는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여 강원도 오대산 중대(中臺)에 적멸보궁(寂滅寶宮)을 건립하여 이곳을 문수신앙의 중심 도량으로 만든 인물이기도 하다. 이곳 오대산에 오만의 문수보살이 머문다는 신앙이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는데, 이는 곧 이 땅이 지혜의 터전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 문수신앙은 관음이나 미타신앙에 비해 그리 유행하지 않았다. 지혜를 중시하는 불교와 잘 어울리는 신앙인데 왜 그런 것일까? 이유는 단순하다. 관음이나 미타신앙에 비해 기복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은 우리나라 불교가 그만큼 기복적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문수신앙이 성행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붓다나 훌륭한 승려들의 법문을 사자후(獅子吼), 그분들이 앉는 좌석을 사자좌(獅子座)라고 한다. 사자루, 사자암과 같은 전각이나 암자도 많다. 모두 지혜를 상징하고 있다. 지혜를 상징하는 색은 푸른색이다. 문수보살이 청색 옷을 입고 푸른빛을 띠는 사자 위에 타고서 한 편의 멋진 시를 전해준다.

‘성 안 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깨끗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일세.’ 지혜란 이런 것이 아닐까.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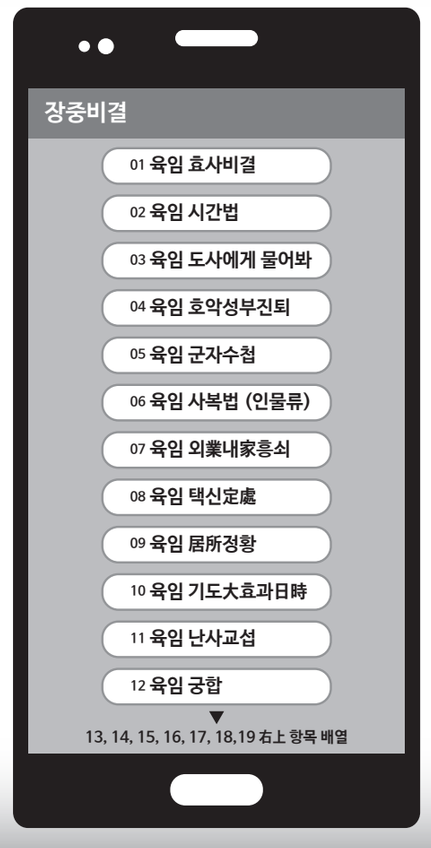
이 책은 참마음, 참나, 참자기, 본래면목, 불성, 자성, 진여일심, 한마음을 찾는 달마선법을 바탕으로 금강경을 풀이(주해 및 강의)한 책이다. 저자인 이창우 거사는 조계종 한마음선원장 대행 선사의 재가 제자로서 오랫동안 대행선사의 문하에서 가르침을 받고 마음공부를 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금강경을 오늘의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 냈다. 저자는 “마음을 몰록 놓는 삶은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 같지만 발 가는 곳에 마음이 머무는 곳에 진리(부처)가 있으므로, 생활을 도량으로 삼으면 살아서는 안내자가 되고 죽으면 구세주가 되므로, ‘참자기’를 스승으로 삼고 ‘참마음’을 등불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이창우 역주 | 19,000원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 구입문의 : 02)2004-8216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내 휴대폰에 담긴 육임 - 언제 (낮밤) 어디서(韓,中,日,東南亞,美東西部)든 즉단(卽斷)
육임 모바일 앱 ‘장중비결(掌中祕訣)’ 완제품 출시
정확도-속도성-착목도-효과성 보장



장착 종목 순서

01 육임 효사비결(당면사, 일생사, 鬼, 崇, 山所 수법효과유무 등 종합)
02 육임 시간법(事量크기 등)
03 육임 도사에게 물어봐
04 육임 호악,성부,진퇴 여부
05 육임 군자수첩(항목별 판단)
06 육임 사복법(인물류-내방, 출생 겸용)
07 육임 外業內家흥쇠 여부(내방, 출생 겸용)
08 육임 택신 정처 여하(내방, 출생 겸용)
09 육임 居所 정황 가부
10 육임 기도大효과日時 지정
11 육임 난사교섭 여하
12 육임 궁합(로또숫자 참고-출생)
13 육임 월지신살(强勢적용-내방, 출생 겸용)
14 육효 (卽時별 服色별)
15 매화역수(年月日時別-내방, 출생 겸용)
16 월영도(主기도대상적시-출생)
17 사주감정(4종-출생)
18 꿈해몽(일반 태몽)
19 인선(人選)정단

1.영구실행보장 2.분실파손시 재장착보장
3.귀신부정산소탈 적중 4. 해소방법적시
5.초사,시보,내정,비밀,당면사,일생사등 미리 알아 먼저 지적할 수 있도록 원터치 구성
6.‘효사비결’CD프로그램 위 05,06,07,08,09,10,11종목 신규수록한 업데이트 종결판 출시·교환 공지

정가: 100만원 할인: 70만원(‘19.05.05.까지)
계좌: 농협 317- 0013- 9239- 01 천안종

www.aua.ac • 문의: 02- 6489- 3464 고복자 효사 직통 • 서울시 용산구 후암로 93. 5층 AUA 개발부

조계종복지재단 처장에 탄웅 스님

직제개편에 따른 사무처장 첫 임명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사무처장에 중앙종회의원 탄웅 스님〈사진〉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4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사회복지재단 신임 사무처장에 탄웅 스님을 임명했다. 원행 스님은 "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기관이 많고, 업무도 많다. 상임이사와 협조해 불교복지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직제개편을 통해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 신설된 사무처장직에 임명된 탄웅 스님은 1992년 수계했다. 1999년 중앙승가대학을 졸업하고 관음사, 한산사, 극락사, 대덕사, 국제선센터 주지를 역임했다. 윤호섭 기자



국제선센터 주지로 임명된 법원 스님(사진 오른쪽)이 임명장을 받은 뒤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기념촬영하는 모습.

국제선센터 신임주지에 법원 스님

서울 국제선센터 신임주지에 법원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4월 18일 국제선센터 주지에 법원 스님을 임명하고, 임명장을 전달했다. 원행 스님은 "국제선센터의 지리적 요건과 특성을 살려 맡은바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법원 스님은 혜향 스님을 은사로 1996년 수계했다. 중앙승가대를 졸업하고 대흥사 동국선원, 망월서 천중선원, 백련사 만덕선원에서 안거 수행했다. 대성사 주지 및 제16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하고, 현재 제17대 중앙종회의원을 맡고 있다. 윤호섭 기자

"봉축행사 성공 개최 기원"

불교진흥원, 연등회 5000만원 기탁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각범 · 사진)은 불기 2563(2019)년 부처님오신날을 앞으로 4월 15일,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 · 연등회 보존위원회에 봉축행사 지원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이각범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은 "불교는 역사적으로 국가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마다 국민과 함께 아픔을 나누고, 힘을 모으는 자비정신을 실천해왔다"며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세계적인 생태 환경 변화를 유연하게 받아들이면서도 불법의 혜안을 바탕으로 한 화합과 통합의 시대를 열어가는 도약의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봉축메시지를 함께 전했다. 윤호섭 기자

"범국민 환경인식 불교가 제고한다"

Interview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만 스님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사찰 연계한 캠페인 등 전개
불자 · 국민 인식 개선 주력
"환경운동 지역 곳곳서 진행"

"불교환경연대는 이제 환경운동뿐만 아니라 범국민적인 생태사상과 문화전통을 알리는 단체로 거듭날 것입니다. 새로운 재도약을 통해 불교의 사회참여에 기여하겠습니다."

불교계 대표 환경단체인 불교환경연대가 4월 17일 상임대표 법만 스님 취임식을 통해 새로운 비전을 밝혔다.

법만 스님은 서울 경운동 불교환경연대 사무실서 열린 취임식에서 "불교환경연대는 창립 초기부터 상임대표 수경 스님을 필두로 새만금, 북한산, 4대강 등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불교의 종교성에 바탕을 둔 헌신적 활동으로 널리 귀감이 돼 왔다"며 "이제 환경연대의 토대를 더욱 굳건히 하고 외연을 확대해 나가는데 주력하겠다. 다양한 캠페인으로 범국민 환경인식 개선 등 불교환경연대 활동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삼보일배와 오체투지라는 자기성찰을 기반으로 한 환경지킴이 운동에 나섰던 수경 스님의 은거 이후 불교환경연대는 침체기를 겪었다. 그러던 중 2016년 재도약을 위한 100일 4대강 순례길에 올랐다. 당시 상임대표 법일 스님과 유정길 운영위원장을 주축으로 다시금 활동력을 되찾고 지난해 새 사무실 개소 등 교육과 활동의 터전을 마련했다.

법만 스님은 "불교환경연대가 불교를 대표하는 환경단체로 자리매김하고, 생태사상과 문화전통을 현대인 심성에 맞게 재구성해 현대인들에게 생태영성을 불어넣는데 힘쓰겠다"며 "특히 불교 안에서부터 더욱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녹색불교만들기 운동을 실시하고, 각 사찰과 불교단체에서 그리고 불자들의 삶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만 스님은 문수 스님의 4대강 사업 반대 소신공양 당시 감명을 받아 불교환경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스님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고창 선운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도 오랫동안 관여해 왔다.

법만 스님은 "현재 광주전남, 울산지부와 몇 개 지회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신규 지부도 개설해 전국네트워크를 갖출 계획이다. 전국동시활동으로 환경연대 활동을 극대화하겠다"며 "종단과 각 교구본사와도 유대를 높여 불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스님은 "미세먼지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기후변화가 인류 생존과 지구 존립을 다투는 문제가 되고 있다. 이제 환경을 지키는 일은 환경운동가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공업중생의 이 세상에서 환경을 지키는 것은 불자, 그리고 모든 이들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법만 스님은 끝으로 "환경운동은 벽을 넘어 사회전반에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 파고 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찰, 단체 협약을 확대하고 캠페인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 대승보살의 원력으로 지구생태계 보존과 온 생명의 평화를 위해 끊임없이 성찰하고 정진하자"고 당부했다.

"2천여 동문과 모교 발전 진력"

중앙승가대학 제18대 총동문회장 성행 스님



중앙승가대, 건학40주년 맞아
내실 ·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
"학교와 T/F 구성… 발전 논의"

"올해로 중앙승가대가 건학 4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2000여 명의 스님들이 중앙승가대서 배출됐습니다. 이제 중년이 된 중앙승가대는 종단 기본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모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중앙승가대 제18대 총동문회장 성행 스님〈사진〉은 취임 소감을 이 같이 밝히며 말머리를 풀었다. 중앙승가대 총동문회는 4월 15일 김포 중앙승가대 대강당에서 취임법회를 열고 신임 회장인 성행 스님의 취임을 알렸다.

중앙승가대 12기인 성행 스님은 청계사 주지와 중앙종회의원으로 종무행정과 포교 일선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종단 중진 스님이다. 또한 직전까지 동문회 차석부회장과 운영위원회 사무처장을 맡아 동문회 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무엇보다 스님은 건학 40주년을 맞은 모교의 발전을 위해 학교와 동문, 학생들이 머리를 맞댈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학교 발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T/F를 학교와 함께 구성하려 합니다. 학교 발전을 위한 동문의 역할을 살피고 이에 맞춰 활동하겠습니다. 후배 학인과 학교가 가장 필요한 것을 파악해 이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생각입니다."

스님은 또한 동문 간 유대와 협력을 강화해 동문들의 역량이 학교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독려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현재 총무원장, 호계원장 스님은 중앙승가대 출신이고, 중앙종회의원 30여 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문들이 끈끈한 정을 갖고 모교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조직 정비를 하고 학교 발전 불사에 동참토록 독려하려 합니다."

성행 스님은 중앙승가대 총동문회가 동문 역량 집결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종무행정, 포교, 사회, 복지 등 각각의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동문 스님들의 역량과 힘을 모으는 역할을 동문회가 담당하겠습니다." 신성민 기자

강원 산불피해 성금 전달

종단협, 전국재해구호협회에 3000만원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원행)는 4월 18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강원 산불피해 복구지원 성금' 3000만원을 기탁했다. 종단협을 대표해 사무총장 지민 스님은 "적은 금액이지만 이웃의 아픔을 손 놓고 바라볼 수 없어서 29개 불교 종단이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최고인물대상 봉사상 수상

청운 스님 "앞으로도 자비행 계속"



남해 미륵암 주지 청운 스님은 4월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대상 시상식'에서 봉사대상을 수상했다. 평소 '선업선보의 정신'으로 지역 경로당 등에서 복지활동을 펼쳐 온 청운 스님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봉사를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청운 스님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열심히 자비행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낙동강 방생 수륙용왕재

무심사 무심선원, 4월 14일 법회 봉행



무심사 무심선원(선원장 무심)은 제12회 낙동강 방생 및 수륙용왕재 대법회를 4월 14일 경내 극락보전에서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했다. 선원장 무심 스님은 "수륙용왕재는 지수화풍의 4대 신에게 마음의 작용으로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의식이다. 불교의 목적인 우주의 근본 진리인 참 나를 발견해야 한다"고 법문했다. 식후에는 민물고기를 낙동강물에 방생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광수련원 TEL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참회진언 타올

40×80cm / 160g / 30수

5,000원

세수면진언 타올,
절방석을 덮는 참회진언大타올도 있습니다

제일자수타올공업 t.043)644-1102

탈종공고

- 사찰명 : 약사정사
- 주 소 : 경남 진주시 의병로 128 (상봉동)
- 주 지 : 석 진여스님 (속명 : 강영화)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에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4일

(사)대승교단 대원불교조계종
총본산 총무원장 법하

일본불교 '설법제일'은 누가 될까

설법대회 'H1 법문 그랑프리' 오는 6월 개최

박영빈 객원기자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중요한 포교 방법인 설법. 이 설법을 주제로 한 대회가 열린다. 4월 12일 일본의 '마이니치신문' '교토신문' 등 주요 언론사들은 오는 6월에 열릴 설법대회 'H1 법문그랑프리'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했다.

기자회견에서 실행위원회는 "요즘 사회에선 '법문은 교훈뿐이라 지루하다'는 인상이 강하다. 이러한 인상을 바꾸고 불교의 매력을 느끼게 하고 싶다"고 대회 개최 의의를 전했다. H1이란 명칭은 일본어로 법문, 설법을 뜻하는 호와(法話)의 첫 글자와 최고를 뜻하는 숫자 1을 합친 것으로 '최고의 법문'이라는 뜻이다.

이 대회는 진언종 후잔파(真言宗 豊山派)의 젊은 스님들 모임인 후잔파 불교청년회가 연수의 성과발표회를 겸해 2017년 개최한 'H-1 그랑프리 설법대결'에서 시작했다. 당시 교단에서 뜨거운 반향을 얻은 설법대회는 지난해 11월 진언종 총본산인 고야산에서 진언종 청년교사회의 주최로 다시 한 번 개최됐다.

당시 고야산 대회에서 임원으로 활동한 코이케 요닌(32) 스님이 "종단의 벽을 넘어선 대회를 연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질 것"이라고 발의, 이번 대회가 기획됐다.

이번 설법대회의 실행위원장이기도 한 요닌 스님은 "스님들은 보통 불교신자들에게만 법문을 한다. 그러다보니 객관적으로 자신의 법문을 평가받는 일이 드물다. 불교를 떠나 스님 자신이 하고픈 말을 통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이

코베 천년고찰 스마데라서
7개 종단 스님들 대회 참가
각자 10분간 짧은 법문 후
'또 만나고 싶은 스님' 투표

의 마음을 울리길 원한다"고 여러 종단의 스님들이 함께하는 의미를 설명했다.

요닌 스님은 또한 "이번 대회에 나오는 법문들을 통해 단순한 교훈이 아닌 자신의 가능성과 가치를 재발견하고, 삶의 다양성과 찾길 바란다"며 "법문대회에서 지금과 미래를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회에는 총 8명의 스님, 7개 팀이 등록했다. 7개 팀은 대회의 계기가 된 진언종 후잔파를 시작으로 정토진종 오타니파(淨土真宗 大谷派), 일련종, 천태종, 임제종 묘신지파(臨済宗 妙心寺派), 조동종, 정토종 등 7개 종단을 대표한다.



기자회견에서 설법대회의 의의와 참가자를 소개하는 실행위원회. 사진출처=마이니치신문

대회에서 각 팀의 스님들은 각자 10분간 법문하며 심사위원의 심사를 받는다. 대회장에 모인 방청객들은 법문의 내용에 대해 투표를 진행, 최고득표를 얻는 스님이 우승하는 방식으로 대회가 진행된다.

법문 중에 보조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자유다. 정토진종에서 출전한 팀은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로 법문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림연극을 직접 그려 법문에 이용하겠다는 팀도 있다. 참가하는 모든 스님들은 "이날을 위해 그동안 아껴둔 법문을 모두 풀어 놓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심사와 투표기준은 말솜씨나 내용의 구성이 아닌 '이 스님과 다시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다. 실제 심사위원단에 불교학자는 물론 유명 만담가나 라디오PD 등을 배석해 법문의 새로운 매력을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법문을 통해 불교를 바로 믿고 따르기보다 불교에 한 명이라도 더 관심을 가지길 바라는 대회 의의에 따른 것이다.

대회는 오는 6월 2일 코베(神戸)의 천년고찰 스마데라(須磨寺)에서 열리며, 방청객은 선착순 400명으로 한정한다.

불교로 읽는 티베트 의학 세계

부랴트 공화국 역사박물관 '티베트 의학 지도' 특별전

불교를 근간으로 꽃피운 의술이 있다. 티베트 의학은 불교철학이 해석하는 인체구조에 따라 환자를 치료하는 의학으로 평가받는다. 티베트 의학과 불교의 깊은 연관성을 들여다볼 수 있는 특별전이 러시아연방 부랴트(Buryat) 공화국에서 열렸다.

지난 4월 3일 '글로벌 부디스트 도어'는 부랴트 역사박물관에서 열린 특별전 '티베트 의학의 지도: 푸른 청금석의 광명'에 대해 보도했다. 이번 전시회는 20년 전 처음 공개된 티베트 의학 자료전시회를 기념해 열렸다.

1923년 개관한 부랴트 역사박물관은 시베리아에서 가장 오래된 박물관중 하나로, 중앙아시아와 시베리아에 전해진 티베트 불교에 대한 귀중한 유물들을 소장하고 있다. 박물관에서 가장 귀중한 소장품은 총 76점에 달하는 티베트 의학 탕카(Thangka, 티베트 전통 불화) 완본이다. 5대 달라이라마의 지시 하에, 당시 최고의 의사였던 데시 쌍걔갸초가 그린 3부의 원본 중 하나로, 남은 2부는 티베트의 수도 라싸에 보관돼 있다.


박물관에 공개된 의학 탕카들의 모습. 사진출처=글로벌 부디스트 도어

당시 기록에 따르면 이 탕카들은 티베트 의학의 근본원전인 〈사부의전(四部醫典)〉에 대해 쌍걔갸초가 저술한 주석 〈푸른 청금색 (vaidurya sngon po)〉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16년간의 연구를 통해 그려졌다.

티베트 불교에서 의학에 대한 가르침은 약사여래가 석가모니불의 부촉을 받아 중생들의 병고를 치유하기 위해 설법한 내용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렇기에 탕카의 가장 첫 장은 약초가 가득 피어난 만다라에서 푸른 몸의 약사여래가 의술을 설법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17세기에 조성된 이 원본들이 어떻게 부랴트에 완본으로 전해졌는지는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최근 학자들은 20세기 초 티베트와 제정러시아간에 외교관으로 활동했던 승려 아그반 도르지에프가 부랴트 승려들의 교육을 위해 가져온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부랴트 박물관 측은 "이 전시는 단순히 탕카들을 공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티베트 의학의 연구와 적용에 큰 공헌을 한 부랴트 출신 스님들의 역할을 재조명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조우인 객원기자

"멍들어가는 룸비니를 되살리자"

멧테이야 스님, 옛 모습 잃은 룸비니 회복 운동

부처님이 태어난 성지 룸비니. 최근 기후변화와 지나친 관광화로 변해가는 성지 본연의 모습을 지키려는 스님이 있다. 룸비니에서 활동 중인 멧테이야 사캬풋타(32) 스님의 이야기를 지난 4월 11일 캐나다의 '킹스톤 휘그 스탠다드'가 전했다.

멧테이야 스님은 룸비니에서 태어난 의대 장학생으로 미래가 촉망받던 젊은 이였다. 그러나 캐나다의 환경과학자인 비구니 보디 샤카디타(로리 포스터) 스님을 만나 2006년 출가를 결심했다. 이후 멧테이야 스님은 보디 스님과 함께 캐나다에서 캐나다 불교연합회를 창립하고 다양한 불교 전통을 공부했다.

이후 고향으로 돌아온 멧테이야 스님은 자신의 고향이자 성지 룸비니가 옛날의 모습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고 느꼈다. 멧테이야 스님은 인터뷰에서 "룸비니가 세계문화유산이 되면서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고급호텔과 카지노가 생겼다"고 지적하며 성지 본연의 모습이 사라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스님은 "지구온난화로 룸비니의 습지와 강이 메말라 간다"며 "용수가 줄면서 지역의 주요한 산업인 농업이 피폐해져 간다. 생산되는 작물들을 모두 팔아도 농촌의 아이들이 굶주린다"고 말했다. 스님은 "(룸비니의 성지 구역을 둘러싼) 벽을 넘어서면 가난이 만연하고 있다"고 현실을 지적했다.


룸비니의 습지를 관찰하고 있는 멧테이야 스님. 사진출처=킹스톤 휘그 스탠다드

현재 멧테이야 스님은 캐나다 불교도들과 환경단체의 도움을 받아 성지의 회복, 지역주민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먼저 태양열 급수펌프를 이용해 농지에 용수를 공급하는 기금을 모으고 있다. 농업을 되살려 도시로 떠나간 노동력을 다시 불러 농촌을 부흥하고, 여러 습지 생물들을 보존하려는 계획이다.

또 그동안 보호받지 못하던 여성들을 위한 농장과 학교도 설립했다. 스님이 운영하는 2개 학교 1,600명의 학생가운데 60%가 여학생이다. 이뿐만 아니라 종합병원과 간호사 학교 설립도 준비중이다.

조우인 객원기자

日 호류지 구세관음입상 춘계 공개

5월 18일까지… 백제 성왕 본 따 조성

한일 고대교류와 불교사에 중요한 사찰 호류지(法隆寺)가 비불(祕佛)로 관리해온 구세관음보살입상(救世觀音菩薩立像)을 대중에게 공개한다. 4월 12일 일본의 '나라신문'과 '마이니치신문'은 11일 호류사에서 열린 공개 기념 법회를 보도했다.

구세관음보살입상은 호류지 서원(西院)의 중심법당인 유메도노(夢殿)에 봉안된 관세음보살상이다. 높이 179㎝, 녹나무를 조각해 개금한 이 불상은 백제 위덕왕이 아버지인 성왕을 그리워해 그 모습을 본 따 조성한 불상으로 알려졌다. 고대 한일교류사와 불교미술사의 중요한 자료이면서 1천여 년 가까이 비불로 공개되지 않았다.

이후 환상의 불상으로 여겨지던 관음상은 1884년 도쿄미술대 교수였던 어네스트 페놀로사가 대중스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감실을 열어 공개했다. 당시 페놀로사 교수는 자신의 회고에 "세계에 유일무이한, 경탄을 금치 못할 걸작"이라고 평가했다. 이때를 기점으로 호류지 측은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 일반에 구세관음상을 공개하고 있다.


춘계 특별공개가 봉행된 구세관음상. 사진출처=마이니치신문

11일 오전에 열린 공개기념 법회서는 대중스님들이 독경하는 가운데 관음상이 봉안된 감실 문이 열렸다. 호류지 관장(管長) 오노 켄묘 스님은 "오는 5월에 일본의 연호가 바뀐다. 연호가 바뀌는 이 시기에 관세음보살님을 공개하게 돼 감개무량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구세관음상은 불상이 안치된 유메도노에서 오는 5월 18일까지 매일 오전 8시~오후 5시 공개된다.

박영빈 객원기자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도가마을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분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알갱이자죽염 20g 7,500원

2번 구분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회원 우대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LED전구 국산인증 (서울반도체 정품)





안전인증 ISO9001 ISO1400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기억으로 키워내는 마음 근육



김성수의
글쓰기 명상과 자기상담

⑧ 아름답고도 부정적인 삶



예닐곱 살 시절, 나의 겨울밤은 고열과 편도선염, 기침의 기억으로 가득하다. 초저녁까지 잘 놀고 잘 자던 아이가 새벽녘이면 목줄을 세워 피를 토하듯 기침을 해댔다. 붉은 선홍색으로 부풀어 오른 목젖에 기생충이라도 기어 다닌 걸까. 어린 생각으로도 목젖에 손가락을 넣어 한바탕 득득 긁어댈 수만 있으면 소원이 없을 것 같았다. 땀에 전 몸을 굼벵이처럼 오므렸다 펴기를 반복하며 기침을 해댔다. 달궈진 조약돌 같은 얼굴로 이불 안팎을 나뒹굴며 자다 깨다 했다.

어머니는 혼절 지경이 되어 몸부림치는 내게 새벽 어스름을 더듬어 다가왔다. 미친 듯이 기침하는 아들 걱정에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를 비웠을 터다. 당신은 일단 내 이마를 손바닥으로 가만히 덮어 체온을 쟀다. 오메, 어쩌끄나. 내 아들. 이마를 짚은 손으로 내 가슴을 쓸어내리거나 배를 둥글게 문질러댔다. 이상도 하지. 어머니의 새벽을 들깨운 나의 몸부림은 빠르게 자지러졌다. 당신은 지난 밤 내 목에 둘러주었던 수건을 풀어 제쳤다. 어머니는 자신의 혀를 내밀어 내 목덜미 이곳저곳을 핥았다. 어머니의 혀는 변함없이 따뜻하고 시원하고 간질간질했다. 제삿날 향불 내음 같은 것이 어디선가 풍겨오는 것 같았다. 나는 밭은 숨을 쉐엑거리면서도 새끼의 목을 여기저기 아대는 어미의 혀에 목울대를 길게 뻗어 내맡기고 있었다. 나는 어머니의 끈끈하고 시원한 침이 내 목구멍 속 득시글거리는 기생충을 모두 잡아 죽인다는 상상을 했다. 한참동안 아들의 목을 핥아댄 어머니는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엄마 침 발라 났응게 인자 곧 좋아질 거여. 염려 말고 한숨 푹 자."

내 삶이 아름다운 이유

'내 삶이 아름다운 이유'는 내 기억 속 어여쁜 사연을 발굴하자는 의도다. 살아온 날들을 찬찬히 돌아보면 이런 봄꽃 같은 일들이 삶의 갈피 여기저기에 피어 있다. 그럼에도 당신은 사랑 받은 기억보다 상처 받은 일을 더 많이, 선명히 붙들고 있을 터이다. 하지만 아니다. 당신 탓이 아니다. 인류는 긍정성보다는 부정성에 더 노출되기 쉽다는 것이 심리학의 정설이다.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지나간 일에 대한 반성이나 후회,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의 기제가 없었다면 문명 발달을 기약할 수 없었고, 그것의 효능을 현생 인류의 유전자는 쉽게 털어내기 어려울 것이었다. 우리의 유전자에는 두려움과 의심의 프로그램이 모든 순간 작동한다. '사랑이 깊으면 외로움도 깊어라' 고 하지 않던가.

글쓰기명상을 안내할 때 자주 던지는 질문이 있다. "길을 가다가 불길이 치솟는 화재 장면과 두 연인이 오래만의 만남을 기뻐하며 눈물 짓는 장면이 동시에 포착됐다. 이때 당신의 관심은 어느 쪽을 향할 것 같은가?" "거의 모든 선거에서 약속이나 한 것처럼 막판에 흑색선전이 판을 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의도적으로 '아름답거나 긍정적인 대상' 을 발굴해내는 마음 근육을 강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불편과 두려움, 핍진, 불안, 근심이라는 관념에 포박되기 십상이다. 당신의 의식 80% 이상이 자동화된 부정성 위에 놓여 있다지 않은가. 삶 전반을 뒤져서라도 애써 아름다운 기억을 추출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라도 해야 당신의 내면은 겨우 균형과 조화의 힘을 회복한다. 나는 이 에너지의 활용이 행복한 인간관계의 바탕이라고 생각한다. 긍정성은 인류 역사 이래 두려움과 근심 등에게 야금야금 빼앗긴 마음의 영토 아니었을까. 그러므로 생각보다 쉽지 않다. 내 삶이 아름다운 여러 가지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집중력과 지구력이 필요하다. 녹슨 곡괭이로 마른 땅을 찍어대는 개척 근성이 필요하다. 이것이 어쩌면 당신의 행복을 구체적으로 확장해 가는 일 아니겠는가.

- 살아오면서 타인과 나눴던 아름다운 대화를 시나리오 형식으로 재현하는 글쓰기
- 인연 중에서 긍정적 인상으로 남은 사람의 이름 적고, 인사 나누기
- 아름다운 사건을 공유했던 친구에게 전화해서 취재 형식으로 이야기 구성하기
- 아동에서 어른이 되는 동안, 사건 속 갈피에 끼어있는 예쁜 이야기 발굴하기
- 살아온 동네 구석구석을 기억 속에 되살리면서 그때의 내 모습 발견하기
- 떠올리기 싫은 기억을 더듬으며, 그 안에서도 아름다웠던 순간 포착해내기

물론 위와 같은 나의 제안을 심각하게 받을 일은 아니다. 본격적인 산문 쓰기를 하자는 것이 아닌 바에는 사명감으로 무겁게 무장할 필요도 없다. 그저 마음의 시선을 살아온 생애 속으로 돌려서 가만히 굽어 살피자. '무엇이 있었더라' 하면서. 처음에는 새까만 강물을 바라볼 때처럼 막막하리라. 하지만 찬찬이 내 안을 들여다보면, 아름다운 사연이라는 물고기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지나가는 모습이 보이기도 할 것이다. 그럴 때 적어보자. 딱 한 줄만 드러낸다는 마음으로 가볍게. 그러면 반드시 두세 줄 쓰게 돼 있다. 내가 찾아낸 '내 삶이 아름다운 이유' .

본래 인간은 부정성 노출 쉬워
긍정적 기억 더듬어야 성장해
부정적 기억은 당당히 마주하고
허용하면서 소멸되는 것 알아야

- 53세, 친구 석이가 죽었다. 폐암 말기였고, 손쓸 틈이 없었다. 죽기 며칠 전, 석이는 나를 보자고 했다. 병실에는 다른 남자가 하나 있었다. "내 친구다" 석이가 말했다. "나 대신 이 친구하고 잘 지내."
- 초등학교 4학년 담임, 장현수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장난치다 들킨 나를 교탁으로 불렀다. "잘못했지?" "예." "그럼 매 맞아야지?" 울상이 된 나를 선생님은 번쩍 들어올렸다. 두 팔로 내 몸을 아나콘다처럼 휘감은 선생님 얼굴은 온통 털북숭이였다. 선생님은 그 화장실 수세미 같은 털북숭이로 내 얼굴을 박박 문질러댔다. "아프지?" "예." "그럼 됐어. 들어가."

내 삶이 부정적인 이유

9년 전 4월 어느 날이다. 그날 내 앞에 앉은 네 사내의 체구나 자세는 범상치 않았다. 한 사람은 황토색 죄수복을 입었고 나머지 세 사람은 푸른 옷을 입었다. 20대 초반 청년, 40대 초반, 40대 후반,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이들의 공통점은 헐렁한 죄수복 속에서도 살집이 두텁고, 어딘지 기세 등등한 기운이 느껴진다는 점이다. 20대 초반 청년의 낯빛은 깎아놓은 오이 속살 같았는데, 그의 긴팔 죄수복 팔목 부위에 뱀 대가리 문신이 보일락 말락 하면서 소매깃을 들랑거렸다.

나는 몇 달 전 전화를 통해 이들 상황을 전해 들었다. 수감 중에 '사고를 쳐서' 징벌방을 들락거리는 수인들인데, 그들에게 명상 안내를 해달라는 문의였다. 그때만 해도 교도소 명상 안내를 해본 적이 없던 나로서는 도전해보고 싶었다. 3개월 후부터 일주일에 하루 내내, 4회씩 부탁한다는 상담 실무 교도관의 부탁이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1개월이 지나고 또 1개월이 지나면서 마음이 점점 무거워져갔다. 교도소라는 데는 어떤 곳일까. 감옥 속 징벌방에 있는 그들은 얼마나 심각하기에 그런 처지가 됐을까. 정신적으로 정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말 한마디 삐끗했다간 순식간에 한 방이 날아들지도 몰라.' 친구하고 껄껄거리다가도 교도소 생각만 스치면 가슴 한편이 문득 묵지근하고, 몸 안에서 '터엉' 하는 소리가 울려오는 듯했다. 그 교도관에게 전화해서 그날 갑자기 아들 결혼식이 잡혀버렸다고, 쩔쩔 매는 시늉을 하고도 싶었다.

교도소 명상 안내 1주일 전, 막바지에 몰린 심정으로 자리에 앉았다. 나는 2500년 전 인도의 한 수행자를 떠올렸다. 생과 사의 문제를 풀기 전에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결의한 그에 비하면 나는 얼마나 하찮은 주제로 짓눌려 있는가. 오늘은 하다못해 그 흉내라도 내보리라. 그날의 주제는 '내 안의 폭력' 이었다.

오래지 않아 나는,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누군가의 몸을 휴지처럼 찢어버리고 싶었던 기억과 마주했다. 저주와 피해의식의 불구덩이에서 불면했던 밤. 그 인간을 죽여서 땅 속에 파묻어버리리라 하는 생각과 그런 나를 보면서 진땀을 흘렸던 기억들. 보지 않고 확인하지도 않은 생각에 붙들려서 누군가를 난도질했던 상상들. 이것이 내 몸을 통한 행위로 일부라도 드러났었다면? 그랬다. 나는 아마 그들이 있는 곳에 함께 있을 것이었다. 이런 사유는 내 의식의 변성을 불러 일으켰다. 나는 놀랍게도 그들이 오히려 친근해지는 경험을 했다. 혹시 내 안의 어둠이 그들에게 전이된 건 아닐까.

내면의 부정성을 속 깊이 살피다보면 세상의 부정성을 변명하고 싶어지기도 한다. 당신들의 분노, 추악함, 두려움, 근심, 찌질함, 욕설 따위가 모두 나의 내면 어딘가에 쌍둥이처럼 놓여 있음을 보기 때문이다. 나의 욕설과 당신의 욕설이 다르지 않음을 봤을 때, 나의 이유가 분명한 것처럼 당신의 이유도 분명하리라는 이해. '내 삶이 부정적인 여러 가지 이유' 를 참을성 있게 서술하다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말세의 난잡과 혼란, 추악함에게서 따뜻한 동류의식을 느끼게 되는 것은 아닐까. 직접 실행해 보는 수밖에 없다.

- 살아온 중에 슬프거나 두렵거나 수치심에 휩쓸리게 한 사람의 결정적인 말 한마디 적기
- 살아온 중에 나를 부정적 감정에 빠지게 한 사람의 표정 묘사하기
- 오늘 하루, 평온한 표정 속에 감춘 내면의 욕설, 분노, 슬픔, 좌절 등의 기억을 말하듯이 드러내보기
- 내 기억 속, 상처 입은 내가 하지 못했던 말, 구어체로 적어보기
- 나를 수치심에 휩싸이게 했던 그의 말, 다시 떠올려 적어보기
- 혐오감이 올라왔지만, 직책이 낮아서 하지 못했던 말, 구어체로 드러내기
- 나를 두려움(슬픔, 좌절, 우울, 분노 등)에 떨게 한 말, 들은 대로 적어보기
- 그동안 감추고 싶었던 말, 차마 입에 담지 못했던 말, 남에게 꺼내지 못했던 상상 등을 마음껏 적어보기

메스로 뱃살을 그어 자신의 내장을 꺼내보는 일은 잔인하고 혐오스러울까. 그럼으로써 당신이 죽을병에서 살아나는 기회를 얻게 된다면? 글쓰기명상에서 내 삶의 부정성을 드러내는 일은 무슨 의미일까. 내 몸의 내장을 꺼내보는 일만큼 힘겹고 잔인한 작업이리라. 하지만 그럼으로써 내 안의 부정성과 세상의 부정성이 쌍둥이처럼 동일함을 알게 된다면 당신은 어떤 사유를 하게 될까. 안쪽의 나도 나이고 바깥쪽의 너도 나임을 알게 됐을 때, 혼란스러울까? 아니다. 당신은 안팎이 다르지 않음을 보는 순간, 진실로 긍정하게 된다. 부정과 긍정의 사이는 상대적이고 밀어내는 힘의 작용에 의해 만들어지는데, 당신의 의식에서 거부할 대상이나 밀어낼 대상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당신은 부정을 허용함으로써 부정을 소멸하는 알아차림의 근육 만들기를 하고 있다.

〈마음과학연구소 대표〉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연인원 7만명이 관람하는 힐링전문 템플스테이 도량

선무도 공연과 함께하는 골굴사 성지순례



- 오감으로 느끼는 생생한 문화체험과 힐링
- 보고 듣고 따라하고 느낌으로 업장소멸
- 선무도와 불교종합예술공연-체험-감동의 파노라마
- 관람한 모든 불자들이 극찬하는 승군의 전승무예

1500년 마애불의 미소가 삼세업장을 소멸하는 골굴사

주변성지 기림사, 오어사, 석굴암, 문무대왕 수중릉
템플라이프(유료) 선무도 체험 / 공연관람 / 공양(식사)
공연내용 선무도 / 승군의 검무 / 화랑의 봉술 / 아수라의 바라무 / 사천왕의 탈춤 선무드라춤 테라피 / 힐링 살풀이 / 불교전통무용 / 민요
선무도 공연 오후 3시(무료 공연), 월요일은 쉽니다
선무도 지도자 과정 신입생 모집 2년 전액 무료(홈페이지 참조)



선무도 총본산 골굴사
재)선무도 대금강문
054)744-1689 / 775-1689
www.sunmudo.com



선무도 수련원 | 서울 본원(종로) 02-763-2980 | 서울 강남지원 02-599-5554 | 부산 본원 010-2554-8100 | 울산 지원 052-911-1690 | 대구수련원 010-8880-1210 | 하동 용화사 055-882-1689 | 해외 15개국 선무도 지원(센타)



대행 스님

남의 말에 끄달리지 말고 자기 중심에 의해 살아라

공부가 여일했으면 좋겠어요

질문 : 마음공부를 하다 보니 처음에는 환희심도 생기고 관하면 되기도 하는 것 같았는데, 어떤 때는 관해도 안되는 것 같고 답답해서 다른 수련원 같은 데 가서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중심 잃지 않고 여일하게 정진할 수 있도록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우리가 내가 나를, 자신이 자기를 이끌어 가고 자기는 자신을 믿고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떠한 게 잘되다가도 딱 멎고선 안될 때, 또 답답할 때 이런 때가 생기기도 하는데 그럴 때에는 반드시 그걸 공부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불도 꺼졌다 켜졌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거 하지, 항상 켜고 사는 것도 아니고 항상 밤낮이 없이 사는 것도 아니고, 항상 바다가 잔잔하기만 한 것도 아니에요. 파도가 일죠. 그러니까 파도와 잔잔한 물이 같이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등한 이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자꾸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알맞은 일들이 생겨요. 그거는 그냥 즉, 배우가 영화 하고 나면, 한마디 하고 나면 괜찮듯이 그런 거와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수습하려면 '어, 날 공부시키느라고 이렇게 답답하게 만들고 이렇게 모르게 만들고 끄달리게 만드는구나.' 하고 그냥 바로 직접 저거 하면 그게 다 없어지거든요.

그런 건데 얼마 동안은 되더니 지금은 잘 안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답답하게 굴어요. 그래서 하는 소립니다. 답답하게 하지 마시고, 답답하고 모르고 그러는 것이 도니깐 모르고 답답하고 말도 안 되고 하더라도 '이날까지 살아오면서 공부했어도 이게 뭔가?' 하고 한탄하지 말고 모든 걸 거기다 맡겨요. '한탄하게 하는 것도 너고, 답답하게 것도 너고, 모두가 너다!' 하고선 거기다 맡겨 놓을 때, 인제 그게 습관이 돼서 어떤 거든지 다 거기다 놓고선 가게 되면 실험을 통하고 또 체험을 하게 되고, 이러면 자연적으로 그것이 문이 열리는 그런 이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깨치고 안 깨치고, 벌써 본래 깨치라고 돼 있는데 그렇게 여러분이 딱 막아 놓고는 안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살아생전에 그 도리를 알아야,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죽어서도 절대로 떳떳하고 꿀리지 않는다. 꿀리지 않아야 어디든지 내 자유껏 갈 수가 있는 거고, 내 자유껏 건질 수가 있는 거고, 내 자유껏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즉 말하자면 살아서 인가가 됐기 때문에 죽어서도 인가가 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차원에 따라서 이 공부를 해서 간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 또 나와서 고생하기가 싫으니까 자원해서 나간다는 사람이 없었더랍니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구지비끼리 해라." 이렇게 해서 뽑아서 여기 내려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더러더러 있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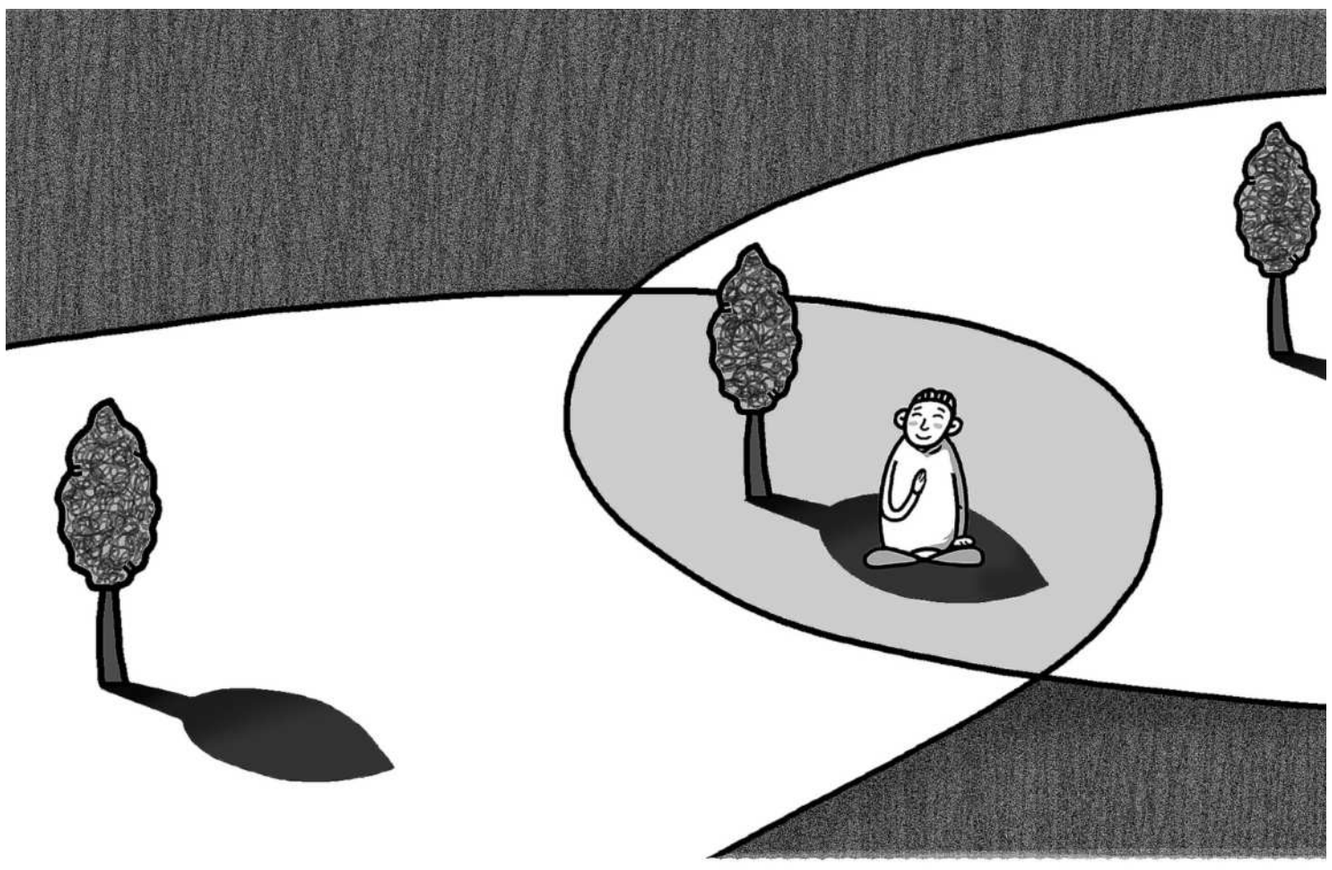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러니깐 여러분도 언제나 이 중세계에서만 뒹굴면서 그 불쌍한 그 모든 생명들을 보고 살고 또 그 생명으로 다시 떨어지고 이렇게 하는 중세계에서만 살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차원이 높아서 참 한 세계의 한 도량으로, 제불의 도량으로 한데 모여서 참 그, 요새 은비까비? 은비까비처럼 그렇게 나오란 말은 아니지만요, 알지 못하게 모든 것을 거기 앉아서 알고 다 도와 줄 수 있고 건져 줄 수 있고 이럭하게끔 한다면 자기네 자손들도 건질 뿐만 아니라 자기 부모 대대 종손들도 다 건질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일 지금 내가 급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자기 뿌리를, 자기 선장 주인공을 진짜로 믿고 맡겨 봐라." 그런 거죠. 벌써 그러면 맡기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고는 그냥 "거기다 놨습니다." 이럭하고 말하고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다 놓질 못하고 부지런히 와서 그냥 그 사단을 얘길 다 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것도 공부하는 사람들은 본론만 얘기하고 가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겪는 모든 얘기를 쫙 다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벌써 그건 거기 자리가 잡히지 않았다는 결론이거든요. 자리가 잡히지 않았는데 방방 뛰지, 어떻게 안 뛰겠습니까? 자리가 잡힌 사람은 그런 걸 해결을 하고 가거든요.

우리가 고등 동물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 중에도 진짜 사람이 돼야 부처님 한도량에 태어난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살면서 우리가 고를 고라고 생각하면 고가 되는 거고, 고를 고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다' 하고선 집착을 한다면 그건 멸이 되질 않아요. 그래 도를 이루지 못하죠. 그러니깐 여러분의 생각에 따라서 도가 되느냐, 도의 길을 걷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망상의 길을 걷느냐 이거예요. 그러니 이 한 철 나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우리가 부처님, 제불 한도량을 이루나.' 하는, '이렇게 해 가지고는 되지 않지.' 하고 그렇게 하세요, 뭐든지.

왜냐하면 지금 사는 거 한 철 그저 '배고프다, 못 입는다, 돈이 없다, 뭐, 어디 취직이 안 된다, 취직해서 다니다가 떨어졌다' 이런 거를 가지고 그냥 벅석거리면 오히려 그것이 제동이 걸리질 않아요. '그거 떨어지게 한 것도, 굶기게 하는 것도, 살게 하는 것도 바로 네가 하는 거니까 너만이, 당신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그냥 놓고 편안히 살 수 있는 대로 편안해야 해요. 그건 뭐, 몸뚱이가 펄펄 뛰고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한 찰나에 오고 감이 없이 오고 가는 마음의 부처 속에서 나오는 그 보살들이 전부 응신이 돼서 돌봐 주시기 때문에 그거 자기 몸뚱이가 이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인제 또 때로는 이렇게도 되는 수가 있죠. 이 한군데를 믿고, 모든 거를 이렇게 한 뿌리를 믿고 그냥 의지하고 해야 나무가 크게 자라는데, 그러지 않고 이 나무에서 저거 하다가 '에이그, 또 저기 가서 한번 또 해 봐야겠다.' 저기 가서 한번 해 보고 저기 가서 한번 해 보고 이러다가는 죽도 밥도 못 되죠. 정말 진짜로 바다로 나갈 수는 없으니까요. 자기가 이 세상에 형성돼서 나온 구녁도 그 구녁이고 들어갈 구녁도 그 구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서 들어가는 거보다도 살아서 들어가서 모든 걸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깨치지 않았어도 그렇게 자꾸 닿는단 말입니다. 관하면 자꾸 닿아요. 닿아서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걸 못 참아서 그냥 이렇게 관해도 이렇다고 하면서 그냥 모두 그러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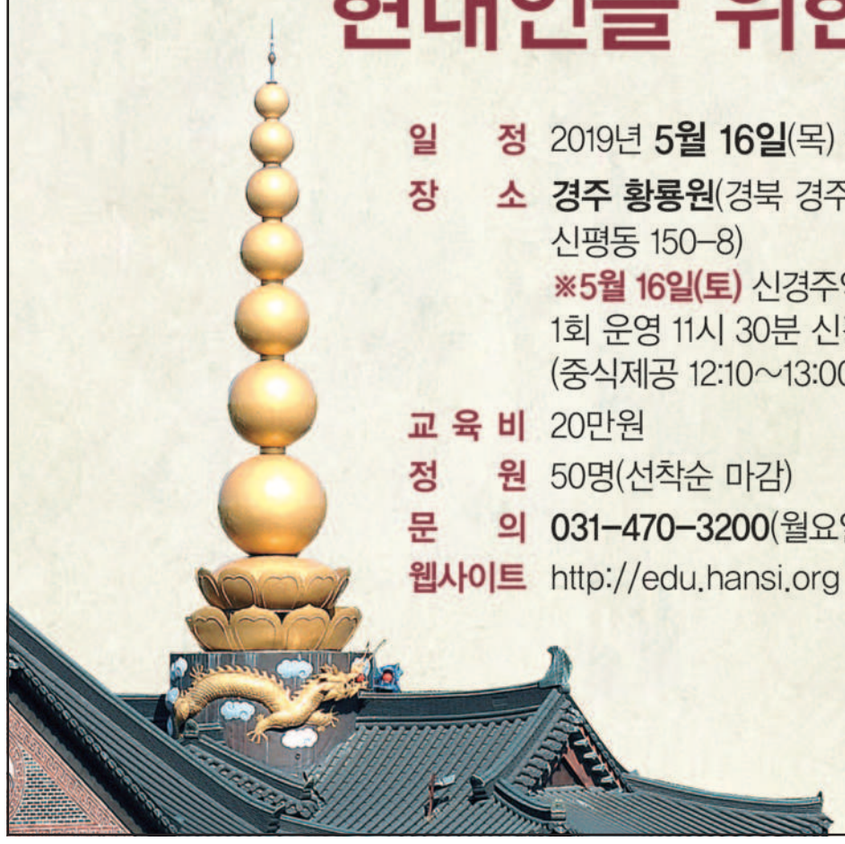
여러분들과 내가 다른 것이 뭐냐 하면 나는 지금 이렇게 죽는다 하더라도 모든 걸 내버렸어요. 내버린 건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봐도 본 게 없고 들어도 들은 게 없다. 만나도 만난 게 없고 또 가고 와도 가고 온 게 없고, 모두 제자리걸음이고, 모두 하나도 한 게 없다. 내가 먹은 것도 없고, 내가 어떤 걸 먹었을 때 내가 먹었다고 할 수 있으랴. 그러니까 먹은 것도 없고 한 것도 없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바로 큰 변하지 않는 금덩어리가 돼서, 그게 자불이 통한다는 얘깁니다. 여러분들은 당장 죽는다 하면 거기에 푹 그냥 '이거 어쩌면 좋은가.' 하고 야단법석들을 하시는데, 친척들이 죽는다 이래도…. 그래서 내가 친척들한테도 식구들한테도 모두가 미리미리 관하는 도리를 알려 주라 하는 거죠. 급하면 그래도 나올 테니까, 안 하다가도. 그러니 때로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자식들한테 무슨 일이 생겼다고 왔을 때에 제

☞ A18면으로 계속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2019년 승려연수과정 수강생 모집

현대인을 위한 포교 – 신도상담과 지도방안



일 정 2019년 5월 16일(목) ~ 18일(토) 2박 3일
장 소 경주 황룡원(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지번) 신평동 150-8)
※5월 16일(토) 신경주역 → 황룡원간 셔틀버스 1회 운영 11시 30분 신경주역 출발.
(중식제공 12:10~13:00)
교 육 비 20만원
정 원 50명(선착순 마감)
문 의 031-470-3200(월요일 휴무)
웹사이트 http://edu.hansi.org

법회에서 활용하는 컨텐츠
▶ 자기 마음 바로 보고 치유하기
▶ 가정, 사회에서 갈등 지혜롭게 해결하기
▶ 삶의 의미와 행복 찾기

5월 16일	5월 17일	5월 18일
마음공부와 치유	생활속 마음공부 : 원리와 방법1	특강 : 마음과 과학
주인공 관법 (한마음공생실천교육과정)	원리와 방법2 (둘 아닌 도리)	
	포교 및 활동사례	

교 재 건널강이 어디 있으랴(한마음출판사), 행복한 부모를 위한 마음공부(학지사/조계종 포교원 인증)
참고도서 꽃을 피우는 나무(학지사/조계종 포교원 인증) / 둥근 입으로 둥글게 말해 주인공(성균관출판부) / 공부(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재단법인 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교육과정 확인 및 신청은 QR코드를 스캔하세요.

너가 너대로 있지 않고 전부가 더불어 같이 산다

☞ A17면에서 계속

일 내가 답답한 거예요. 본인도 잘 모르는 데다가 그것도 또 자손들한테 가르쳐 주질 않아서, 그것이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르쳐 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자기가 그대로 자기 자불을 알아서 여여하게 살아라." 이랬는데, "너희들한테는 다 갖추어져 있고 만법을 들이고 내는 것도 다 그대로, 그대로 여여하니라. 그러니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네 자신을 발견해라." 때로는 "시자야!" 불러서 "예." 그러면 "응, 알았다." 이러곤 고만두고 하는 예전의 선지식도 있었다는데 말입니다. 이 사계절이 오는 거 다 보세요. 이게 전부 여러분들의 스승이자 저의 스승도 됩니다. 하나도 스승 안 되는 게 없는데 마음이 들떠 가지고, 빨리 좀 해 보려고 저기 가서 해 보려고 하고 저기 가서 해 보려고 하고, 이러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거는 들떼기지 그거는 부처님의 길을 가는 게 아닙니다. 말이 아무리 좋았던들, 이론이 아무리 좋았던들 그 몸 떨어지면 입도 떨어지고 입 떨어지면 말도 떨어질 테니까 말입니다.

마음공부를 위해 실천해야 하는 것은

질문 : 이제 마음공부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제대로 마음공부를 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이 있는지요?

답변 : 나는 항상 "부처와 나와 둘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하죠. 법당에 들어오면 부처님의 모습이…, 노래도 있죠? '일체제불의 마음' 그 노래를 가만히 들어 보면 거기에서 다 나와요. 그래서 요만한 거라도, 법당에 들어와서 일체 모두 예의를 갖추는 것도 그렇고 모두 마음공부 하는 사람들은 모두 갖춰져야 되거든요. 노래고 예법이고 모든 거를요.

그러니깐 부처하고도 둘이 아니요, 모든 사람하고도 모습만 달랐다 뿐이지 둘이 아니다 하는 것은 공생이기 때문입니다. 공생! 생명은 다 똑같죠? 벌레의 생명도 생명이 있는 거니까. 공생이고 모두 모습은 달라도 마음은 같단 얘기예요. 잘하든 못하든 마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깐 공심이고, 공체라는 건 모습은 다르나 체는 다 삶에 의해서 살고 있는 체가 다 있으니까. 하다못해 물에서 노는 고기도 체가 있으니까 그, 공체다 이겁니다. 그리고 먹는 것도 우리 전체가 어떠한 물건이든지 다 먹고 산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공식이다 이거예요. 어떤 거든지 다 움죽거리고 하니까 공용이고, 내 몸으로부터도 더불어 같이 공용이고 또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왜냐. 몸뚱이 속에 생명들이 많이 들어 있는데 내가 어떤 걸 먹었을 때 내가 먹었다고 하며 어떤 걸 했을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전부 자기 주장자의 영원한 자기의 근본이 여기에서 자기 몸을 움죽거리게 리드하고 가는데 어떤 거 먹었을 때 내가, 내가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걸 했을 때, 어떤 걸 봤을 때, 어떤 걸 들었을 때에 내가 들었다, 내가 봤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몸뚱이가 공했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 하는 것도 공식이죠. 그래서 "가는 거 잡지 말고 오는 거 막지 말아라." 그러는 것은 모든 것이 둘 아닌 까닭에 그런 것이에요. 배우는 사람은 특히 더 그렇게 해야 하고요. 진리가 그러해요. 그대로 너가 너대로 있지 않고 전부가 더불어 같이 살고 있는 그 자체기 때문에….

전생에 무슨 업을 지었기에

질문 : 지금까지 제 인생을 돌아보면 어려서부터 고생이 끊이지 않고 이제 살 만하다 싶으면 계속 일이 터지고 터지고,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좀 쉬고 싶은데 대체 전생에 무슨 업을 많이 지었기에 이런 인생을 살게 된 걸까요?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쓰라림을 겪어 오면서,
또 잘못하면서, 잘못한 거를 회개해 가면서
살아가는 도중에 부처가 나는 것입니다.



답변 : 숱한 사람들이 남녀를 막론해 놓고 아늑하고 따뜻한 일생이 있는가 하면 아주 춥고 몰아치는 추운 바람에 쌩쌩하게 살을 에어 가는 일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따뜻하게만 일생을 보낸 사람들은 울안에서 핀 꽃과 같아서 험악한 데 내놓으면 어쩔 줄을 모르고 얼어 죽기 똑 참하고 바람에 쓸려서 뿌리까지 파여서 아주 죽기가 일쑤죠. 그러나 험하게 내버려 던져진 그 어떠한 꽃송이라든가 풀잎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어디다가 세워 놔도 그건 죽는다 안 죽는다 또는 쓰러진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버려졌기 때문에.

그러니 누구나가 다 생각할 때 작고 크고 그것뿐이지 여자나 남자나 그렇게 살을 에어 가는 일생이 있는가 하면 아주 따뜻한 일생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생들에 같이 끼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여러분들의 눈물을, '내가 만약에 그릇을 비우지 않았더라면 여러분들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내가 담을 그릇이 없었을 텐데…. 그 눈물 한 방울의 그 창고로서 그 그릇을 비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눈물을 다 담아도 두드러지지 않고 그 눈물을 다 퍼내도 바로 줄지 않는 그 그릇을 얻지 않았는가? 그 그릇도 세울 게 없는 것을….' 하면서 중얼중얼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모두 여러분들의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저한테 보여 주지 않으셨더라면 저는 그릇을 비우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아픔을 바로 나한테 보여 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렇게 아픈 줄 몰랐을 겁니다. 바로 내가 아파 보지 않았더라면, 바로 참다운 눈물을 흘려 보지 않았더라면 그 눈물, 그 참다운 눈물, 참눈물을 몰랐을 것이며 그 쓰라림을 아마도 상세히 몰랐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남의 말만 듣고, 또는 이렇게 그냥 보고 넘기고 듣고 넘기고 하는 거하고 실천에 옮겨서 그렇게 아주 이어지게, 그 살을 에듯 다져 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떼어 놓은 실천은 아마 그것은 더없이 자기의 교훈일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나를 용기를 얻게 했고, 또 한 가지는 '아하, 그렇게 에어 가는 그 사람네들의 아픔을 같이하고 그 배고픔을 같이할 수 있다면 내 이 몸뚱이가 보이지 않고 가루가 된들 어찌 같이 안 하리.' 하고서 나는 거기에서부터 용기를 얻었고, 자면서도 잠이 안 오고 바로 그 궁리, 꿈꾸느라고 밤을 새우기를 수차에, 잠자는 거와 마찬가지로 새웠고, 그래서 가다 보면 쓰러지기도 하고 또 한참 어느 때나 됐는지도 모르게 또 일어나기도 하고 말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인생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렇게 참답게 나갈 수도 있는가 하면 마구 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무렇게나 그냥.

그래서 그 참다운 내 주장심이 아주 무서운, 사람 죽인 살인자가 될 수 있는 칼이 될 수도 있는가 하면 그 무서운 칼이 아주 연하고 잘 드는 칼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칼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중심으로서 중력을 잃지 말고, 남의 말을 들어서 거기에 끄달리지 말고 자기 중심에 의해서 살아라 이겁니다. 언제나 내 중심, 그 한 마음 한 점 속에 일체 만물만생이 다 거기에 있고 그 일생이 거기에 다 들어 있어요. 또 부처님이 돼 봐야 보살의 행을 할 수 있지, 부처님이 되지 않고야 어떻게 보살행을 하며 법신의 행을 하며 모든, 즉 말하자면 자비의 행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거는 업이고, 네가 한 것이 이렇게 업이 많으니까…." 이렇게 따진다면 바로 보살행을 못합니다. 이것도 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줄 수만 있는 거. 업이 많아서 주지 못한다는 그것도 걸리지 마시란 얘깁니다. 업보가 많으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그런 것도 걸리지 말고, 업에도 걸리지 말고, 그 법에도 걸리지 말고 아무것도, 아무것에도 걸리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어느 누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알면 죄를 짓겠습니까? 또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느 누구가 한 발짝 한 발짝 떼어 놓는 대로 본래부터 아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본래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게 그게 업이라면 바로 부처가 어디서 났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쓰라림을 겪어 오면서, 또 잘못해 가면서, 잘못한 거를 회개를 해 가면서 살아가는 도중에 부처가 나는 것입니다.

짐승들이 인간이 되려면

질문 : 불교에서는 창조론보다는 진화론을 주장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짐승들이 인간이 되기까지의 과정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답변 : 부처님께서 '내 자리 아님이 하나도 없고 또 나 아님이 하나도 없다' 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생이 다 불성이 없는 것이 없다' 고 하셨습니다. 다 생명이 있고 다 움죽거리고, 식물도 모두가 다 생명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선법 도리에는 불성이 있다 없다 그걸 다 떠나서 이르는 거죠.

그런데 그 축생이 있기 이전에, 제가 항상 그러죠. 미생물이 나기 이전은 억겁을 통해서 거쳐 오면서 그 모습 모습, 갖가지 모습을 우리는 다 가지고서 화해서 살면서 구르면서 이날 인간이 되기까지 그렇게 어려웠노라고요. 그래서 살면서 순간순간 진화돼서 창조가 되고 하는 그 찰나찰나가, 우리가 금방 마음이 변해서 이 마음이 들고 이 마음 변해서 저 마음이 들듯이 모습도 그렇게 찰나찰나 변화한 거죠. 그리고 마음이 진화돼서 우리가 차원이 높아지니까 바로 진화율도 커진 거죠.

어느 무신이, 즉 말하자면 어떠한 그 물질적이 아닌 어느 귀신이 사람의 형체를 보고야 자기가 그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나왔다 합니다. 사람의 모습을 보지 않고는 도저히 사람으로서 태어날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옛날뿐만 아니라 어떠한 짐승이라도 사람의 탈을 봐야만이 진화된다고 합니다. 또 백 년을 묵은 구렁이도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을 타고 나야만이 부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텐데, 사람의 모습을 타고 날 수가 없어서 사람이 사는 데 내려와서 간장을 먹고 사람을 보고, 숨어서 사람을 해치지 않으면서 백 년을 또 공부해야 사람의 모습으로서 탄생을 한다 합니다. 백 년이 꼭 백 년이 아니라 한순간도 백 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것이 어떻게 생각이 납니까? 그래서 인간은 그 생각 자체가 그 생각이 날 수 있는 무한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짐승이나 축생이나 이런 것들도 인간을 보고서 인간이 하는 대로 눈여겨 보고 듣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가까이 하지 않는 짐승들은 사람 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깁니다. 또 그 모습을 가지고 연방 굴러야만 하니깐 말입니다. 그래서 빨리 진화되는 그러한 축생이나 짐승들, 즉 말하자면 소, 말, 돼지, 개 이런 거는 사람 될 확률이 상당히 아주 많은 거죠. 그래서 '소는 조상' 이라고, 사람하고 너무 접촉을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개고기도 먹지 마라." 한 것도 개하고 사람하고도 아주 가까운 거죠. 고양이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제일 우리 사람 가까이에 있는 것이 축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축생이 그 사람 될 확률이 높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것이 머리가 아둔해서 진화가 늦으면 늦는 대로 그 모습을 가지고 또 떠돌고 떠돌고 떠돌다가 어느 때 한순간 '아! 이 고통 때문에 난 못 견디겠다. 저 사람들은 우릴 가지고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데….' 하는 생각이 들면 사람의 모습을 갖겠죠. 이 마음에 모든 게 달려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축생을 축생이라고 보지 마라. 사랑하라. 내 생명과 같이 아껴라." 남의 생명을 내 생명으로 알아야지 만약에 그것을 살생을 한다면 곧 살생이 되는 거죠, 죽인다면. 그러나 우리가 이 도리를 알아서 그 축생 그 자체도 바로 나 아님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바로 우리도 예전에 억겁을 거쳐 올 당시에 바로 우리의 몸도 그렇게 축생의 몸을 타고 나서 굴러왔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축생도 나의 몸이요, 내 마음이요, 내 생명이라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자비를 베풀 수 있을 때 비로소 부처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보살이라고 하고요. 법신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남남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남의 몸이 하나도 없고요. 우린 한 번씩은 다 거쳐 왔으니까요. 우리가 높게 이렇게 됐다고 해도 만약에 얕은 게 없다면 높은 게 없듯이 축생이 없다면 큰 짐승들도 없거니와 인간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있다 하면 없는 것이고 없다 하면 있는 것이니, 이것이 모두가 다 우리들의 살림살이요, 진리요, 불법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보련기획 BORYEON
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조립식 도량장엄등설치





전문인력, 장비없이 조립·해체 가능 다목적 활용으로 경제적
기둥을 최소화하여 공간활용 극대화 도량 면적과 형태에 따른 다양한 연출

만 월 등



천불전



공 단 등



위 패



법당연등 자동승강장치



법당 고정식 연등설치



인 등



www.boryeon.com 010-5381-9355 /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

| 현불 논단 |

낙태죄 폐지, 그 이후가 중요하다



허남결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11일 헌재 낙태조항 위헌 결정
내년까지 유효하지만 폐지 수순
간통죄 없어져 불륜 늘지 않듯
낙태죄 폐지로 낙태 증가 안해

'앞으로 무엇 할 것인가' 중요
태아 생명과 여성 선택은 동일
불살생계 수지 불자 현명해져야

'생명 가치 존중' 분위기 조성
바른 성 인식 교육 등 진행을
낙태 여성 · 태아 위한 의식 개발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인공임신중절(낙태)을 하는 여성과 의료진을 처벌하는 형법의 낙태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현재의 낙태방지법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긴 하지만 낙태는 이제 더 이상 범죄행위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일각의 우려처럼 낙태율이 급격하게 증가할까? 낙태죄를 폐지한 해외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교복자율화가 청소년들의 비행을 유도했거나 간통죄의 폐지가 불륜을 조장했다는 통계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그것은 개인의 도덕적 가치의 문제이지 법률적 금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속 원론적인 입장에서 찬성과 반대만 할 수도 없는 일이다. 앞으로 우리는 아무런 방어수단이 없는 태아의 생명권과 사정상 낙태를 할 수밖에 없는 여성의 결정권을 현실적으로 조화시키기 위한 사회적 지혜를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불교의 가르침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불살생계의 포괄적인 취지에서 보면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선택은 결코 다를 수 없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부처님은 모든 살아 있는 생명체의 가치를 동일하게 평가하고 서로 존중하기를 바랐다. 그래서 뭇 생명이 꿈틀거리는 계절인 우기 동안에는 작은 생명 하나라도 죽이지 않기 위해 출가수행자들의 유행을 금지시키지 않았던가.

하지만 현대사회의 복잡다단한 상황은 개인의 도덕적 판단을 날이 갈수록 어렵게 만들고 있다.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논리와 이유는 팽팽하게 맞선다. 향후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의 형성을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내년 연말까지 국회가 관련 입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낙태논쟁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여성이 임신 6개월까지 낙태를 선택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인정한 1973년의 '로VS웨이드' 재판 이후에도 낙태논쟁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한국사회에서도 '태아의 생명권을 앞세우는 입장(pro-life)'과 '여성의 선택권을 강조하는 입장(pro-choice)'은 앞으로도 한동안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불살생계를 수지한 우리 불자들은 이전보다 좀 더 현명해지기를 요구받고 있다. 다시 말해 낙태를 하지 않으면 안될 환경 대신 지금보다 생명가치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 것인가? 모든 불자들은 1차적으로 수정순간부터 시작되는 태아의 생명가치를 보호해야 할 도덕적 의무를 갖는다. 이는 가능하면 낙태를 해서는 안되는 근본적인 이유이다. 이와 동시에 성 인식 교육의 확대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원하지 않는 임신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를 확실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낙태가 여성 혼자만의 문제라는 사회적 인식의 개선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각종 보험혜택을 제공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하지 않은 임신을 했다면 14주 이전과 같은 법적 시한을 설정해서 낙태의 신체적 후유증과 정신적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아이를 다른 가정에 입양하는 것을 양육의 포기가 아니라 특별한 보시의 실천이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접근할 인식의 전환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이 낙태를 했지만 심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을 여성을 따뜻하게 위로하는 한편, 죽은 아이의 영혼을 달래고 새로운 환생을 축원하기 위한 불교의식의 개발과 실천도 적극 권장할 때가 아닌가 싶다.

社 說

세대전승 가치 담은 연등회 기대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연등회는 본래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찬탄하는 불자들의 축제였지만 이제는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문화축제로 거듭났다.

올해 연등회는 무엇보다 어린이들의 참가를 독려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다수 기획돼 눈길을 끈다. 연등회의 백미로 평가되는 연등행렬에서 참가자 누구나 작은 팔모등을 직접 제작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기존에는 사전에 연등행렬 참가단체를 접수해 행렬단을 꾸렸지만 올해는 새로운 시도를 선보이는 것이다.

작은 팔모등 만들기는 사단법인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와 함께한다.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다. 팔모등을 만드는 데는 10~15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는다. 작은 노력으로 직접 만든 팔모등에 불을 밝혀 장엄한 연등행렬에 함께할 수 있다. 연등행렬이 펼쳐지는 5월 4일 오후부터 탑골공원에서 참가비용 없이 자유롭게 동참하면 된다.

이뿐만 아니라 5일 어린이날 우정국로를 가득 메우는 전통문화체험마당에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사경 · 인경체험을 비롯해 도자기 만들기, 어린이 명상 등 많은 체험 프로그램을 어린이 주제로 구성했다.

이 같은 변화는 가정의 달인 5월, 어린이날과 일정이 겹친 연등회가 가족들에게 함께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세대전승의 가치도 담겨 있다. 여타 종교보다 세대전승에 취약한 한국불교, 연등회를 계기로 단절돼가는 가족 간의 종교전승이 원활해지길 기대한다.

불교평론 '열린논단' 100회에 부쳐

〈불교평론〉과 경희대 비폭력연구소가 공동주관하는 '열린논단'이 100회를 맞았다. '열린논단'은 불교계 유일 지성 간 토론모임으로 처음 시작부터 토론의 불모지였던 불교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2009년 2월 27일 처음 시작된 '열린논단'은 지난 10년간 서울 강남 불교평론 세미나실서 매년 10회씩 세미나 형식의 논단을 진행해 왔다. 100회에 이르는 동안 연인원 3500여 명이 참여하며 우리시대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불교적 해법이 논의 · 토론됐다.

'열린논단'을 불교계 안팎에서 주목했던 것은 폭 넓게 선정된 의제들에 있었다. 교리, 수행과 같은 불교의 기본에 관한 주제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대사회, 윤리학, 예술, 이웃종교 등 융복합적 주제들도 상당 수 다뤄졌다.

무엇보다 '열린논단'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는 발제와 토론을 통해 한국불교에 필요한 실천적 의제를 점검하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했다는 점이다.

〈유행경〉에는 공동체를 강건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일곱 가지 방법이 담겨있다. 그중에 첫 번째는 방법은 이렇다. "자주 서로 모여 정의를 논하면 서로 화목하고 법(法)은 부술 수 없게 된다."

10년 동안 100회의 모임을 진행한 '열린논단'은 "자주 모여 정의를 논하라"는 부처님의 당부를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불교평론〉 등은 전문성과 대중성을 아우르는 '열린논단'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한다. 계속 변화하겠다는 것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열린논단'이 계속 지속되길 기대해 본다.



천미희의 **환경칼럼**

샤워시간 1분 줄이기

10여 년 전, 산골에서 머물고 있을 때였다. 어느 날 상수도가 고장 났다. 나는 집 근처의 절에서 들통 두 개로 물을 길어와 한 통은 데워 온수로, 또 한 통은 냉수로 세수, 머리 감기, 걸레를 세탁하고도 물이 남았던 기억이 생생하다. 남아 있는 물을 바라보며 작은 들통 두 개의 물로도 가능한 일이 얼마든지 많다는 사실 앞에 조금은 놀랐었다.

그러나 도시로 돌아오고 나는 들통에 물을 받아서 쓰는 행위와는 아주 멀어져 버렸다. 가끔 운동화나 작은 빨래를 할 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세면기의 수도꼭지나 샤워기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사용한다. 특히 아이가 어릴 때는 하루가 멀다 하고 탕에 물을 받아 놓고 목욕을 했다. 목욕을 위해 욕조 가득 채워진 물이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지 가늠해 보는 일은 마음에서 미뤄두었다.

이제 아이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고 탕 목욕의 횟수는 크게 줄었다. 그러나 여전히 샤워나 목욕으로 소비하는 물의 양은 만만찮다. 절수용 샤워기를 사용하고 변기에 1.2㎖ 페트병에 물을 채워 넣어두는 등의 작은 실천들은 계속 이어오고 있지만 샤워나 목욕으로 흘려보내는 많은 물에는 속수무책이다. 우리나라 물 소비량 세계 1위의 기록에 내가 한몫을 하는 건 아닌가 싶어질 때면 수도가 고장 났던 시골에서의 어느 날을 떠올려 보게 된다.

지구 한편에서는 마실 물이 턱 없이 모자란다. 누군가에겐 식수인 물로 샤워를 한다고 생각하니 미안하지만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습관이 된 샤워를 멈추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다면 아주 재미있는 실천 방법이 있다.

샤워할 때 소변을 보는 것이다. 샤워 중 소변은 아주 개인적인 행동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한다면 지구를 위한 행동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교에서 이뤄진 연구에 따르면 1만 5천명의 사람이 하루에 한 번씩 샤워 중에 소변을 본다면 '올림픽용 수영장 26개'를 가득 채울 만큼의 물을 아낄 수 있다고 한다. 실제로 브라질의 환경단체인 SOS마타아틀란티카는 '샤워 중 소변보기' 캠페인을 벌인 바 있다.

또 우리가 샤워나 목욕 횟수를 줄인다면 물을 데우는데 사용하는 전기를 아낄 수 있다. 200ml의 목욕물을 데우는 전기로는 천막교실에서 100촉짜리 백열전구 하나를 70시간 밝힐 수 있다. 내가 별도로 나눔을 하지 않더라도 단지 샤워 시간을 줄이고, 목욕 횟수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지구에서 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에너지를 나눌 수 있는 길이 된다.

다행히 몇 년 전부터 미국에서는 매일 샤워하는 습관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 추세는 프랑스, 호주, 멕시코 등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중이라니 다행스런 일이다. 일주일에 매일 샤워하던 사람이 샤워 횟수를 일주일에 두 번으로 줄이면 물 사용량이 4분의 1 가량으로 줄어든다.

초여름이 다가온다. 시원한 샤워가 더욱 생각나는 계절, 우리의 샤워 시간을 단 1분만이라도 줄인다면 샤워를 할 때마다 마실 물이 없는 지구 저편을 생각하는 공생, 공용의 태도와 품격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기획실장〉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경 남 지 사 : (051)512-1761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대구지사	손문철	T 053-768-8008	H 010-2813-8008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 (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02-456-8831
강 원 도 019-396-1110
충 청 도 010-6545-3350
경 상 도 010-4187-0062
전 라 도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산업지붕공사

동방 약사여래 바라보는 도량

바람도 머문 곳, 암자

③ 전남 구례 사성암(四聖庵)

글 ·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중생은 아프다. 아프니까 중생이다. 아픈 중생이 가장 간절하게 바라는 게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그 아픔에서 벗어나는 일일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성불하여 정토에 나는 것이다. 하지만 중생에게 성불과 정토는 어려운 문제다. 정토를 구현하기 위한 성불은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그것이 중생에게는 쉽지 않은 일대사이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이 쉽지 않은 길에는 여래가 한 분 계시다. 약사여래다. 동방의 정유리세계에 계시는 약사유리광여래다. 모든 여래가 중생을 위해 존재하지만 특히 약사여래는 중생의 질병과 재앙을 걱정하는 여래다. 약사여래의 가피를 입는다면 정토로 가는 길이 조금은 가까워지지 않을까. 질병과 재앙으로 시작되는 번뇌만큼은 놓을 수 있지 않을까. 그 길을 시작할 수 있는 도량이 있다. 동방의 약사여래가 바라보고 있는 도량, 전남 구례 사성암이다.

B2면에 계속



INSIDE

B3 박지산의 정진의 길, 시코쿠를 걷다
36~37번 사찰의 순례여정

B4 책세상
정여 스님의 〈머무는 그 자리에서 행복을〉

B5 문화
송광사 근현대 자료 특별전

B6 학술
종교시장화 가속, 극복하는 방안은

원효 · 의상 · 도선 · 진각 '四聖' 머물러

'전남 구례 사성암'

B1면에서 계속



오십삼선지식을 모신 사성암 오십삼불전. 현재는 33불만 남아 있다.



원효 스님이 선정에 들어 손톱으로 새겼다는 사성암 마애약사여래입상.



산왕전 기둥옆 작은 공간이 도선 스님이 수행했던 '도선굴'이다.

선지식의 도량, 원효 · 의상 · 도선 · 진각

해발 530m의 오산. 그 꼭대기에 사성암이 있다. 산은 그리 높지 않지만 사성암으로 가는 길은 만만치 않다. 지그재그로 오르는 가파른 산길이다. 길마다 봄 햇살이 가득하다. 산은 이제 서서히 꽃들을 물리고 꽃잎이 지나간 자리엔 초록의 새순이 돋고 있다. '남쪽'의 봄은 꽃이 한창인 '위쪽'의 봄과 달랐다. 같은 계절 속에서 다른 풍경을 만난다. '시간'과 '시절'이 다르고 '시절'과 '세월'이 또 다르고 '세월'과 '계절'이 또 다른 것이었다.

부처님오신날을 알리는 오색연등이 줄지어 보이기 시작한다. 도량에 가까워졌음이다. 연등의 도열 끝에서 마침내 길은 끝나고 하늘이 열린다. 그리고 그 하늘 밑으로 기막힌 암벽과 기막힌 법당이 그림처럼 다가온다. 법당과 함께 산새 한 마리가 날고 있다. 사성암이다.

사성암에 오르면 구례가 한 눈에 들어온다. 지리산 첩첩 봉우리들과 섬진강의 반짝이는 물길이 절경이다. 구례 10경 중 하나인 사성암은 544년(백제 성왕 22년) 연기 스님이 '오산암'으로 문을 열었고, 이후 원효 · 의상 · 도선 · 진각 네 분의 스님이 머문 후 도량의 현판이 '사성암'으로 바뀐다. 어느 도량이나 선지식의 흔적은 있기 마련이지만 사성암의 내력은 그 이야기의 행간에 진한 선지식의 법향이 흐른다. 오십삼선지식을 모신 또 하나의 법당 '오십삼불전(五十三佛殿)'도 그 행간의 큰 어미 중 하나일 것이다. 법당엔 현재 서른 세분의 선지식만이 남아있다.

원감국사 〈문집〉은 "사성암이 있는 오산 정상에는 참선하기 알맞은 바위가 있는데 이들 바위는 도선과 진각 스님이 연좌수도 했던 곳이다"고 적고 있다. 이와 같은 기록으로 볼 때, 사성암은 통일신라 후기부터 고려까지 많은 선지식이 참선을 위해 머물렀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도선국사는 이곳 사성암에서 자신의 풍수철학을 완성했다. 스님이 정립한 풍수철학은 천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지금도 한국 풍수철학의 근간이 되고 있다. 우리 풍수철학의 큰 그늘인 도선 스님은 매일 이곳에서 선정에 들었다. 도선 스님이 찾아내고 머물렀다면 그 자리의 의미는 다름 아닌 '여법한 자리'일 것이다. 산왕전 옆에 도선 스님이 참선수행했다는 '도선굴'이 있다.

선지식의 눈은 한가지였을까. 원효 스님 역시 이 자리에 진한 흔적을 남겼다. 스님은 기암절벽에 마애불을 남겼다. 사성암 마애약사여래(전남 유형문화재 제220호)다. 이렇듯 사성암엔 한 시대의 스승이었던 선지식들의 발자국이 곳곳에 남아 있다.

아픈 중생을 위한 도량

약사여래가 머무는 동방의 정유리세계를 비롯해 모든 정토는 당장의 중생에게는 보이지 않는 머나 먼 세상이다. 하지만 그 먼 곳으로 가는 길은 늘 우리 곁에 있어왔고, 지금도 수없이 많다. 불법(佛法)을 늘 가까이 두고 산다면 그 길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으며, 그 길에 들어서는 순간이 정토로 가는 길의 시작일 것이다.

오산 꼭대기에 자리한 사성암은 약사여래를 모신 도량이다. 모셨다기보다는 약사여래가 다가와 머문 도량이다. 사성암의 본당인 유리광전의 약사여래는 마애불이다. 위에서 말한 원효 스님이 남긴 흔적이다. 원효 스님은 선정에 들어 손톱으로 바위에 약사여래를 새겼다고 전해온다. 전설의 시비는 중요하지 않다. 마애불의 실존이라는 중요한 사실이 우리 눈앞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실존에는 적어도 육안이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의 범위를 한참 벗어난 '세월'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시비를 떠난 일인 것이다. 한 손에 약사발을 들고 중생의 아픔을 걱정하고 있는 약사여래의 눈앞에 서면 더욱 '시비'라는 얄팍한 경계는 쓸모없는 것임을 알게 된다.

'마애불'이라는 불사는 불모를 통해 조성한 불상과는 조금 다르게 다가오는 의미가 있다. 불가적 인연법에서 바라보면 '마애불'은 '조성'보다는 '인연'이라는 말에 끌린다. '모셨다'는 말보다는 '찾아냈다'는 말이 왠지 더 어울리는 것이다. 그러니 마애약사여래가 머물고 있는 사성암은 약사여래를 모신 것이 아니라 약사여래가 터를 잡은 것이다. 원효 스님이 약사여래를 찾아낸 것이다. 더구나 사성암의 유리광전은 마애약사여래로 비롯된 불사이기에 마애불의 의미는 더욱 그쪽으로 끌린다.

해발 530m 기암절벽 유리광전
원효 스님 손톱으로 마애불 새겨
도선 스님 풍수철학 완성한 곳
신라부터 고려까지 선지식 수행처

기암절벽에 붙어 허공에 떠 있는 듯한 사성암 유리광전은 20여 년 전 진실 스님이 마애약사여래의 인연에 인연을 이은 불사로, 마애불의 전설만큼 그 실존이 불가적 인연으로 다가오는 불사다. 도저히 일반적이지 않은 불사다. 동방의 약사여래를 모시겠다는 일념의 불사다.

유리광전 중수가 한창이다. 인연에 인연이 이어진 불사는 또 한 번의 불사를 이어가고 있다. 세월을 따라간 단청과 오늘에 필요한 불단을 위해 유리광전은 붓질과 손질이 한창이다. 마애약사여래의 자리도 넓혔다.

"이 자리는 아픈 중생을 걱정한 약사여래가 멀리 동방에서 바라본 곳입니다. 그 옛날, 사성의 이름으로 남은 선지식의 시절을 포함해 오랜 세월 아픈 중생의 의지처였던 도량입니다. 원효 스님의 표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붓질을 하고 손질을 하는 것은 더 많은 대중을 위한 것입니다. 약사여래의 가피를 좀 더 많은 대중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처음 법당이 섰던 날의 공덕인연을 이어받은 소임자로서 공덕을 잇는 것입니다."

1년여 전 부임한 주지 대진 스님은 사성암이 약사도량으로서 더욱 많은 대중의 발걸음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불사를 시작했다고 했다. 대진 스님이 주지로 부임하면서 사성암은 각 법당에서 철야기도를 올리고 있다. 관광사찰이 아닌 진정한 기도처로서 도량을 찾은 대중이 기도공덕의 가피를 받고, 그 공덕이 다시 기도불사로 회향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약사여래를 부르며

오산 기암절벽에서 원효 스님이 찾아낸 약사여래는 동방의 정유리세계에 머물면서 모든 중생의 질병을 치료하고 모든 재앙을 소멸시키며, 부처님의 원만행을 닦아 무상보리의 묘과를 증득하게 하는 부처님이다. 약사여래는 왼손에 약병을 들고 오른손으로 시무외인의 수인을 보이기도 하고, 왼손에 약그릇 또는 무가보(無價寶)를 들고 오른손으로 삼계인의 수인을 보이기도 한다. 약사여래는 과거세에서 약왕이라는 이름의 보살로 수행하면서 중생의 아픔과 슬픔을 소멸시키기 위한 12가지 대원을 세웠다. 그 대원의 공덕으로 부처가 되었고 중생을 고통 속에서 구제할 수 있게 되었다.

선덕여왕이 병에 걸려 의약이 무력하자 밀본법사는 여왕의 침전 밖에서 〈약사경〉을 염송해 여왕의 병을 낫게 했다. 고려시대에도 개인의 평안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위기가 닥칠 때마다 약사도량은 늘어났다. 그렇게 우리는 약사여래의 명호를 부르고 그의 가호를 간절히 바라며 기근과 전란 등 힘들고 아픈 시간을 지나왔다.

중생이 아프지 않았을 때가 있었던가. '오늘'이라는 시간은 늘 힘든 시간이었다. 중수불사로 인해 유리광전의 약사여래를 볼 수 없어 아쉬워하는 불자들이 법당을 향해 두 손을 모은다. 약사여래의 명호를 가슴으로 부른다.

사성암으로 가는 길

해발 531m 오산, 정상의 사성암까지 가는 길은 경사가 급하고 굽은 길이다. 걸어서 가기에는 다소 힘겨운 길이다.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절 앞에까지 자동차 진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주차장이 작아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사성암 마을버스 매표소'에서 마을버스를 이용하면 된다.





우라노우치만을 끼고 걷는 순례길. 36~37번 사찰로 가는 길이다. '경치는 아름다우나, 그것뿐인 길' 이라며 잘 걷지 않으나 충분히 걸을 만한 매력이 있다.

순례길에서 만난 희유한 인연들



박지산의
정진의 길, 시코쿠를 걷다

⑲ 36~37번 사찰의 순례여정

아침 7시. 숙소에서 순례자들은 36번 쇼류지 산문까지 차로 배웅해 준다고 해서 차를 타기로 한다. 히로시마에서 왔다는 부부와 오카야마에서 왔다는 할아버지, 나까지 4명이 차를 신청했다. 차를 탈 사람들은 9시까지 로비로 모여 달란다.

시간이 되어 주차장으로 나간다. 어제 노천탕에서 본 광경이 아침 해에 눈부시게 펼쳐진다. 모두 멋진 광경에 넋을 잃고 바라보노라니 차에 시동을 걸던 직원이 설명한다.

"저기 멀리 보이는 곳이 24번 사찰이 있는 무로토입니다."

모두 그 말에 화들짝 놀라 서로를 쳐다보며 말한다.

"그 말은 우리가 모두 저기서부터 걸어왔단 건가요?"

"세상에나, 우보천리라더니!"

"장하다 내 다리, 앞으로 좀 더 힘내자!"

차를 타고 내려가면서 서로 오늘의 목표를 이야기한다. 36번 쇼류지에서 37번 이와모토지까진 60km 남짓한 거리. 도보로는 이틀 정도 걸린다. 히로시마에서 온 부부는 36번에서 조금 떨어진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절반 정도 이동한 후 오늘 중으로 37번 도착을 목표로 했다.

오카야마에서 왔단 할아버지는 도보로 갈수 있는데 까지 걷다가 해가 지면 노숙, 나는 중간지점인 휴게소까지를 목표로 삼았다.

내리막길을 한 번에 내려오니 귀가 먹먹하다. 모두 배낭을 주섬주섬 등에 매고선 출발을 준비한다. 부부는 어제 쇼류지의 납경을 받지 못했다며 납경소로 올라가고, 오카야마 할아버지는 나와는 다른 루트로 길을 잡는다. 하룻밤 같은 지붕 아래서 잤지만 모두가 다른 길이다. 순례길 위의 인연이니 모두 언젠가 다시 보자며 각각 걸음을 옮겼다.

37번으로 향하는 길은 단조롭기 그지없다. 36번 쇼류지가 자리 잡은 요코나미 반도와 섬 사이에 생긴 우라노우치만(浦内灣)을 끼고 바닷가를 빙 둘러가는 길이다. 옛 기록에는 많은 순례자들이 이곳을 걷지 않고, 배를 타고 이동했다고 되어있다. 실제 순례 중에 만난 토박이 할아버지는 차도가 생긴 후에야 순례자들이 이 길을 다닌다고 말했다.

다른 도보 길로는 어제 묵은 숙소에서 출발해 산 위의 길을 걸어 내려가는 길이다. 다만 대부분의 순례자들이 '경치는 아름다우나, 그것뿐인 길' 이라며 걷질 않는다. 실제 딱 한번 지인의 차를 타고 그 길을 지나봤는데, 자판기도 쉴 곳도 없이 오르내림이 상당한 드라이브 코스였다.

만을 끼고 걷는 길에 들어서니 들리는 것은 파도소리, 바닷새 소리요. 보이는 것은 그저 간간히 있는 어항이었다. 최초로 시코쿠를 순례할 때는 이 단순함이 너무나 싫어 너무나 고통스러운 길로 기억했다. 그러나 몇 번 이 길을 걷다 보니 이 길만큼 또 좋은 길도 없다.

잔잔히 밀려오는 파도소리와 빨간 화살표가 가리키는 이 소박한 길이야 말로 스스로를 생각하게 하는 명상의 길인 것이다. 시코쿠 순례길 위에는 이렇게 소박하고 단조로운 길이 많다. 그 길이 숲속일 수도 있고, 마을 가운데일 수도 있고, 지금처럼 바닷가일 수도 있다.

볼거리가 없다고, 심심한 길이라고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것도 나 자신, 명상과 사색에 훌륭한 수행처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나 자신이다. 이래서 옛 스님들께선 "한 생각에 달렸다"고 말씀하셨나 보다.

한 40분 남짓을 걸으니 버스정류장에서 누군가 나를 보고 손을 흔든다. 누군가 하고 봤더니 아까 쇼류지에서 헤어진 히로시마 부부다. 나보다 늦게 도착한 분들이 어찌된 일인가 하고 놀라서 인사를 한다.

시코쿠 순례 용어 '카케즈레'
순례에서 만난 '길동무' 의미

묵어갈 휴게소서 만난 순례자
누추한 모습에 직업순례자 오인
중얼거리는 말은 '보협인다라니'
매일 1만번 염송하는 출가사문
자신의 분별심에 참회 또 참회

"박상! 또 만나네요!"

"네, 아니 근데 어떻게 벌써 도착하셨어요?"

"납경을 받고 내려오는 데, 숙소 직원분이 정류장까지 금방이라면서 다시 태워줬어요."

"아이고! 그럴 줄 알았으면 그냥 저도 탈 걸!"

"박상은 도보가 수행이잖아요. 부지런히 걸어야하지요."

"수행은 수행이고, 몸이 피로한건 또 별개지요."

서로 웃으면서 농담을 주고받는다. 부부는 버스를 한 대 놓치는 바람에 오늘 목표가 조금 틀어졌다고 말했다. 예약했던 이와모토지의 슈쿠보를 취소하고 근처의 다른 숙소를 잡았단다. 서로 조심히 순례하자며 다시 순례에 올랐다.

참 인연이라는 것이 재미있다. 이렇게 순례길 위에서 만나고 헤어지는 인연이 참 소중하게 느껴진다. 실제로 헨로 용어 중엔 '카케즈레(掛け連れ)' 라는 말이 있다. 순례길 위에 만난 사람들끼리 길동무가 되어 걷는 것을 말한다. 나도 몇 번 카케즈레로 순례를 하면서 지금까지 연락하고 지내는 이들도 있다. 한 친구는 최근에 시코쿠 순례를 계기로 불문에 귀의해 출가했다고 연락이 왔다.

우라노우치만 순례길은 총 13km 남짓. 만을 끼고 여기저기 있는 작은 어촌들을 연결하는 연락선 정류장들이 순례자들의 휴게소로 쓰인다. 순례길의 절반 쯤 와서 어깨를 쉴 겸 배낭을 풀고 스트레칭을 하며 정류장을 서성이려니 트럭 한 대가 와서 말을 붙인다.

"저번에 셋케이지에서 묵지 않았습니까."

"예. 셋케이지 츠야도에서 묵었습니다."

"삿갓이 특이해서 기억하고 있었는데 맞네요."

시코쿠 순례를 할 때는 인사동에서 한국 삿갓을 사서 쓰고 다닌다. 일본 삿갓과는 모양이나 만듦새가 다르다보니 어디 삿갓이냐고 자주 질문을 받는다.

"이것도 인연인데 오셋타이하죠. 타세요."

간혹 자동차로 태워주는 오셋타이를 받는 경우가 있다. 오셋타이를 거절하는 것은 큰 실례이기에 절대 거절해선 안 되지만, 자동차 오셋타이 만큼은 정중하게 거절 할 수 있다.

"마음은 감사합니다만. 걷는 것을 수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지, 이거라도 받아가게!"

할아버지는 조수석에 놓인 봉투에서 컵라면을 하나 꺼내 줬다. 덕분에 오늘 저녁거리가 해결된 셈이다. 할아버지는 내가 목표로 하는 휴게소까지 10km 정도 남았다고 알려주시곤 다시 트럭을 몰고 갔다.

시간을 가늠해 보니 생각보다 빨리 걸었다. 10km면 내 걸음으로 3시간 안에 넉넉히 도착하는 거리인데 이제 점심 조금 전이니 발걸음을 잠깐 멈추기로 한다. 배낭에서 점심거리를 꺼내먹으면서 신발과 양말을 모두 벗어놓곤 발의 열기가 모두 빠지고서야 다시 출발한다.

길이 얼마 남지 않은데다가, 편히 쉬어 발에 힘이 생기니 걸음이 더욱 빨라졌다. 거의 달리는 것 같은 느낌으로 길을 지나간다. 어차피 갈림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를 끼고 걷는 길이니 망설일 것도 없다. 얼마 걷지 않은 것 같은데 스사키시에 도착했다는 안내판이 나왔다.

목적지인 휴게소에 도착하니 오후 4시 30분가량. 잠자리가 어디 있는지 가늠해 본다. 원래 휴게소 한켠에 있는 농산물 직판장에서 노숙이 가능했지만, 근래에 도난 사건이 생긴 이후론 노숙이 금지 됐다. 조금 아까운 일이긴 하지만, 휴게소 전체에 노숙금지가 아닌 게 어디냐며 스스로 달래본다.

멍하니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는데 멀리 꾀죄죄한 순례자가 들어온다. 시꺼멓게 때가 탄 백의에 장바구니를 개조해 만든 짐차를 보니 직업 순례자다. 그도 나를 봤는지 내 근처로 다가온다. 직업 순례자들 가운데엔 무례하거나 강압적인 사람이 많아 긴장을 하곤 경계했다.

내 옆에 앉은 직업 순례자는 귀에 보청기를 낀 초로의 순례자였다. 입으로 쉴 새 없이 무엇인가 중얼거리기에 순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인가 하고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내 그 긴장과 경계를 풀고 참회할 수밖에 없었다.

"나막 실지리야 지미가남 살바 다타아다남…."

순례자가 입으로 끊임없이 외우는 것은 '보협인다라니' 였다. 일본에서 '보협인다라니' 에 대한 신앙이 유행한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 염송하는 사람은 처음 만난다. 이야기를 붙여보니 자신도 오늘 여기서 노숙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으로 도보 노숙순례 37회째, 은퇴 후 출가하여 순례길 위에서 죽을 것은 발원하고 순례 중이라고 한다. '보협인다라니' 는 출가 당시 은사스님께 전수받아 매일 지송하며, 하루에 최소 1만독을 염송하며 살아생전의 악업을 참회하는데 회향중이라 한다.

오늘도 재미있는 하루다. 어떻게 맺어질지 모르는 순례길 위의 인연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법명도 알려주시지 않은 스님은 잠에 드는 그 순간까지 다라니를 염송했다. 〈자유기고가〉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4/17~4/23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김원수	청우당	6	대승기신론 (전2권)	마명/성본스님	민족사
2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	혜민스님	수오서재	7	가사체 불교경전과 한글세대 불교경전	무비스님, 조현춘	운주사
3	스님,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자현스님	조계종출판사	8	왕생요집 (수행과 구원의 서사)	겐신/김성순	불광출판사
4	잔년 (우리에게 남은 시간)	덕현스님	법화	9	중용강의	남회근/송찬문	마하연
5	달라이 라마, 죽음을 말하다	제프리 홉킨스/이종복	담앤북스	10	통도사 사찰약수	이병인, 이영경	조계종출판사

수행의 숲에서 찾아낸 지혜 '여여'

〈如如〉



머무는 그 자리에서 행복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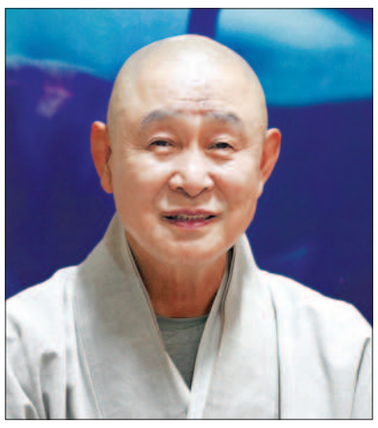
정여 스님 지음/담앤북스 펴냄/1만5천원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불교에서는 수행공동체를 표현하기 위해 산림(山林), 총림(叢林) 등 숲을 의미하는 '림(林)'을 자주 사용한다. 수행자들이 머무는 처소, 숲속에서 어원은 출발 했겠지만 깊은 의미로는 공동체의 삶 자체를 뜻한다. 올곧게 성장하기 위해 나무들은 가지 치기가 필요하듯 공동체의 삶은 자신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수행의 숲으로 직접 들어가는 것이 출가이고, 깨달음을 얻은 후 다시 수행공동체를 찾는 것을 보임(保任)이라 한다. 보림이라고도 쓰는 보임은 보호임지(保護任持)를 줄인 말로 '잘 보호하여 지킨다'는 것이다. 출가부터 생의 마지막 까지 수행자의 숲에서 살아가는 것이 운수납자의 삶이다.

여여선원 선원장 정여 스님〈사진 오른쪽〉이 수행의 삶을 묶어 책 〈머무는 그 자리에서 행복을〉을 펼쳐냈다. 70세를 넘어 보임 수행을 떠나 문경 봉암사, 백담사 무문관, 해남 대흥사, 포항 보경사 등에서 안거를 지내고 수행서 얻은 지혜를 따뜻한 언어로 담았다.

스님은 현대인에게 행복의 열쇠로 '여여(如如)'를 제시한다. 지금 머물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행복하고 여여한 자신의 본성을 보며 당당히 자신의 길을 가라고 설명한다.



행복한 마음 해답 제시해

전법은 마음자리 알리는 것

"여여한 자신의 본성 보라"

책은 크게 2부로 나누어진다. 제 1장부터 4장까지는 평소 스님이 수행하면서 바라본 '마음'이라는 화두를 아름답고 간결한 문체로 적어 내려갔다. 또한 5장에서는 선방 정진과 무문관 폐관 수행을 마친 이야기와 토굴 생활을 솔직 담백히 풀어냈다. 특히 안거철 선방 생활이 적힌 대목에선 일상서 얻는 여여한 삶의 행복을 엿볼 수 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듣고 흘러가는 시냇물 소리도 들어야지/밤이면 풀벌레 울음소리를 듣고 목탁새 목탁 소리도 들어야지/순수하고 꾸밈없는 자연의 소리는 그대로가 화엄의 설법이네/문은 잠기어 나갈 수는 없지만 마음은 새처럼 자유스럽다"처럼 말이다.

집필 기간은 1년으로 생각보다는 짧다. 하지만 출가 후부터 지금까지 얻은 수행의 정수를 담아 쉬운 언어로 해석했다. 책을 출판한 이유는 "여여한 본래의 그 자리를 깨우쳐 주는 것이 포교"이라며 오직 전법이고 답했다.

스님은 '여여'를 더렵혀지지 않는 하늘과 같다고 설명한다. "하늘은 더럽혀질 수가 없습니다. 하늘은 텅빈 허공입니다. 구름이 끼고 천둥번개가 쳐도 하늘 바탕은 맑고 깨끗한 하늘입니다. 하늘에 때가 묻지 않는 것은 형체가 없기 때문입니다…하늘 바탕은 아무것도 없는 텅비어 있는 공간인 것입니다. 깨달은 성인의 마음은 하늘과 같습니다."

정여 스님은 벽파 스님을 은사로 출가, 20여년 동안 포교활동을 펼치며 범어사 주지, 대한불교 교사대학 설립 및 학장, 사회복지법인 보현도량 이사장, 부산종교인평화포럼 상임대표 등을 역임했다. 현재 조계종 법계위원회 위원, 세상을향기롭게 대표, 부산종교지도자협의회 상임대표, 부산불교복지협의회 이사장 등을 맡고 있으며 저서로는 〈구름 뒤편에 파란 하늘이〉 〈알기 쉬운 금강경〉 〈선의 세계〉 〈마음의 풍경〉 등 다수가 있다.

대승경전 교리사상 종합… 수행 체계 총정리



대승기신론 상/하권

마명 지음/정성본 역주 해설

민족사 펴냄/상하 2권 59,500원

〈대승기신론〉은 대승경전의 사상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요약한 책이다. 대승불교의 반야(般若), 공(空)사상과 유심(唯心)의 실천수행 등 제불(諸佛, 모든 부처와 여래)의 다양한 방편법문과 인연법문, 비유법문 등 법문을 진여일심(眞如一心)의 지혜로 종합해 논리적으로 체계 있게 정리한 대승불교의 실천수행서이다.

중국 당대(唐代)의 선승들은 이 〈대승기신론〉의 법문에 의거해 자유자재로 설법과 선문답을 실행했다. 〈육조단경〉서 5조 홍인이 정법의 안목을 구족한 6조 혜능에게 선법을 부촉하고 가사와 발우를 인가증명으로 전하는 것처럼, 조사선은 정법안장을 부촉한 전법과 전등(傳燈)의 역사이다.

또 마조도일과 임제의현, 동산양개 등 중국 조사선의 선승들은 정법의 안목으로 향상의 발심수행을 '살인도'라고 표현했고, 향하의 방행을 활인검이라는 선어로 표현했고, 공(空)과 불공(不空)의 진여법을 빈주(賓主), 정편(正偏), 체용(體用) 등 다양한 선어의 방편법문을 개발했다.

또한 선승들은 〈노자〉나 〈장자〉에서 설하는 무위자연, 무심, 도법자연 등의 언어나, 유교경전에서 설한 다양한 역사의 고사나 언어를 진여법의 논리로 응용해 독자적 선어(禪語)의 방편법문으로 선의 종지(宗旨)를 설했다. 따라서 선승의 방편법문을 선어, 선기어, 선문답이라고 하는데, 선승들의 법어집인 선어록은 중국의 문학사에서 새로운 장르(선어록이라는 새로운 장르)가 출현하게 된 것이다.

대승기신론서 말하는 진여법은 마치 음악의 악보(樂譜)와 비슷하다. 음악의 악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악기로도 코드(chord)에 맞는 연주로 화음(和音)을 이룬다. 그러나 코드를 읽을 수 없는 사람은 불협화음(不協和音)이 된다.

제불여래가 진여의 지혜로 여시(如是) 설법(開示)하는 방편법문을 참선수행자가 여법하게 청법(聽法)하고 수행해야 제불 여래의 지혜를 체득할 수가 있다. 참선수행은 다름 아닌 경전과 어록에서 설한 방편법문을 여법하게 참구하는 간경(看經), 간화(看話)의 공부라고 할 수 있다.

대승기신론은 진공묘유의 법문과 아공, 법공(法空)을 이루는 유심의 실천사상과 진여법의 지혜로 지금 여기, 시절인연에 따른 자기 본분사로 실행하는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공덕행을 회향하는 보살도의 사상이다.

인류의 역사에서 수많은 종교와 철학사상을 주

성본 스님의 뛰어난 해설 돋보여

모든 용어의 출전 자세히 밝혀

장한 동서양의 고전에서, 절대 평등의 진여법을 깨달아 평안한 안신입명(安身立命)의 삶과 유희삼매의 법락을 이루는 수행법을 설한 법문은 오직 대승불교 경전과 그리고 〈대승기신론〉에서 논리적인 수행체계로 제시한다는 사실이다.

대승불법을 실천철학으로 체계 있게 정리한 〈대승기신론〉은 참선수행자가 철저하게 공부해야 할 필수적인 지침서다. 진여법의 대의를 깨달아 정법의 안목을 구족해야 여법하게 참선수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선은 마음 밖에서 부처(佛)나 신(神), 해탈, 열반도 구하지 않고, 외부의 힘에도 의존하지 않고, 정법의 안목을 구족한 무의도인(無依道人)이 진여본심의 지혜로 시절인연의 자기 본분사를 건립하는 구도행이라고 할 수 있다.

정성본 스님이 역주 해설을 한 이 책은 3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정성본 역주 해설의 특징, 혹은 '생명'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의미 전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널리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대승기신론은 '한자로 이루어진 원문', 한문 원전 '만 가지고는 그 뜻을 전달할 수 없다. 이것은 모든 한문 원전의 공통점이지만 특히 대승기신론은 더욱더 하다. 한 예로 노자도덕경을 원문 그대로만 해석하면 그 번역은 의미 불통이 된다. 의역을 하든지, 아니면 역자가 해설을 붙이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성본 스님은 한문 위주의 번역이나 직역 등 한자 중심, 한자 독해에 억매인 번역을 하지 않고 뜻 중심, 내용 중심, 의미 중심의 번역을 했다는 점이다. 즉 의역(意譯)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적당한 의역이 아니고 의미가 통하는 '새로운 개념의 의역'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정성본 역주 해설의 특징은 ' 뛰어난 해설' 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승기신론은 대승경전의 교리와 사상을 종합하여 대승불교의 수행체계를 총 정리한 책이다. 단순한 정리가 아니고 대승의 수행방법을 확립시킨 책이다. 따라서 대승기신론에서 어떻게 각 대승경전의 사상적, 교리적 차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수행 방법으로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 설명했다. 또한 텍스트 풀이나 해설에 한정하지 않고 대승불교, 대승경전, 논서, 그리고 중국선, 선어록 등 불교사상 전체와 관련하여 폭넓게 해설했다

셋째. 정성본 역주 해설은 〈대승기신론〉은, 대승기신론서 사용되는 모든 용어의 출전을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앞에서 "대승기신론은 대승불교, 대승경전의 사상을 종합적 ·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대승기신론에 등장하는 용어는 대승경전에 나오고 있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용어는 개념을 동반하고 있다. 각 용어의 출전과 각 용어의 개념 등을 밝힌 점이 특징이다. 추가로 일러두기 (4)에서 밝힌 것과 같이, 본문 속의 제목 끝과 각 목차 끝에 동그라미 속 숫자(예; ① ②)를 삽입한 것은 역주해설자가 〈대승기신론〉 원문을 내용별로 구분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붙인 것이다. 김주일 기자

조사선의 선풍을 확립하다!

전심법요·완릉록



임제 의현의 스승이기도 한 황벽은 간명하고 평이한
언어로 선의 이치를 펼치고 있어,
이 어록은 선의 정수이자 개론서로 꼽힌다.

황벽희운 저, 정운 강설/양장/288쪽/값 15,000원

금강경의 근본 종지와 낙처를 정확히 드러내다!

금강경삼가해



선사들의 선적 표현을,
원전의 심원하고 원융한 분위기를 살리면서도
정확하게 현대적 감각으로 번역하였다!

전재강 역주, 고우스님 감수/양장/768쪽/값 35,000원

중국 백림선사의 정혜스님 법문집!

생활선의 열쇠



어떻게 인생의 질곡에서 벗어날 것인가?
불법과 세간이 둘이 아니고,
사람노릇과 성불하는 것이 둘이 아니다!

정혜 지음, 이명한 · 안영주 옮김/양장/464쪽/값 2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 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송광사 근현대 100년의 흔적

송광사 조계총림 설립 50주년 기념
'송광사 근현대 자료 특별전'
송광사성보박물관 4월 30일~12월 29일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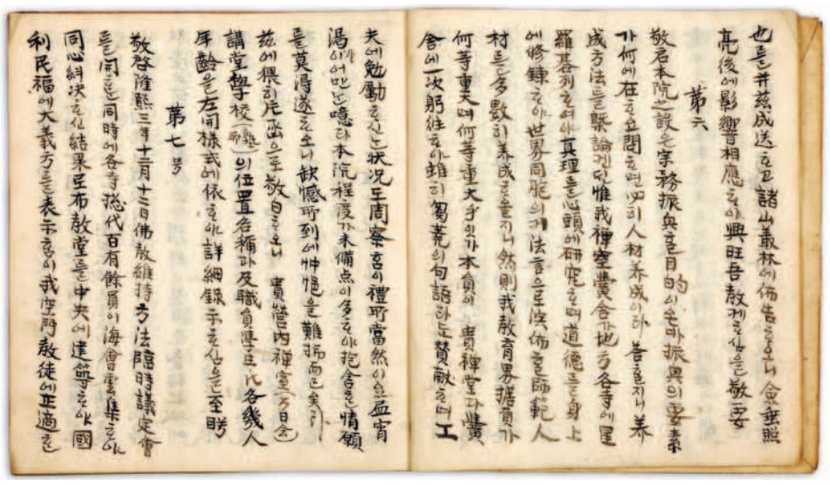
한국 근현대불교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전시가 열린다. 송광사성보박물관(관장 고경)은 4월 30일(개막식 오후 4시)부터 12월 29일까지 조계총림 개산 50주년 기념 '송광사 근현대자료 특별전'을 개최한다.

일제강점기에서의 조계총림 모습을 비롯하여 송광사의 흥미로운 근현대사를 살펴볼 수 있는 이번 특별전에서는 송광사성보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1900년대부터 최근까지 송광사의 근현대 100년의 역사가 담긴 각종 유물과 자료 150여 점이 전시된다.

주요 유물로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1911년 친일 원종(圓宗)에 대항하여 설립한 임제종 종무원 관련 자료 1점과 1920년대 송광사와 송광사 지방학림에서 불렀던 '불교창가(佛敎唱歌)' 가사집인 〈가곡집(歌曲集)〉이 처음 공개된다. 1930년대 공연됐던 팔상극(八相劇) · 목련존자극(目蓮尊者劇)의 연극대본을 비롯하여 조계총림 개산 전후 송광사에 주석했던 석두 · 효봉 · 구산 스님 등의 유묵과 유품도 전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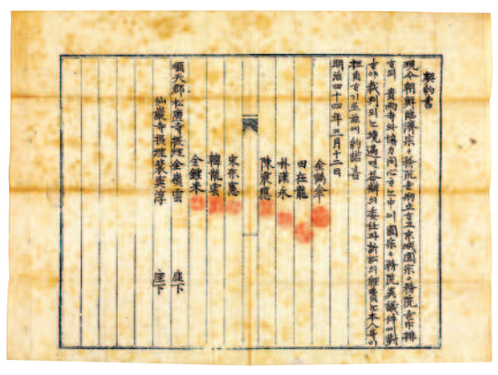
특히 1910년 경 원종과 임제종에서 송광사로 보낸 '공문(公文)' 필사본인 〈간독(簡牘)〉은 주목할 만한 유물이다. 〈간독〉에는 당시 언론에 소개된 기사가 아닌, 공문의 전문(全文)이 필사돼 있어, 당시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다. 첫 번째 공문은 송광사가 소장하고 있는 태고 보우(太古 普雨 · ?~1550)스님 이하 역대 고승들의 문집 등을 수집하여 조사한다는 내용을 시작으로 1911년 공포한 '사찰령' 초안 등이 적혀 있다. 또한 원종이 1910년 이후 조선불교를 일본 조동종에 병합시키려는 음모를 꾸미자 이에 대항하여 창립한 임제종 종무원에서 송광사로 발송한 공문도 함께 수록돼 있다. 책 표지와 첫 장에는 이 공문들을 필사한 '박상전(朴祥銓)'이라는 이름이 등장한다. 박상전 스님은 1889년 전남 보성에서 태어나 1905년 정용월(鄭龍月)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이후 송광사에서 강원 등의 교육을 마치고, 1914년 중앙학림에 입학했다. 1919년 3.1만세운동에 참가하여 옥고를 치른 뒤, 1920년 12월 환속했다.

임제종 종무원 관련 자료
불교창가 가사집 〈가곡집〉 등
각종 유물 · 자료 150여 점 전시


1910년 경 원종과 임제종에서 송광사로 보낸 '공문(公文)' 필사본인 〈간독(簡牘)〉.



'불교창가' 가사집 〈가곡집〉.


임제종 종무원 설립계약서.

〈가곡집〉은 1920년 송광사 지방학림에서 간행한 창가 가사집으로 이남성(李南星)에 의해 편집 발간된 것이다. 〈가곡집〉에는 현대 찬불가의 효시가 되는 퇴경 권상로의 찬불가를 비롯하여 송광사에서 독자적으로 작사한 '16국사호가', '불조역대가', '보조국사기신가(普照國師忌辰歌)' 등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당시 유행했던 '학도가', '보조국사기신가(普照國師忌辰歌)', 그리고 도산 안창호의 '거국가(去國歌)'는 '이향곡(離鄕曲)'이라는 이름으로 수록돼 있다.

전시되는 송광사와 임제종 종무원간의 계약서는 일제가 세운 원종과 대립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소송에 대하여 김학산, 전재용, 박한영, 진진응, 송종헌, 한용운, 김종래 스님이 이에 필요한 대응과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송광사에서 불교중앙학림으로 유학, 1919년 3.1운동에 참여했다가 투옥된 '박상전(朴祥詮)' 스님 관련 자료도 눈길을 끈다. 061)755-0407(송광사성보박물관 학예실).

현대미술과 만난 오백나한의 미소

'창령사터 오백나한, 현대미술과 만난 미소' 展
국립춘천박물관 2019년 특별전 4월 16일~5월 26일

나한의 미소가 현대미술과 만났다. 국립춘천박물관(관장 김상태)은 강원 지역 현대작가들의 모임인 (사)아트인강원(이사장 김명숙)과 공동으로 2019년 특별전 '창령사 터 오백나한, 현대미술과 만난 미소' 전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국립춘천박물관의 브랜드 소장품인 창령사 터 오백나한을 모티브로 하여 강원도의 현대 작가들이 새롭게 창작한 작품 26점을 선보인다.

지난해 8월 고려건국 1100주년을 기념하여 2018년 특별전 '창령사 터 오백나한, 당신의 마음을 닮은 얼굴' 전을 개최했던 국립춘천박물관은 강원 지역의 우수한 전통문화인 창령사 터 오백나한을 현대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특별전을 마련했다.


김명숙 作, Arhat in Soul Garden, Fabric Mixed Media, 2019.

성상(聖像)임에도 불구하고 화내고 웃고 사랑하고 슬퍼하며 탈속의 경계를 넘나드는 표정의 오백나한을 조명했던 국립춘천박물관은 또 한 번 오백나한을 테마에 올렸다. 지난 전시에서 나한을 '나한전' 밖으로 옮겨 대중과 가까운 나한을 좀 더 대중 가까이 옮겨왔다면 이번 전시는 중생의 얼굴을 닮은, 아니 중생의 마음을 담고 있는 오백나한의 미소를 현대미술을 통해 대중에게 다가간다. 26명의 (사)아트인강원 소속 작가들이 재해석한 나한의 미소를 볼 수 있다.

또한 이번 특별전에서는 14점의 특별한 작품이 전시된다. 국립춘천박물관이 개최한 '2018 어린이 그리기 대회'에서 상위 수상자 14명의 어린이가 그린 오백나한이다.

수상자들은 이번 특별전에 참여한 현대 작가들을 멘토로 하여 흥미로운 시각으로 나한을 그렸다.

기성 작가들의 작품을 참고 혹은 패러디를 통해 재미있고 기발한 발상으로 그려진 어린들의 나한은 작가들의 작품에서는 느낄 수 없는 또 다른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사)아트인강원은 지난 2012년에 창립되어 매년 특별전을 개최하면서 강원도 대표 미술인들의 모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에 참여한 작가(가나다순)는 강유림, 권대영, 김명숙, 김우범, 김운연, 김유나, 김윤선, 김진길, 박계숙, 박동진, 백은주, 빅터조, 심선남, 양순영, 이성준, 이용환, 이정여, 이종봉, 이희숙, 임근우, 전태원, 정두섭, 조동선, 최승선, 함섭, 홍귀희 이상 26명이다. (033)260-1500.

박재완 기자

불교영화 '내 마음의 고향' DVD 출시

2019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불교영화 한 편이 DVD로 출시된다. 박영철 감독의 두 번째 장편 '내 마음의 고향'이다. 영화는 지난 2016년 4월 명보아트시네마에서 개봉했다.

'내 마음의 고향'은 어머니에게 버려져 동자승이 된 소년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어려서 절에 버려진 천애고아 도성은 주지 스님의 보살핌으로 열두 살이 된다. 도성은 어느 날 절에 불공을 드리러 온 서울의 젊은 미망인을 본 후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깊어진다. 그리고 그 그리움은 도성을 새로운 삶으로 이끈다.

영화 '내 마음의 고향'은 리메이크 작품이다. 원작은 윤용규 감독의 1949년 작 '마음의 고향'이며, 함세덕 작가의 희곡 '동승'을 영화화했다. 원작은 해방 이후의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완성도를 인정받아 이후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선정한 한국영화 100선에 선정됐으며, 문화재청에 원본 필름이 문화재로 등록되기도 했다. 신상옥 감독의 부인 최은희 배우의 20대 시절을 볼 수 있는 영화로도 유명하다.

DVD 제작사 미디어포유는 "상대적으로 가족들이 볼만한 불교영화가 적었고, 또 고전영화의 리메이크라는 점에서 '내 마음의 고향'은 분명 전국의 불자들에게 '부처님오신날'의 좋은 선물이 될 것이다"며 출시의 취지를 밝혔다. (010)6247-5676(미디어포유 김병훈 대표).


영화 '내 마음의 고향'의 스틸컷.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73-3722 팩스 031)573-3723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숙면이 보약입니다. 특허 제10-1337352호

1등 숯침대



숯침대의 효능 효과

① 부항과 뜸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좌욕효과가 탁월합니다.
② 신체의 전자장을 조절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쾌적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③ 요통환자와 중풍,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에 도움이 되며, 손발이 차고 저리는 분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④ 숯에는 수많은 공기구멍이 있어 구멍 속으로 공기분자의 흐름에 진통을 일으켜 원적외선 방출합니다.
⑤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여 피로해진 눈과 어깨를 보호, 전자파를 상쇄시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⑥ 강한 원적외선 복사열이 공기 중으로 방출되므로 이불을 덮지 않아도 구들장처럼 뜨겁게 방안 구석구석의 공기를 데워줍니다.
⑦ 냄새 제거, 공기 정화, 습도 조절, 전기요금 절감, 뛰어난 영구 보존.



취급 품목
◆ 숯침대
◆ 숯카우치
◆ 좌훈기
◆ 족욕기

숯침대Q : ~~3,300,000~~ → 판매가 2,200,000
숯침대S : ~~2,200,000~~ → 판매가 1,480,000
카우치 : ~~2,670,000~~ → 판매가 1,780,000
평 상 : ~~2,220,000~~ → 판매가 1,480,000
보료Q : ~~2,190,000~~ → 판매가 1,460,000
보료S : ~~1,590,000~~ → 판매가 1,060,000

주소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작은넙고개1길 78
구입 및 문의 | 031-532-3277. 533-3722. 010-7171-2636. 010-3576-6802

“종교시장화 가속… 붓다 ‘전법교화’ 상기를”

조기룡 교수, ‘불교학연구’ 기고논문서 주장

韓 종교인구 감소 추세로
종교간 포교 경쟁 가속화
‘종교시장화’ 함께 나타나
포교가 ‘賣佛’행위 될 수도

‘중생고 해소’… 기본 중요
탈세속화, 불교포교의 동력
화합승가로 세속과 차별화를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종교시장화 현상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붓다의 전법교화 정신을 상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는 불교학연구회 발간 학회지 〈불교학연구〉 제58호에 기고한 논문 ‘한국사회의 종교시장화와 한국불교의 포교 정향’에서 한국 종교계의 시장화 현상을 분석하고 불교 포교의 나아갈 길을 고찰했다.

조기룡 교수에 따르면 ‘종교시장’은 종교사회학자 로드니 스타크 등에 의해 유래된 용어다. 이들은 종교단체들이 사람들의 기호와 양태에 맞춘 포교 프로그램을 개발해 신도 확보에 나서는 종교의 시장적 상황을 “인간의 비용과 편익 계산에 따른 합리적 판단 결과”라고 간주했다.

조기룡 교수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종교시장화’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표적 원인으로는 종교인구 감소를 들었다. 실제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종교인구는 10년 전보다 9% 정도 감소했고, 종교가 없는 인구 비율이 56.1%로 종교가 있는 인구 비율보다 높아졌다.

그는 “종교인구 감소는 종교단체에 위기의식을 가져다주고, 이는 종교간 치열한 포교경쟁으로 이어진다”면서 “각 종교단체는 신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한 여러 포교방안을 강구하게 되고 이로 인해 종교시장화는 가속화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불교, 가톨릭, 개신교로 3분된 한국 종교 구조에서 이들 종교들의 과점적 경쟁은 더욱 격화될 것”이라며 “종교선택의 택일적 특성상 과점에 의한 공존보다는 세 종교간 경쟁, 특히 불교와 개신교의 경쟁이 치열해질 수 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조기룡 교수가 종교시장화를 경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종교의 포교가 ‘영적 마케팅’으로 전락할 위기에 직면해서다.

이에 대해 그는 “포교가 영적 마케팅이 되면 사찰은 붓다의 가르침을 상품으로 여기게 된다. 아무리 고귀한 진리인 붓다의 가르침일지라도 상품이 되는 순간 고객에게 팔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포교가 붓다의 교법을 상품으로 파는 ‘매불(賣佛)’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종교시장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지금, 이를 극복하기 위한 포교 정향으로 ‘붓다의 전법교화’를 조기룡 교수는 제시했다. 기본을 상기하라는 것이다.

생로병사의 고통에 빠진 중생들에게 붓다는 자신의 법을 전하며 스스로 고통서 벗어나도록 유도했고, 이것이 붓다가 보여준 포교의 목적이었다.

조기룡 교수는 “한국불교의 포교 정향은 붓다의 전법 교화에서 강구해야 한다”면서 “중생고의 해소, 즉 인간의 행복이 종교를 초월한 포교의 주요 목적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포교 주체인 승가의 탈세속화와 화합도 주문했다. 조기룡 교수는 “한국불교의 탈세속화는 불교 포교의 핵심동력”이라며 “승려의 가치관은 물질 중심의 세속적 가치관과는 달리 정신에 중심을 두고 그것으로 중생을 교화할 수 있는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보여준 승가의 불화는 불교교단을 사회의 문젯거리로 전락시켰고, 불교를 멀리하게 만들었다”면서 “이는 한국불교가 화합승가를 구현해 사회적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을 상기시킨다”고 강조했다.

동북아 재가운동 전반적 특징은

불교문예硏 26일 세미나

한국, 중국, 일본 등 동북아불교의 재가운동의 특징을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동방문화대학원대학 불교문예연구소(소장 차차석)는 4월 26일 오후 1시 동방문화대학원대학 호운미술관에서 ‘동북아 불교계의 재가불교운동과 그 특징’을 주제로 제13차 세미나를 개최한다.

총 2부로 진행되는 학술세미나에서는 동북아불교계의 재가운동의 특징에 대한 조명과 근현대시기 서양종교에서의 평신도운동을 고찰하는 논문들이 발표된다.

학술세미나에서는 김경진 진각대학원 교수가 ‘한국 근현대 재가불교운동의 특징과 전망’을, 김영진 동국대 교수가 ‘중국 근대 재가불교의 주요 흐름과 그 역할’을, 이석환 동국대 불교학술원 연구교수가 ‘일본 근현대 재가불교운동의 특징과 전망’을, 윤용복 종교사회문화연구소장이 ‘근현대 서양종교에서 평신도운동의 특징과 전망- 한국 기독교를 중심으로’가 각각 발표된다.

논평자로는 최원섭 위덕대 교수, 한지연 금강대 교수, 김재권 능인대학원대학 교수, 이진구 박사(한국종교문화연구원)이 참여한다.

신성민 기자

스위스 박물관 ‘조선 불화’ 제모습 찾다

국박 ‘추파당대사 진영’ 보존처리 완료… 15일 인계식

스위스 리트베르크박물관
소장된 유일한 한국 불화
그간 훼손 심해 전시 불가
해외 한국실 지원사업으로
2년 동안 보존처리 작업

‘추파’라는 법호만 확인돼
정확한 인물 추정 어려워



스위스 리트베르크박물관 소장 조선 후기 불화 ‘추파당대사 진영’의 보존처리 후의 모습. 국립중앙박물관의 외국박물관 해외실 지원사업 일환으로 이뤄진 것으로 2년 동안 진행됐다.

스위스 박물관의 유일한 한국 불화가 제모습을 찾게 됐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배기동)은 4월 15일 기획전시실에서 보존처리를 완료한 스위스 리트베르크박물관 소장 조선 후기 불화 ‘추파당대사 진영’을 해당박물관에 인계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진행하고 있는 ‘외국박물관 한국실 지원사업’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보존처리 작업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2년에 걸쳐 이뤄졌다.

스위스 취리히에 위치한 리트베르크박물관은 1952년 개관했다. ‘추파당대사 진영’은 리트베르크박물관이 보유한 유일한 한국 불화로, 1956년부터 소장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추파당대사 진영’은 편화 형태로 보관됐고, 훼손도도 심해 제대로 전시된 바는 없었다. 이에 리트베르크 박물관은 상설전시실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활용을 위해 한국 전통 불화의 장황 형식으로 보존처리를 해줄 것을 국립중앙박물관에 요청했다.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부는 보존처리를 위해 X선, 적외선 분석 등 사전조사를 실시해 회화의 손상 정도와 과거 보존처리 흔적 등을 확인했다. 보존처리 전 화면의 앞면에는 물에 노출돼 생긴 얼룩이 화면 전체에 번져 있었으며, 표면에 흰 곰팡이가 생성됐을 정도로 손상의 정도가 심각한 상태였다.

보존처리 과정에서 화면의 곰팡이와 얼룩을 제거하면서 화면의 결손된 부분은 유사한 조직의 비단을 사용해 보강했다. 화면 뒷면에 부착된 굳은 접착제와 종이의 흔적도 제거했다. 불화의 형태는 기존의 편화에서 족자 장황으로 바뀌었으며, 족자의 회장 부분은 안료를 채색해 전통적인 불화 형식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추파당대사 진영’은 조선 후기인 19세기에 조성된 작품이다. 사찰의 진영은 주로 입적한 스님을 추모하고 기억하기 위해 그렸으며 ‘영탱(影幀)’이라고도 한다. ‘추파당대사 진영’은 ‘추파’란 법호를 가진 스님의 진영이지만 구체적 문헌 기록이 없어 정확한 인물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중앙박물관은 “향후 보존처리 외에도 전시실 환경개선, 도록 출판, 교육프로그램, 한국문화재 온라인정보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외국 한국실 지원사업을 펼칠 것”이라며 “외국 소재 우리 문화재를 온전하게 보존하고 현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존처리를 마친 ‘추파당대사 진영’은 4월 16일 스위스로 이운되며, 소장처인 리트베르크박물관은 진영을 상설전시관에 전시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제2회 성운학술상 대상에 조준호 연구원

한국불교학회 발표… 오는 5월 24일 시상식

우수상–현암 스님, 장려상–송재근 · 배금란

한국불교의 염불신앙에 대한 학문적 연구를 위해 제정된 성운학술상 제2회 대상에 본지 필진인 조준호 한국외대 인도연구소 연구원〈사진〉이 선정됐다.

(사)한국불교학회(회장 김성철)는 “최근 학술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대상에 조준호 연구원의 ‘아미타불 신앙의 기원과 전개에 대한 규명’을 제2회 성운학술상 대상 수상작으로 선정했다”고 4월 15일 밝혔다.

또한 우수상에는 현암 스님(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과 박사 과정)의 ‘상좌부 불교의 염불수행 연구’를, 장려상에는 송재근(창원대 철학과) 박사의 ‘염불신행의 철학적 해명’과 배금란(서울대 종교학과 박사과정)씨의 ‘염불의 공효(功效)와 실천적 의미 연구-운제산 자장암 사리분신 영응 사례를 중심으로’를 각각 선정됐다.

대상 논문인 조준호 연구원의 ‘아미타불 신앙의 기원과 전개에 대한 규명’은 무량광불 · 무량수불 · 극락정토 등 아미타신앙의 핵심개념이 초기불교로부터 연원한 것임을 문헌적 전거를 통해 규명했다. 아미타신앙의 기원이 관 페르시아 등 외부세계의 영향이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주류적 논의와는 달리 초기불교로부터 발전해왔다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는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우수상으로 선정된 현암 스님의 ‘상좌부 불교의 염불수행 연구’는 빠알리불전에 나타난 염불수행으로서의 불수념 수행과 가피사례에 대한 검토했다. 이 논문은 빠알리불전 상의 염불수행이 보이고 있는 특징과 가피사례까지 망라해 상좌부불교의 염불수행 양상을 명료하게 드러냈다.

장려상 수상작인 송재근 박사의 ‘염불신행의 철학적 해명’은 염불신행의 철학 · 신행적 구조를 잘 풀어낸 점을 인정받았으며, 배금란 씨의 ‘염불의 공효(功效)와 실천적 의미 연구-운제산 자장암 사리분신 영응 사례를 중심으로’는 학문적인 영역에서는 잘 다루지 않는 사리분신의 영응과 가피 사례를 종교학적 측면에서 풀어낸 점이 높이 평가됐다.

한편, 제2회 성운학술상 시상식은 오는 5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사바정토 - 불교적 이상사회는 가능한가’를 주제로 열리는 한국불교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진행된다. 대상은 500만원, 우수상은 200만원, 장려상은 100만원의 상금이 각각 수여된다.

신성민 기자

보조사상연구원 131차 월례학술회

5월 10일 종로 법련사서

보조사상연구원(원장 김호성)은 오는 5월 1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 법련사 2층 교육관에서 제131차 정기월례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법진 스님(태국학연구소)의 ‘동남아시아에서의 초기 불족적의 변형’과 김종수(충남대)의 ‘깨달음으로서의 무아에 대한 고찰’이 각각 발표된다.

법진 스님은 동남아시아 불족적 내 상징이 108개로 나타나는 것에 주목하고 이를 당시 왕들이 힌두 상징들을 대거 수용해 왕권강화에 이용한 사례라고 설명한다.

김종수는 깨달음의 시종으로서의 무아에 관해 고찰한다.

논평자로는 김경래(동국대), 김한상(한국외대)이 참여한다.

신성민 기자





박재완의 PhotoEssay



범종소리

아쉬운 하루가 저문다
억겁 끝에서 또 한 번
하늘은 깊어가고
지나간 일들은 이마를 맴돈다
아쉽고 또 아쉬운 봄날
범종소리나 들었으면
쇳덩이 되어 남고 종소리 되어 떠났으면
범종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나 때문일 걸 알게 된 저녁
나뭇가지엔 꽃들이 돋고
먼 하늘엔 흰 달이 보인다



삼중 스님의 남기고 싶은 인연
㉛ 최 소피아 수녀

"봉사행 몸소 실천한 삶에 큰 감동 받아"

수행자로 살면서 다른 종교 수도자이지만, 헌신적인 봉사행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 자체에 큰 감동을 받은 이가 있다. 바로 최 소피아 수녀이다.

연락이 끊긴 지가 오래돼,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아마도 지금쯤 80세가 넘었을 것이다. 옛날식으로 말하자면 상노인이겠지만, 들리는 얘기로는 3년 전까지 마산 진동에서 '술꾼, 정신장애인'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했다고 한다. 지금은 병환이 깊어 포항의 천주교 요양원에서 힘들게 지낸다고 들었다. 최 소피아 수녀는 원래 1989년 대구 교동시장 입구에 무료급식소를 차렸다. 그녀가 6·25전쟁 때 고향에서 거지들에게 된장과 고추장을 퍼주다 모친에게 야단을 맞았듯이 급식소 일을 시작할 때도 포항예수성심시녀회에서는 "불쌍하다고 어떻게 다 도와준다 말이오"라고 꾸중했다고 한다.

소피아 수녀가 속한 예수성심시녀회의 총원은 대구에 있다. 원래는 1935년 영천서 시작해 1950년 포항으로 갔다가 1992년 대구 남구로 옮겼다. 이곳은 '주님 손안의 연장'이 되기를 맹세하고 믿음과 겸손으로 기다리는 시녀가 되는 것이 기본 철학이라고 한다. 나는 소피아 수녀를 볼 때마다 '시녀'라기보다는 '남자 시종'의 느낌을 받았다. 남자 같은 외모와 투박한 말씨, 호탕한 웃음도 그렇지만 그녀는 정말 박력 있고 진취적인 삶을 살았다.

내가 최 소피아 수녀를 처음 만난 것은 1981년 5월 24일이었다. 당시 내가 지도법사를 맡고 있던 대구 진여원 포교당 청년회 회원들과 함께 천주교서 운영하는 대구시립희망원을 방문했을 때였다. 부처님오신날인 11일 청년회에서 불우이웃돕기 가두 모금 운동으로 모은 40만원으로 건빵, 칫솔치약, 비누 등 생필품을 마련해 희망원 원생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였다.

대구시립희망원은 걸인과 정신이상자, 무의탁 지체부자유자 등을 수용하는 복지시설로 1980년 4월 대구시로부터 천주교 대구교구가 운영권을 넘겨받아 운영해 오고 있었다.

최 소피아 수녀는 희망원 개원 이래 스님의 방문은 처음이라면서 내 손을 부여 잡고 우리 일행을 반갑게 맞아 주었다. 그 자리에서 최 수녀는 "천주교나 불교는 사랑을 실천하는 근본정신에는 똑같다"면서 종교나 교리를 떠나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힘들게 사는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는데 힘을 합하자고 말했다. 나도 최 수녀에게 "사랑과 나눔의 미덕을 몸소 실천해 보이시는 수녀님께 그 정신을 배우고 싶다"고 하자, 최 수녀는 그다지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오히려 부끄럽다며 손사래를 쳤다.

당시 750여 원생을 수용한 대구시립희망원은 마더 테레사 수녀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한국서 가장 불행한 데서 하루를 보내겠다며 선택해 첫날밤을 보낸 곳이기도 하다. 그리고 테레사 수녀는 그곳을 떠나면서 "한국에도 성녀가 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자신의 형제처럼 보살피는 최 소피아 수녀가 바로 성녀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내가 본 최 수녀는 성녀 그 자체였다. 실제로 최 수녀의 팔과 다리는 온통 상처 투성이었다. 주사를 놓거나 치료를 하려 할 때 환자들이 위해를 가해 생긴 상처들이었다. 그간의 노고와 애환은 몸에 난 상처들이 충분히 말해주고 있었다.



박삼중 스님(사진 왼쪽)이 최 소피아 수녀에게 '진인사 대천명'이란 서예작품을 선물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1981년 후원품 전달위해 대구서 첫 만남
'대구시립희망원'서 한달에 한번씩 법문

한번은 최수녀가 이런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주었다. 어떤 정신 질환자가 "어떤 사람이 진정한 성녀인가"라고 물었다고 한다. 갑작스런 질문에 최 수녀가 당황해서 답을 못하고 머뭇거리자, 자신이 대답하겠다면서 일어서더니 최 수녀를 향해 "당신은 사기꾼이다. 사탕을 갖다준 신도들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진짜 성녀다"라고 했다고 한다. 최 수녀는 원생이 자신에게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했다는 말도 숨김없이 솔직하게 털어 놓았다. 나는 그 당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최 수녀의 수행자로서 솔직하고 올곧은 기품을 물씬 느꼈다. 남이 하기 어려운 선행을 실천하면서도 나태와 자만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정상치 못한 원생들 말 한마디에도 자극받고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최 수녀의 모습을 그 후로도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그 경지까지 오르기 위해 얼마나 인내하면서 오랜 수련을 했을까 하는 마음에 존경심이 들었다.

그런 최 수녀의 행동과 마음에 깊이 감화 받아 나도 원생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1달에 한 번씩 설법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고 열심히 방문했다. 하지만 천주교가 운영하는 곳이라 불교적 포교 활동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다.

이렇듯 최 수녀는 산전수전을 겪는 동안 수행의 도가 점점 높아져 예수 성심의 사랑을 전하는 수녀로부터 소외당한 이들을 섬기는 경지에 이른 것 같았다. 소피아 수녀를 다시 만났을 때 그녀의 마음은 변해있었다. 그렇게나 밉던 주정뱅이들이 어느덧 가족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이들을 위해 뭔가를 해주고 싶다고 했다.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열정을 불태우는 최 수녀를 보면서 드러내지 않고 희생과 봉사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도 깨닫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최 수녀의 숭고한 봉사 정신을 기억의 창고에서 끄집어 내보니 오랜만에 기분이 좋아졌다. 기억속에서나마 다시 천사를 만났기 때문이다. 예쁘지도 젊지도 않은 천사. 살결도 뽀얗지 않고 검고 쭈글쭈글한 천사. 하지만 살아있는 진짜 우리들의 천사였다.

정리=김주일 기자